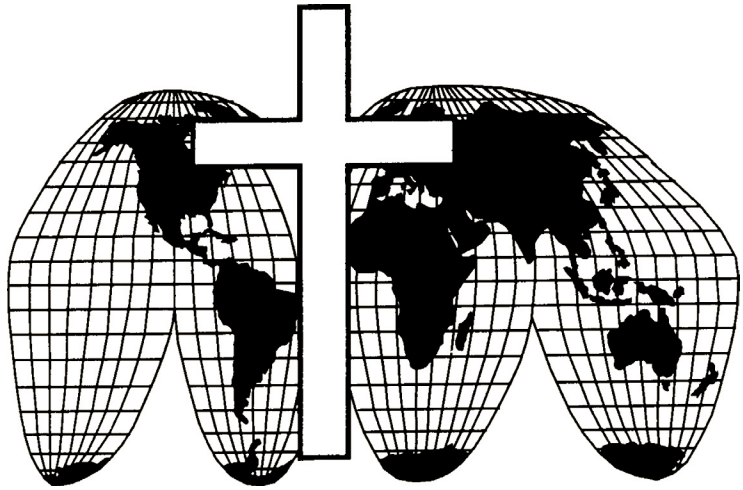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KWMC2016

2016.6.6(월)-10(금)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 캘리포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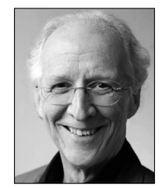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격려사

빌리 그래함 / 명예대회장

한인세계선교대회에 고령의 아버님을 대신하여 축하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과 아름다운 인연이 많습니다. KWMC 선교운동은 태동기부터 아버님의 협력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대회도 주님의 크신 축복이 계실 줄 믿습니다. - 프랭클린 그래함.

토마스 왕 / 명예대회장, Great Commission Center

KWMC의 선교사역이 이제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20여년간 주강사로 대회에 참석했던 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신앙과 선교적 열정에 진실로 감동하였으며,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 성취를 위해 땅끝까지 함께 가는 비전을 봅니다. 금번 선교대회는 이를 위한 재무장의 귀한 기회입니다.



존 파이퍼 / 명예대회장, Desiring God Ministries

오늘날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에서 일어났던 학생자원운동과도 같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젊은 세대 가운데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 강사로 와서 KWMC와 차세대 한인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함께 나아가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이를 통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릭 워렌 / 명예대회장, 새들백교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이미 헌신된 한국교회들의 하나님 나라 확장사역을 더욱 촉진시켜 오신 것에 매우 관심을 갖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통해 전세계를 축복하길 원하셔서 한국을 축복하셨습니다. 금번 대회가 축복의 통로로의 기폭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동진 / 명예대회장, 동서선교연구개발원

1912년에 시작된 한국의 예수교장로회의 타문화권 선교가 100년이 넘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떠할까? 인간화, 세속화, 황금만능주의로 고식화된 제도적 교회로 몰락한 20세기 후반 서구교회를 돌아보며 사도적 DNA를 재생하는 선교대회가 되었으면 한다.

최열식 / 명예대회장, KIMNET 상임대표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전 세계 복음화의 대위임령을 주셨기에 우리 모든 북미주 및 전세계 한인교회가 이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세계선교운동에 참여하므로 우리 세대에 복음화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만우 / 공동대회장, 퀸즈장로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금번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한인교회들의 세계선교가 진일보하는 기틀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들과 단체들, 세계도처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해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한량 없는 영육의 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박희민 / 공동대회장,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지상명령인 세계선교는 모든 교회의 최우선 과업이며 교회는 선교할 때만 참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에 한국교회와 코리안 디아스포라교회들이 충성되이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인류구원의 위대한 계획이 실현되는 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을 초대하고 환영합니다.

고인호 / KWMC 증경의장, PCA 교단 디렉터

하나님은 한인디아스포라, 특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어에 능통한 1.5세와 2세들을 1세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어에 능통했던 바울과 바나나, 실라와 디모데와도 같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쓰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부디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류효명 / 명예대회장, KWMC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선교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흩어졌던 한인디아포라스들, 목회자, 우리의 2세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함께 나누고, 도전받고, 협력할뿐 아니라 새시대에 맞는 새 선교전략을 수립하게 될 뜨겁고 아름답고 성스럽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상진 / 공동대회장, 타코마중앙장로교회

1988년, 1차 대회 때 전체 한인선교사는 불과 300여명, 세계 53번째 파송국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 130명이 참석, 2000년까지 1만명을 파송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오늘, 2만 7천이 넘는 한인 선교사들이 복음의 추수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감경철 / CTS 기독교TV 회장

할렐루야!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와 7,000여 한인디아스포라교회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깨닫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며 보내는 선교사와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 모두가 이번 대회를 통해 영적 재충전이 되어 부르신 그 곳에서 영혼 구원에 힘쓰시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민승기 /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선교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셋째는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시대적 사명을 이루도록 결속하는 세계선교대회에 초청합니다.

박은우 / MIM 멕시코내지선교회 대표

흩어져야 할 때가 있듯이 모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하나 붙잡고 오대양 육대주로 흩어져 불안과 회의와 절망 가운데서도 사명을 수행해 오신 선교사님들과 후방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였던 동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싸안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입니다.

안영섭 / 한인크리스천교회

이 세상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이러한 세계선교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한인세계선교대회로 모입니다.마지막때 주님의 지상명령 실행과 시대적 사명을 이루도록 결속되는 세계선교대회에 선교의 사령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일구 /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이번 '8차 대회'가 열리는 "아주사"는 1906년 "아주사 오순절 성령운동"의 불길이 치솟았던, 근현대 교회사 가운데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이번 '8차 대회'는 성령의 용광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16년 6월에는 오순절 성령운동이 불길처럼 치솟아 지구촌에 번졌던 바로 그곳, "아주사"에서 만납시다.

유승원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선교는 나를 벗어나 너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협력하는 모든 헌신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나를 가둔 세상에서 나와 그분의 다스리심 속으로 들어가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호 / 휴스턴중앙장로교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다가오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함께 특별한 시대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축복입니다.

지용주 / 시라큐스한인교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완성하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새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나누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송성자 / KWMC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장, 순복음사랑교회

세계는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천국복음 위해 오늘도 전진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평신도 사역자님들과 특별히 지상명령 수행을 위해 주의 길을 가시는 여성 동역자님들! 시대적 사명과 위대한 과업을 함께 이루도록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노창수 / 남가주사랑의교회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문화와 격동 속에서, 변함없는 예수그리스도, 복음의 반석위에 함께 서길 소원합니다. 금번 대회는 복음의 감격과 회복이 넘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인디아스포라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고, 수행하기 위한 선교대회에 모두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준 / 시애틀형제교회

21세기에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면 "만인 제사장"에서 더 나아가 "만인 선교사"를 선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에의 깊은 토론과 결단, 그리고 헌신이 있는 세계선교대회에 지금 선교의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선교적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정중히 초대하며 환영합니다.

박신열 / 그레이스한인교회

한 민족을 살리는 것은 복음 밖에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교회가 나아갈 때, 그때야 주님은 오십니다. 이 거룩한 꿈을 깨우는 자리,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현경 / 가스펠휄로우쉽교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시대입니다. 바울은 서쪽 스페인까지 가려했고 도마는 동쪽으로 인도를 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른 채 홀로 전파했지만, 지금은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KWMC가 있습니다.

KWMC2016 대회격려사

양태철 / GMI 선교팀장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께, 2016년 6월의 제8차 KWMC 세계선교대회 참석을 초청드립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중보기도와 선교전략과 선교자원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이번 선교대회의 참여를 적극 권장 및 부탁드립니다.

장춘원 / 뉴라이프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증거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영적전투하고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며 교제와 사역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협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임철성 / 맥클린한인장로교회

지구촌적 세계에 부응하여 발빠르게 변화하는 선교사역의 현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인세계선교사대회와 한인세계선교대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회의 반성, 도전, 회복, 새출발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될 금번 집회에 특히 미주 디아스포라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윤덕곤 / 국제베이직교회, 징검다리사역원 대표

사랑하는 미주광야 성도들이여! 선교의 미래지평을 여는 선교 축제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급박한 시대! 이 시대적 지상 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선교대회에 함께 모입시다. 세계선교대회의 최고 대회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진심으로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김동선 /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신 하나됨(Oneness)을 위한 선교대회가 되고 선교를 위한 하나됨(Oneness)이 되는 귀한 모임의 광장이 되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쟁기를 붙들고 달려가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라며 ...

서준석 /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대회를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이 내미신 손길에 함께 손을 얹어 사역해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동역자 여러분 빨리 뵙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또 한번,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함께 갑시다!

조진모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영적 황무지였던 조선은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과 함께 지상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복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라는 독특한 21세기 문화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마련된 세계선교대회에 초대합니다.

김정한 / 선미니스트리, GMAN 대표

북미주한인교회와 이민자들은 이때를 위해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이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대역사, 선교대부흥, 선교대폭발의 역사, 선교를 위한 영적전사로 거듭나는 선교대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병현 /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대표

지금은 4/14창인 어린이들의 밭이 희어져 시급히 추수할 때입니다. 영적전쟁의 최전선은 그 어떤 나라도 종족도 문화도 아닌 바로 어린이/청소년들이며 이는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입니다. 금번에 함께 열리는 어린이선교대회, 또 나눔들 가운데 어린이선교의 비전이 더욱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윤은성 / KWMC2016 한국지부장, 한국어깨동무사역원 대표

21세기 선교에 있어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연합과 동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해외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선교의 문을 여는 자리에 한국과 해외의 모든 동역자들을 초청합니다.

한도수 / KWMF 공동회장, KODIA 국제대표, 브라질 선교사

매 4년마다 선교올림픽처럼 열리는 KWMC대회는 지난 28년 동안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사명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에게 교제와 정보를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금번 LA에서 열리는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선교사 여러분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김종국 / KWMF 공동회장, KPM 본부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하나님께서는1988년에 시카고에서 시작한 KWMC대회를 통해 선교사와 선교하는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금번 대회는 미서부에서 선교운동을 새롭게 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선교축제에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KWMC2016 대회격려사

박명하 / KWMF 공동회장, 온두라스 선교사

4년마다 대회를 가졌던 시카고 휘튼대학을 떠나 처음으로 LA 기독교 명문인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대회를 엽니다. 100년전 성령의 불이 아주사 거리에서 폭발하여 전 미국에 퍼져갔듯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역사와 은총을 기대하며 이번 대회의 주인공들인 바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김경일 / KWMF 사무차장, 미주 선교사

할렐루야! 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남가주 지역에서 개최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주사에 성령의 기름부음이 부어진지 11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에 다시 제2의 아주사 성령불의 역사로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김정희 / KWMF 여성지부 회장, 러시아 선교사

온 세계를 위하여 복음으로 헌신하는 존경하는 선교 동지님들! 깊은 사랑으로 초청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번 대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 복되고 아름다운 복음의 물결이 아주사를 통하여 온 세계에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이병구 / KWMC 선교사 코디네이터

오늘날 선교위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 선교위기가 아니고 새로운 선교질서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숙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다시 세계 선교의 불이 타오르도록 기도하는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은혜 / WMK, MK선교대회 대표

2008년에 처음 선교사자녀대회를 시작으로 현재 3회를 맞이합니다. 본 대회를 통해 선교사자녀들에게는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새로운 힘을, 그리고 새롭게 참석하는 선교사자녀들은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초청사

고석희 / 사무총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지구촌 복음화의 미완성과업(Unfinished Task of Global Evangelization)에 대한 긴박성을 절감하는 범세계 교회들과 선교운동들이 강권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금세기를 『천국추수의 최종년대』(The Final Era of the Harvest for the Kingdom of God)로 상정하고 도처에서 총력매진하는 현시점에 열리는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16)는 지구촌 완전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비젼과 열망, 그리고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비젼성명』(The Vision Statement of God)이라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세계선교의 대사명(Great Commission)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인류애의 대계명(Great Commandment)을 분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2015년말 현재 무려 170개국에 27,700명에 이르는 위대한 한인선교사들이 오대양 육대주에 달려나가 생명과 생애를 그 땅에 관유처럼 쏟아붓고 있으며, 선교사 자녀도 무려 18,442명이 세계 도처의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한인선교사 파송현황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9년 93명, 1982년 323명, 1986년 511명, 1989년 1,178명, 1990년 1,645명, 1996년 4,402명, 2002년 10,422명, 2004년 12,159명, 2005년 13,318명, 2006년 14,896명, 2007년 17,697명, 2008년 19,413명, 2009년 20,445명, 2010년 22,041명, 2011년 23,331명, 2012년 24,742명, 2013년 25,745명, 2014년 26,677명, 2015년말 27,205명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가로 부상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장엄한 행렬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성령의 역사입니까! 오대양 육대주, 열풍이 몰아치는 사하라사막에서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시베리아설원까지, 산악과 평야, 도시와 촌락, 오지와 섬들 그리고 감옥과 유형지에서, 혹은 백척간두의 두만강변에서 험악한 세월을 가슴으로 헤치며 구령의 열정으로 그 심장을 불태우며,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며, 생명을 포기하며, 고난을 찬미하며, 『매를 맞으며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고후 11:23-27)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와 영광의 확장을 위해 승리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성령에 이끌리어 달려가는 저 위대한 복음의 전령들! 저 고독한 믿음의 영웅들! 오늘도 불멸의 선교행전을 하나님의 책과 박동하는 자기 심장에 기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곧 지구촌완전복음화 그 위대한 역사창조의 새벽을 응시하는 저 불타는 여명의 눈동자들이여! 오! 그대들은 어찌 이다지도 멋지게 휘몰아치며 소용돌이치며 도도히 흘러갈 수 있단 말인가! 천고(千古)의 강물처럼, 천년을 굽이쳐 흘러가는 저 유장한 강물처럼 그렇게!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16)는 정녕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1천2백명의 선교사, 4백명의 선교사 자녀를 비롯하여,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그리고 차세대 대학생, 청소년 등 5천여명의 선교동반자들이 한마당에 모여 만남의 감격, 사랑의 교제, 비젼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명의 재무장, 전인치유, 영적회복, 성령의 재충만,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ing), 번식(Multiplying)을 도모하는 역사적인 동반자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한 사랑의 고백과 또한 상실된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불길처럼 타오를 오순절적 성령폭발의 현장, 그 위대한 선교축제의 대광장에서 저 높은하늘 보좌로부터 들려올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모두 기다리며 삼가 선교동지 여러분을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초청하는 바입니다.

2016 한인세계선교대회 선언문

한인세계선교협의회 주최 한인세계선교대회 제 8 차 대회가 3,000 여명의 지구촌 한인 선교헌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년 6 월 6 일부터 10 일까지 남가주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주제로 열렸다. 대회를 마치면서 한인 선교헌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회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선교의 목적 (PURPOSE OF MISSION):

-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다.
-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선교의 주체 (MISSION LEADERSHIP):

-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명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선교환경 (MISSION CONTEXT):

-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나 선교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 오늘날의 선교환경은 어느 때보다 사명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소명(OUR CALLING):

-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모든 민족교회들과 더불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책임을 맡은 교회는 메시지에 대한 바른 이해뿐 아니라 메시지가 전파되는 환경을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우리의 회개 (OUR REPENTANCE)

-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 구현보다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해온 것을 회개한다.
- 우리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로 물량 위주의 사역을 해온 것을 회개한다.
- 우리는 선교연구와 지도력 개발에 힘쓰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사역해온 것을 회개한다.
- 우리는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사역함으로 자원을 낭비한 것을 회개한다.

우리의 헌신 (OUR COMMITMENT):

- 우리는 자신의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지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 구현을 위하여 사역하기로 헌신한다.
-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자산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기로 헌신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적.물적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연구와 지도자 개발에 헌신한다.
- 우리는 독자적인 사역을 지양하고 한 몸의 지체인 지구촌 민족교회들과 더불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하기로 헌신한다.

우리의 확신 (OUR CONFIDENCE):

- 세계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결국 선교의 주체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발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2016 년 6 월 10 일

제8차 한인세계선교협의회 2016년 선교대회
(The 8th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Mission Conference 2016)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조직

명예대회장	빌리 그래함 토마스 왕 존 파이퍼 릭 워렌 조동진 차현회 임동선 김만우 박희민 최일식 나윤태 고인호 유효명
공동대회장	김남수 김혜택 나광삼 배현찬 서삼정 이상진 이승종 장영춘 한기홍 호성기
사무총장	고석희 서기 조일구 부서기 김동선 회계 이상진 부회계 지용주 감사 박은우 부감사 유승원
대회준비조직	대표의장 한기홍 중앙의장 이승종 실행위원장 이상진 동원본부장 김경일 본부코디네이터 이병구
실행총무단	권종승 김대섭 김동선 김정한 민승기 서준석 성현경 송종록 신현철 양태철 여병현 윤덕곤 이동열 이상훈 임철성 장춘원 조일구 조진모 지용주
공동준비위원장	강성대 강준민 강준원 강빅토리아 고승희 고태형 곽재필 권 준 권혁빈 김경진 김경식 김광수 김기동 김바울 김성국 김성찬 김세웅 김송식 김수태 김승희 김신일 김영길 김영봉 김영진 김용훈 김윤민 김인식 김재열 김정호 김종철 김충배 김충직 김태권 김한요 김현국 김호용 남성수 노승환 노정각 노진걸 노창수 노희송 류응열 명치호 문석호 민경업 민승배 민종기 박병호 박성규 박성근 박승규 박신일 박신철 박영배 박용덕 박은우 박재만 박형은 박형준 백승원 백승철 서욱수 서창권 석동기 손경일 송규식 송민호 송병주 송상철 송성자 송영일 송인규 송재호 송제임스 신승훈 심수일 안동주 안성훈 양성일 양춘길 엄규서 엄영민 오벤자민 오석환 오재호 유승원 윤규형 윤대혁 윤우경 유병헌 유재송 이문연 이상훈 이 서 이선자 이성현 이수관 이요환 이용규 이원철 이재호 이종범 이종용 이지광 이지용 임찬순 이택래 이현석 이형석 이황영 인석진 장동찬 장인관 정기정 정동호 정민용 정수일 정영민 정우성 정장수 조 영 조용완 조재언 제석호 진유철 최경욱 최낙신 최봉수 최우성 최유찬 최홍주 한규삼 한기형 한승완 황기호 허귀암 홍성희 홍원기 홍창우

주강사

로렌 커닝햄 / 명예대회장, YWAM 총재, 열방대학 총장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인 로렌 커닝햄은 1960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예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훈련시켜 선교단체로는 가장 많은 4,000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를 세계복음화 최전방에 배치시킨 막강한 YWAM(Youth With A Mission)을 창립했으며, 또한 하와이 코나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110개국의 250개 캠퍼스에 700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보유한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을 세워 섬기고 있다.

데이빈 로스 (오대원) / 안디옥커넥션 대표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 청년사역을 시작,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이후 사역의 지평을 넓혀 1981년 YWAM 국제적 단체와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미주 한인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안디옥커넥션을 시작하였고 특별히 한반도의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 중보하며 남과 북이 함께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자는 '뉴 코리아(New Korea)' 운동을 펼치며 한국과 해외에서 통일관련 캠프와 훈련학교,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폴 애쉴만 / CCC 부총재

1,000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30여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애쉴만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사역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에 관한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인 그는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여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중이며 로잔운동 략그룹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론 스미스 / YWAM SBS 성경학교 창설

현재 전세계 50여개의 학교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1만여명의 선교현지 성경교사들을 배출해낸 YWAM의 성경연구학교(SBS)를 로렌 커닝햄 목사의 초청을 받아 하와이 코나에서 1981년 처음 열었던 론 스미스 박사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을 좇아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선교지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 왔다. 현재 몬타나주에서 SBS를 담당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타드 존슨 / 고든 컨웰신학교 교수

고든 컨웰 신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과 부교수로, 또 세계기독교센터(CSGC)의 디렉터로 있는 그는 데이빗 바렛 박사와 함께 「세계기독교대백과사전 」을 편찬, 모든 전세계 모든 종족, 언어, 나라, 도시의 기독교와 타종교 현황의 전체 통계의 연구 권위자로 이 자료는 ABC, BBC,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서 널리 활용 및 인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로잔운동에서 새로운 전략, 미전도종족선교, 세계종교에 대한 「글로벌 컨버세이션」을 통해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이동휘 / 바울선교회 대표, 전주안디옥교회 원로

1983년 미군 창고구조물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깡통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세계선교에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단독교회의 틀을 벗어나 초교파적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를 만들어 현재 97개국 4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23년 사역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목사의 자녀 4명도 선교사로 바쳤다. 현재 『바울선교회』를 총괄 지휘하며 선교집회 등을 통해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에 주력한다.

채수일 / 한신대학교 총장

한신대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박사(선교학)를 받고 함부르크대학 선교아카데미 연구실장을 역임, 귀국후 한국신학연구소장, 국제인권센터소장, 한신대학교총장 재임중이며 지구온난화 사막화와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인구폭발, 산성비, 핵겨울, 기아 질병등에 대한 지구재생프로젝트인 유엔지구환경회의 한국대표로 활약하며 한국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선교학회등 13개 학회와 전국 40여 신학대학 및 기독교대학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학회의 회장이다.

박기호 / 풀러신학교 글로벌커넥션 디렉터/교수

1981년 예장합동(GMS)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파송된 후 15년간 사역하며 원주민 교회들을 개척하여 목회하였고 여러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필리핀장로회신학대학을 설립, 총장과 교수로 사역했다. 또한 아시아선교협회(IAM)와 아시아선교학회(ASM)를 설립하여 아시아 선교학자들과 동역하며 아시아 선교에 관한 연구, 책자발행, 컨퍼런스, 교육 사역을 했다. 선교사로서 사역 후 1996년에 풀러 선교대학원 아시아 선교학 부교수로 부임하였으며 현재 글로벌커넥션 디렉터와 다문화 연구학과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마이클 오 / 국제로잔운동 총재

빌리 그래함 등 영적 거성들의 유산이 담긴 국제로잔운동의 총재로 임명되면서 국제 기독교 기관 가운데 한인이 맡은 가장 권위 있는 고위직으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위상과 열매, 그리고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심축이 제3세계와 새로운 세대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클 오 목사는 한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펜실베니아대학과 트리니티 신학교, 하버드대학교를 나와 선교사로 2004년부터 일본 나고야에 그리스도성서대학을 세우고 일본의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메릴리 피어스 던커 / 월드비전

밥 피어스 월드비전 창시자의 둘째 딸인 메릴리 피얼스 던커 여사는 40여개국을 방문하며 선교현장에서 극심한 가난의 고통들을 직접 접하였고 월드비전의 사역들을 통해 변모하는 기적들을 보아왔다. 그동안 월드비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 힘써오며 다수의 모임에서 강연 및 집필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양재 / 우리들교회 담임, 큐티선교회 대표

고난이 축복임을 역설하며, 실제적이고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큐티'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 온 김양재 목사는 큐티선교회와 우리들교회를 개척하여 여성 목사로는 드물게 1만여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으며 CTS, CBS 등 방송과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등 14권의 저서를 통해서 가정회복과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백석대 신학대학원을 나와 서울예고와 총신대에서 강사를 역임하였다.

오정호 / 새로남교회 담임

대전 및 중부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남교회의 담임인 오정호 목사는 4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부친 오상진 목사(가야제일교회), 형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와 더불어 삼부자가 목회자이다. 내수동교회와 사랑의교회 사역을 거치면서 박희천 목사로부터 말씀사역과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사역을 정통성 있게 이어받았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를 나왔고 현재 월드비전 이사, 크리스챠니티투데이 한국 법인이사, 교회갱신협의회 공동대표, 제자훈련목회자네트워크 전국대표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장상길 / 송도주사랑교회

인천 송도 신도시내의 대표적인 교회로 지역사회 복음화에 매진하며 200곳을 선교하고 500구역을 세우고 5000명을 전도하자는 "이백 오백 오천"의 비전을 품은 주사랑교회를 개척한 장상길 목사는 안양대학신대원과 연세대연합신대원을 졸업하였고 미접촉지역과 여러나라의 현지인목회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 옷을 입히는 사역자로 국내는 군.면에 천국복음을들고 실제적으로 전하고 영접시키는 마라나타운동을 이끌고 있다. CTS TV 방송설교를 9년 진행하였고 기아대책본부 본회이사, 해양경찰청 경목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최복이 / 본월드미션 대표이사, 시인

1965년 충남 청양에서 출생하여 충남대 국문과 졸업 후 1994년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을 수항한 후 2003년 남편과 함께 (주)본죽을 창업하고 기업이익을 통하여 국내외 각종 선교를 하며 (재)본월드미션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기독교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06년 현대시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고독한 날의 사색〉, 〈미루나무 길〉, 〈길 위에 위안〉등 다수의 시집이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안성원 / KWMF사무총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GP선교회, 합신총회 협력선교사로 서울공대와 합동신학교를 나와1984년 인도네시아로 파송, 지금껏 자카르타 및 정글지역에서 사역해 오고 있는 안성원 선교사는 교회개척 사역을 비롯하여 현지인 선교단체인 WP(World Partners)를 시작, 인도네시아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또한 안디옥 기독교등학교를 설립하고 안중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GP 선교회 대표를 역임하였고 한인선교사들의 연합체인 KWMF(한인세계선교사회)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아내 조은숙 선교사와 두 아들 의용, 선용이 있다.

서삼정 /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예수믿는 맛」 시리즈로 펴낸 「영성이 살아야 예수믿는 맛이 난다」 등 그의 저서에서 보듯 서삼정 목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목회를 통해 지난 40년간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동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고 능력있는 설교가로 세계적인 부흥집회 및 영성세미나를 인도하였고 또한 영감넘치는 시편으로 엮은 시집 「조약돌」을 세상에 선보인 아름다운 감성의 사역자다. 미주기독교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였고 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로 사역하고 있다.

한기홍 / 은혜한인교회 담임, GMI 대표

52개국에 25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 내었으며 6개 신학교 및 한국에 선교사훈련원을 개원, 세계선교에 전력을 경주해 온 G.M.I. 선교운동은 한기홍 목사가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여 세계선교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교회 재정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다. 새 성전의 이름을 '비전센터'라 명명하고 세계복음화 중보기도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며 202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는 "Vision2020"을 이루기 위한 팀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남수 / 프라미스교회 담임, 4/14윈도우운동 창시

강력한 선교적 목회를 통해 뉴욕지역 최대교회로 성장한 프라미스교회의 김남수 목사는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예민한 지구촌 4세-14세 어린이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하는 집중교육 선교운동을 전개, 선교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전환을 시도한 4/14윈도우운동의 제창자로 매년 제3세계교회지도자들을 초청, 4/14윈도우 글로발서밋을 개최하며 이 운동에 전력투구하고있다. 주요전술로는 파워하우스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사역, 뮤지컬 'His Life' 공연을 통한 문화사역, 축구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사역, 영어학습을 통한 교육사역등이다.

나광삼 / 큰무리교회 담임

이민목회 30여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나광삼 목사는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여년 넘게 전개하며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워싱톤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배현찬 / 주예수교회 담임

2011년 미주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장로교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를 봉헌하고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매년 〈선교적교회 세미나〉를 열며 모범적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예수교회를 이끌고 있는 배현찬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듀북신학교, 보스턴대학을 나와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기독교사회윤리)학위를 받았고 한인이민목회 로드맵을 제시하는 공동체 시리즈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 등의 저서가 있다.

고석희 / KWMC 사무총장, 지구촌선교교회 담임

지난 40여년 디아스포라목양사역과 KWMC세계선교운동을 섬겨온 여정에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공격하는 종교다원주의 등 탈기독교화 반기독교화 현상을 방어할 「예수변증운동」의 절박성과 예수를 삶으로 변증할 인격함양 지도력 개발등 「하나님의 사람」 육성의 중차대성을 통감, 롱아일랜드 해변 6에이커대지에 방대한 신학과 인문학 도서를 소장한 MoGa-Man of God academia를 설립, 「예수변증론강좌」와 「기독교인문학강좌」 「동서양사상사강좌」등 젊은 기독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학술사역에 여생을 바치려 한다.

이승종 / 샌디에고예수마을교회 담임, 어깨동무사역 대표

이민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적 시각으로 통찰,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이민교회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 「어깨동무사역원」을 설립,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의 청년동원에 힘쓰며 몽골국제대학교(MIU) 대표이사, '아름다운 윤동주', 노스필드파운데이션, GMIT & Pan Pacific Film Festival 대표, KCNK(북한을 위한 한국교회연대) 이사장등으로 활약하며 〈목양심서〉, 〈선비크리스챤〉, 〈글로발퍼스펙티브〉, 〈한국교회와 청년신학〉 등의 저서가 있다 .

김혜택 / 뉴욕충신교회 담임, GKYM 대표

타문화권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 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ster를 매년 년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호성기 /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PGM 대표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다 24세에 예수님을 만나 선교의 비전을 받고 영국 런던국제신학연구원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후 28세에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미국교회에서 복음전도자로, 순회부흥사로 집회를 인도하였다. 이후 조지아 임마누엘대학, 프린스턴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사명을 받아 필라안디옥교회를 개척하였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선교를 위해 PGM(세계전문인선교회)의 국제대표로, KIMNET 대표, KWMC 공동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강력한 복음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다.

송충석 / KWMF대표회장, 케냐 선교사

고교시절 리빙스턴 같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을 꾸다가 1991년 케냐의 마사이 오지에서 교회개척과 어린이교육사역을 시작, 현재 몸바사 무슬림권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선교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송충석 선교사는 한국해외선교 110년사에 처음으로 현지 감독으로 추대되었으며 (케냐 따라끼 연회) 전세계 170개국 2만7천명의 한인선교사들의 교단, 선교단체를 초월해 아우르는 모임인 KWMF(한인세계선교사회) 현 대표회장이다. 그의 아내 이형란 선교사는 이화여대 선교팀으로 아프리카에 갔다가 송선교사를 만나 결혼했다.

선교전략 패널

한도수
브라질 선교사

김종국
인도네시아 선교사

박명하
온두라스 선교사

강대흥
태국 선교사

강성일
브라질 선교사

이극범
프랑스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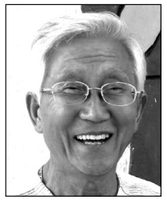
최광규
도미니카 선교사

김영관
베트남 선교사

김경일
미주 선교사

김정한
미주 선교사

정석천
태국 선교사



최용순
가나 선교사

이금주
말레이시아 선교사

김승호
일본 선교사

장영호
러시아 선교사

선교보고 선교사

김종진
몽골 선교사

정훈채
미얀마 선교사

박수영
태국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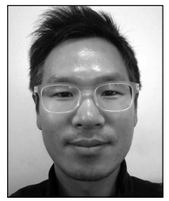
박영기
일본 선교사

김성자
도미니카 선교사

윤바울
요르단 선교사

김미영
케냐 선교사

주수온
스페인 선교사


최일호
영국 선교사

강복진
브라질 선교사

박영완
멕시코 선교사

김홍근
이스라엘 선교사

신영선
태국 선교사 MK

전지석
일본 선교사 MK

강경찬
아마존 선교사 MK

최승업
가나 선교사 MK

	6/6(월)	6/7(화)	6/8(수)	6/9(목)	6/10(금)
07:00 AM		새벽기도회			
		나광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신영선** /태국선교사(MK)	**오정호** 평생기도자의 축복 **전지석** /일본선교사(MK)	**장상길**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한 순교자를 찾고 계신다 **강경찬** /아마존선교사(MK)	**메릴리 피얼스 던커** 담대한 믿음 The Audacity of Faith **최승업** /가나선교사(MK)
08:00 AM		아침식사 / 전시장		북한을 위한 금식	아침식사
09:00 AM	**전시장 오픈** 09:00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09:20 AM		성경강해			
	등록 10:00	**김양재** 말씀이 들리는 축복	**오대원**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	**론 스미스** 그들이 들으리라	**이승종** 사람 세우는 선교
10:00 AM		주제강연 I			
		타드 존슨 과거, 현재, 그리고 세계선교의 미래	**폴 애쉴만** 미완성과업 : 미전도종족의 복음화	**마이클 오** 모든곳에서 모든곳으로	**고석희**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라!
10:40 AM		주제강연 II			폐회/파송예배
		박기호 한국교회의 선교운동	**김혜택**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선교	**배현찬**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송충석** 여호와를 위하여! - 전쟁은 하나님의 것
11:20 AM	**식사** 16:00-18:00	주제강연 III			점심식사
		채수일 지구의 미래와 기독교인의 책임	**안성원** 오늘날 한국선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호성기** '선교의 제 4물결' -디아스포라 선교	
12:00 PM	**개회예배** 18:00-19:30 개회선언 **고석희** (KWMC 사무총장) 개회기도 **이상진** (공동대회장) 환영사 **차현회** (최연장 명예대회장) **신홍식** (최연장 현역선교사) **한정국** (KWMA사무총장) 개회설교 **존 R 왈러스** "A city on a hill" 축사 **마크레버튼**(플러총장) **정운찬**(전국무총리) 축도 **최찬영** (최연장 은퇴선교사)	점심식사 / 전시장			
01:40 PM		선교도전			
		이동휘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전시장** (선교부스 및 사역사진) 방문과 교제의 시간	**최복이** 비즈니스선교의 비전	
02:20 PM		KWMF 선교전략			
		필드중심의선교	단기선교에 대한 선교사들의 바램과요청	교회의 바람직한 선교사 후원	
03:00 PM		휴식 / 전시장			
03:30 PM		선택강좌 I		선택강좌/지역별포럼	
04:30 PM		휴식 / 전시장			
05:00 PM		선택강좌 II		선교사와 만남의 광장	
06:00 PM		저녁식사 / 전시장			
07:30 PM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08:00 PM	저녁선교대회				
	로렌 커닝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김종진**/몽골 **정훈채**/미얀마 **박수영**/태국	**서삼정** 능력의불 **박영기**/일본 **김성자**/도미니카 **윤바울**/요르단	**김남수** 나를 믿는 자는 **김미영**/케냐 **주수은**/스페인 **최일호**/영국	**한기홍** 세계선교 마무리의 꿈을 이루자 **강복진**/브라질 **박영완**/멕시코 **김홍근**/이스라엘	

첫째날 6/6(월)

개회예배

개회선언/ **고석희 목사** KWMC 사무총장
개회기도/ **이상진 장로** 공동대회장
선교사 환영사/ **차현회 목사** 최연장 명예대회장
선교사 환영사/ **신홍식 선교사** 최연장현역선교사, 태국
선교사 환영사/ **한정국 목사** KWMA 사무총장
찬양/ **남가주장로합창단** 지휘 : 박병곤
개회설교/ **존 R 왈러스 목사**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 총장
축사/ **마크 레버튼 목사** 풀러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축사/ **정운찬 박사** 전 국무총리
찬하패증정/ **25년 이상 현역 선교사**
성찬식/ 집례 : **박희민 목사** 명예대회장
축도/ **최찬영 선교사** 최연장은퇴선교사

저녁선교대회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사회/ **박형은 목사** 동양선교교회
기도/ **강대흥 선교사** 태국
선교사역보고/ **정훈채 선교사** 미얀마
선교사역보고/ **김종진 선교사** 몽골
선교사역보고/ **박수영 선교사** 태국
특송/ **선교사성가대** 지휘 : 최경선
특송/ **구선경** 성악가
봉헌기도/ **송상천 선교사** 러시아
성경봉독/ **오세관 선교사** 태국
찬양/ **남가주사랑의교회 성가대** 지휘 : 조영환
설교/ **로랜 커닝햄 목사** YWAM총재
합심기도/ **이병구 선교사** 인도
축도/ **김만우 목사** 명예대회장

개회선언

[개회예배] 개회선언/개회사 KWMC 사무총장 **고석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지난 30년간 시카고지역 휘튼대학과 빌리그래함 센터에서 매 4년마다 7차에 걸쳐 한인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온 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회의 KWMC 선교운동을
첫째 범세계적 선교운동이 예루살렘을 향해 서진하는 현상황을 고려하고,
둘째 북미주 서부에 위치한 2500여 한인교회에 세계복음화의 대각성과 총동원의 위대한 불길을 점화하며
셋째 전세계 170 개국에서 사역하는 27700여의 우리 선교사님들의 대회참여에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위해
금번에 서쪽으로 이동하여 로스엔젤레스지역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개최하며,
『천국복음이 온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마태복음 24:14)의 말씀을 대회 주제로 삼고
8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개막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선교사 환영사

[개회예배] 선교사 환영사 명예대회장 **차현회**

할렐루야!

갈릴리 선교의 후계자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선교의 오순절인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세계선교의 모체와 장자인 "KWMC"는 세계선교의 주역으로 계속 시대적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선교의 지체인 사랑하는 선교사 및 사역자 여러분 모두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각처에서 종신 선교사로 또는 성육신적 선교사가 된 것을 경하드리며 다시금 환영합니다.

선교의 중심인 복음전파만이 천국건설의 첩경임을 확신하는 선교사역을 경하드리며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제7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선교사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라기는 마음껏 대화하세요.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세요. 선교정보를 주고 받으세요. 교제하세요. 재충전을 받으세요. 도전을 주고 받으세요. 영성을 회복하여 영적전쟁에서 꼭 승리하세요. 특별히 온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드리며 본대회의 최고 대회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 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환영사

[개회예배] 선교사 환영사 태국선교사, 최연장현역선교사 **신홍식**

[개회예배] 선교사 환영사 KWMA 사무총장 **한정국**

북미주 선교동원의 선구자 KWMC 대회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하하면서,이번 대회 참석하신 여러분이 한인선교의 남은 과업 성취를 위해 새로운 개척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한국교회가 힘들어 하는 요즘 전세계 한인 선교가 희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한국 선교는 향후 5년이 중요한 바 전세계 한인 선교계가 전력 투구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선교를 하십시다.

"A City on A Hill" (마 5:14)

[개회예배] 개회설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총장 **존 R. 왈러스**

'하나님 제일(God First)'이라는 모토로 세워진 117년 역사의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의 16대 총장인 존 R. 왈러스 박사는 지난 30여년 간의 학교운영 경력을 통해 APU를 우수한 기독교 대학교로서 지도적 위치를 확립하고 기독교적 삶과 진리를 널리 비추게 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 선발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B.A., MBA)를 나와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DBA 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의 교육행정과정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쳤다.

축사

마크 레버튼
풀러신학대대 총장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전 국무총리

최찬영
최연장 은퇴선교사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몽골 선교사 **김종진**

김종진 선교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기독교윤리학과) 졸업, 풀러신학교에서 D.Min(GM) 학위를 마쳤다. 1995년에 기감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2002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되어(송천교회) 사역 후 2008년 이후 종교교회의 소속으로 교회개척과 지도자 양육사역을 하고 있다. 현재 CMC 선교센터 & 하나님의 어린양 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미얀마 선교사 **정훈채**

정훈채선교사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하고 금융기관에서 29년간 근무하다, 총회신학교에서 M.Div를 취득한 후 미얀마 선교사로 2003년에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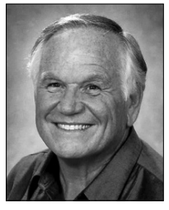
태국 선교사 **박수영**

세살 때 뇌성마비로 온몸을 가누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은 후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된 후, 은혜가운데 백석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1995년 선교사로 헌신하여 러시아에서 3년을 사역하였다. 그후 백석대신학대학원을 졸업(M.Diiv)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 총회선교부에서 태국으로 재파송되어 15년째 사역하고 있다. 박수영선교사의 주사역은 현지교회개척과 컴퓨터와 음악 교육을 통한 문화선교사역을 감당하며, 한국과 미국 등에서 간증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저녁선교대회 설교]

YWAM총재, 열방대학총장 **로렌 커닝햄**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 로렌 커닝햄은 1960부터 지난 반 세기동안 예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훈련시키고 있다. 선교단체로는 가장 많은 4,000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를 세계복음화 최전방에 배치시킨 막강한 YWAM(Youth With A Mission)을 창립했다. 하와이 코나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110개국의 250개 캠퍼스에 700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보유한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을 세워 섬기고 있다.

둘째날 6/7(화)

새벽기도회

사회/ **한도수 선교사** 브라질
기도/ **송성자 목사** KWMC 부의장, 순복음사랑교회
선교사역보고/ **신영선 선교사** 태국(MK)
찬양/ **선교사성가대** 지휘 : 최경선
설교/ **나광삼 목사** 공동대회장, 큰무리교회
축도/ **임종표 선교사** 케냐

성경강해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타드 존슨 박사** 고든콘웰신학교
주제강연 II 강사/ **박기호 박사** 플러신학교
주제강연 III 강사/ **채수일 목사** 경동교회
선교도전 강사/ **이동휘 목사** 바울선교회대표
선교전략패널토의 / **KWMF 사회: 한도수**
패널: **강대흥, 강성일, 김영관, 최용**

저녁선교대회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사회/ **김경진 목사** 나성영락교회
기도/ **이극범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역보고/ **박영기 선교사** 일본
선교사역보고/ **김성자 선교사** 도미니카
선교사역보고/ **윤바울 선교사** 요르단
특송/ **OC 한인 마스터스 코럴** 지휘 : 이미영
특송/ **루카스** 색소폰독주
봉헌기도/ **강인중 선교사** 케냐
성경봉독/ **정상진 선교사** 팔라오
찬양/ **나성영락교회성가대** 지휘 : 김경희
설교/ **서삼정 목사** 공동대회장,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합심기도/ **김경일 목사** KWMF 사무차장
축도/ **나윤태 목사** 명예대회장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새벽기도회 설교]

공동대회장, 큰무리교회 담임 **나광삼**

이민목회 30여 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나광삼 목사는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여년 넘게 전개하고 있다.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제일 중심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워싱톤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사도행전 16:16-34]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태국선교사(MK출신) **신영선**

신영선 선교사는 태국선교사 신홍식 목사의 장남으로 선교지에서 유년시절부터 MK로 자랐다. 현재 태국선교사로 2대째 대를 이어 헌신하여 세계선교동역기구 (WMP) 기구대표와 방콕신학교(신학교수, 국제부장, 동문회 고문, 연구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현재 태국기독교총회 제7노회 남전도회 부장으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태국에 총 17 교회를 개척(선교부)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이 들리는 축복

[성경강해]

우리들교회 담임, 큐티선교회 대표 **김양재**

김양재 목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큐티'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 고난이 축복임을 역설하며, 실제적이고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 큐티선교회와 우리들교회를 개척하여 여성 목사로는 드물게 1만여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으며 CTS, CBS 등 방송과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등 14권의 저서를 통해서 가정회복과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백석대 신학대학원을 나와 서울예고와 총신대에서 강사를 역임하였다.

룻기 전체의 주제는 '텅 빔'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경건한 남편이 만나서 함께 살았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잃고, 많은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텅 빈 채로 수치를 무릅쓰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곁에는 며느리 룻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 인생의 최대 축복은 남편도 아니고, 두 아들도 아니며, 영적인 동반자 룻을 만난 것입니다. 룻을 통해 인류 최고의 가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어 갔으니 이보다 엄청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룻기는 극도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보다 더큰 감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옵니다(룻 1:1)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기에 건강, 부부관계, 자녀의 흉년이 옵니다. 가장 힘든 흉년은 영적 흉년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면 넘어집니다(룻 1:2-4)

유다 베들레헴, 믿음의 땅에 거하면서 엘리멜렉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를 부르짖어도 흉년을 피해 세상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가장의 믿음이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찬송이고 떡이며 풍성함이기에 유다 베들레헴, 신앙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흉년에서 세상 방법으로 피하지 않게 하시고 떠났더라도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에 잘 먹고 잘살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룻 1:5).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도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다 죽고 잃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남은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흉년을 거치며 믿음을 회복하고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미래

[주제강연 I]

고든 콘웰신학교 교수 **타드 존슨**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과 부교수로, 또 세계기독교센터(CSGC)의 디렉터로 있는 그는 데이빗 바렛 박사와 함께 「세계기독교대백과사전 」을 편찬하였다. 모든 전 세계 모든 종족, 언어, 나라, 도시의 기독교와 타종교 현황의 전체 통계의 연구 권위자로 이 자료는 ABC, BBC,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서 널리 활용 및 인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로잔운동에서 새로운 전략, 미전도종족선교, 세계종교에 대한 「글로벌 컨버세이션 」을 통해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In our rapidly changing world, Dr. Johnson offers the latest analysis of Christianity worldwide, the changing state of world religions, and the challenges that face us in our quest to evangelize the world.

한국 교회의 선교 운동

[주제강연 II] 풀러신학교 글로벌커넥션 디렉터/ 교수 **박기호**

1981년 예장합동(GMS)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파송된 후 15년간 사역하며 원주민 교회들을 개척하여 목회하였다. 여러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필리핀장로회신학대학을 설립, 총장과 교수로 사역했다. 또한 아시아선교협회(IAM)와 아시아선교학회(ASM)를 설립하여 아시아 선교학자들과 동역하며 아시아 선교에 관한 연구, 책자발행, 컨퍼런스, 교육 사역을 했다. 선교사로서 사역 후 1996년에 풀러 선교대학원 아시아 선교학 부교수로 부임하였으며 현재 글로벌커넥션 디렉터와 다문화 연구학과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본 강의에서 나는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선교 현황을 기술하고,한국선교성장에 기여한 제요소들을 나열하고, 한국선교의 장단점을 분석하며,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제언을 할것이다.

I. 한국선교약사

한국교회의 선교역사를 세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1)일제 식민통치하에서의 선교(1907-1957); 2)독립 이후의 선교(1955-1991) 그리고 3)근래의 선교이다(1980-현재).

II. 한국선교의 현황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최근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15년말 현재 한국교회는 세계 171개국에 27,205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한국선교운동의 주요 변화가 지난 30여년 동안 일어났다.
A.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선교에서 비접촉 족속 선교로, B.서구선교회 소속 선교에서 한국 토착 선교회 소속 선교로, C.교단 선교에서 교단 및 선교단체 소속 선교로, D.약함 가운데에서의 선교로부터 강함 가운데에서의 선교로.

III. 한국 선교 성장에 기여한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운동에 기여하였다. 그것은 신적요소, 인적요소, 제도적 요소, 그리고 상황적 요소를 포함한다.

IV. 한국 선교의 장점과 약점들

A.장점들 가운데는 1)역동적인 교회성장, 2)풍성한 경제적인 자원, 3)널리 퍼진 한인 이민자들, 4)외국과 맺은 강력한 외교관계, 5)높은 수준의 교육, 6)오랜 선교역사, 그리고 7)대위임령 성취를 위한 깊은 선교 열정과 용기와 헌신을 들을 수 있다.

B.약점들 가운데는 1)균형잡히지 않은 선교신학, 2)단일문화적 관점, 3)선교지 정보 부족, 4) 적절한 선교사 배치, 5)부적절한 선교사 선발과 훈련, 6)경쟁적인 개인주의, 7)취약한 선교행정, 8)파송, 수용, 후원 기관간의 협력 부족을 들 수 있다.

V. 한인선교발전을 위한 제언

1. 성서적으로 건전하고 문화적으로 맞는 선교 신학을 수립할 것.
2. 교회가 계속 역동적인 선교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
3. 물질적 자원과 공급 대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선교를 할 것.
4. 국내외의 지역 교회들 및 선교 단체들과 동반자 관계 확립 할 것.
5.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로 단기선교, 전문인 선교, 비거주 선교, 그리고 사업선교를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
6. 가부장적 태도를 지양할 것.
7. 학생들과 다른 신자들을 위한 선교대회 개최할 것.
8. 지역 연구와 선교사 은사 분석 후 선교사를 배치할 것.
9. 과거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아 21세기의 변화하는 동향에 맞는 선교를 할 것.
10. 한국교회의 선교운동을 선도할 선교 지도자들을 개발 할 것.

지구의 미래와 기독교인의 책임

[주제강연 III] 전 한신대학총장, 경동교회 담임 **채수일**

한신대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박사(선교학)를 받고 함부르크대학 선교아카데미 연구실장을 역임, 귀국후 한국신학연구소장, 국제인권센터소장, 한신대학교총장을 역임했었다. 지구온난화 사막화와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인구폭발, 산성비, 핵겨울, 기아 질병등에 대한 지구재생프로젝트인 유엔지구환경회의 한국대표로 활약하며 한국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선교학회등 13개 학회와 전국 40여 신학대학 및 기독교대학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학회의 회장이다. 현재는 경동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1. 들어가는 말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난해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책, 곧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책이 난해한 이유는 묵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아포칼룹테인(apokaluptein), 즉 덮여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 비밀을 폭로하는 것, 숨겨진 혹은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이야기, 미래에 대한 수많은 상징들과 비유들이 포함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의적 아름다움과 환상의 힘 때문에 묵시록은 윌리엄 블레이크나 빅토르 위고와 같은 많은 시인들의 상상력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움베르토 에코(1932-2016)의 '장미의 이름'도 묵시록에 나오는 일곱째 봉인의 예언에 따른 살인사건을 상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프란시스 코폴라 감독은 '지옥의 묵시록'(1979)이라는 전쟁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 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제도 기독교의 체제와 현상유지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키고 심판하려고 했던 수많은 소종파들의 이데올로기, 유사 혹은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이념으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폭력적이지 않고, 모든 피조물이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롭게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었던 사회 혁명을 추동한 책입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통 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세상, 권세가들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계시록, 혹은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이런 묵시문학운동은 주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시대 사이의 과도기에 번성했습니다. 구약성서의 다니엘서와 신약성서의 요한계시록만 경전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12족장의 유언', '추수절의 묵시록'은 외경에 남아있고, 아브라함의 묵시록, 에스드라의 묵시록, 모세의 묵시록, 베드로 묵시록, 도마의 묵시록 등 수 많은 묵시문학적 문헌들이 당시에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에서 100년 경, 소아시아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 고난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신격화와 숭배강요,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폭력의 위협, 빈부 양극화, 모든 것이 시장으로 통하는 세상,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안락함의 위험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현실, 곧 로마 제국의 폭력적 억압, 암울한 현실에 대한 심판과 체제의 파국적 전복, 그리고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상징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2.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종교적이고 묵시문학적인 미래 전망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는 수많은 예언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그러나 종교적 환상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자연 과학자,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언어는 더 이상 종교적 상징 언어가 아닙니다.

1962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이 쓴 '침묵의 봄'에서 시작하여 그 후에 쌓인 수많은 미래 전망서들이 보여주는 세계의 미래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암울하기만 합니다.

물론 순진한 낙관론으로 끝나는 예언서들도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불을 질렀다고 소방대가 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파국적 상황도 결국 인간이 기술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스스로 극복해 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론은 암울한 세계 종말의 예언, 체제적 대안의 모색과 병행하는 인간의 윤리적 거듭남에 대한 호소 등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이른바 '불확실성의 시대', '위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폭발,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인구증가와 인구 도시 집중, 기후변화와 수자원의 고갈, 기근과 식량안보 문제, 첨단기술의 발전과 실업의 급증,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초국적 기업의 확산, 새로운 민족주의의 대두와 지역분쟁, 종교적 근본주의와 종교분쟁과 테러, 통신혁명과 정보화 사회의 문제 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이들의 예견은 전통적인 묵시문학이나 계시록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84년 인도 보팔시 유독가스 사고, 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폭발사고, 1995년 일본의 고베 대지진, 1998년 양쯔강 대홍수, 2001년 '9.11' 테러, 2003년 프랑스 폭염으로 15,000여 명 이상의 시민 사망,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시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파키스탄 북부지방 대지진, 2007년 인도네시아 해일,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일본 동북부 지역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은 물론, '사스'(SARS: 급성호흡기 증후군), '광우병', '에볼라 바이러스' 등은 가까이 다가온 인류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금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측하기 위한 자료는 이미 충분합니다.

작년(2015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제45회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세계 상황,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의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의 글로벌 어젠다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급박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천 5백 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인 2015년 다보스 포럼 글로벌 어젠다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깊어지는 소득 불균형',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리더십 부족', '지정학적 갈등 고조', '정부에 대한 불신', '개도국의 환경오염', '이상기후현상', '국가주의 강화', '물부족', '세계건강'(에볼라 등)입니다. 다보스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29가지 구조적 이슈도 발표되었는데, 종교, 민족주의적 급진주의의 급증, 기후변화논쟁, 지촌 고령화 시대 소비패턴의 진화, 다극 분권화된 세계질서를 반영하는 국제기구의 필요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물 부족, 삶의 질이 도전받는 메가 시티, 의미있는 삶을 위한 자급자족 시대, 사물 인터넷, 고용 없는 사회 등이 그것입니다.

글로벌 어젠다, 글로벌 이슈인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은 세계화 시대, 지역과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모든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한 경고는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결과가 다시 확인해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과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00년부터 1990년 사이 해수위는 매년 평균 1.2mm 상승했지만, 1990년부터는 매년 평균 3mm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수위 상승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촉발된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서부 지역의 얼음 층 해빙, 줄어드는 빙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라면 2081년부터 2100년 사이 해수위는 지금보다 최소 26cm에서 최대 82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가 작년(2014년)에 예측한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행성은 45억 6700만년의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까지 지구는 다섯 번에 걸친 대 멸종사건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인 다섯 번째 대 멸종은 지금부터 7000만 년 전(백악기 말), 유카탄 반도의 소행성 충돌 등으로 조류 제외한 육지생물의 75%와 공룡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대 멸종이 기다릴 텐데, 과학자들은 명백하게 기후변화, 특히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가 그 유력한 주범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국 하와이 마우나 로아(Mauna Loa) 화산 중턱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에 나타난

숫자는 407.82였습니다. 이 농도로도 이산화탄소는 지구 곳곳에서 폭설과 혹한, 홍수와 가뭄 등 과거보다 훨씬 잦고 강한 이상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산화탄소 증가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는 세계 각 국이 온실가스를 현재 추세대로 배출할 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수 십 년 안에 450PPM을 돌파한 뒤, 이번 세기 말에는 최대 940PPM까지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가 제시한 마지노선은 450PPM인데, 만일 이 최후 저지선마저 뚫린다면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는 사실상 파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미래 전망서들이나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의 보고, 미래충격보고서 등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상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라는 행성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인류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변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이 있었을 때, 저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평화와 녹색운동을 해 온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평생 의식화 교육을 하는 것보다 체르노빌이 더 큰 깨달음과 변화를 주니 차라리 매 년 원자력 발전소 하나씩 터지는 것이 의식화 교육을 하는 것보다 더 낳겠다'고.

그린피스도 말했지요. '사람이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안다고 변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위기를 안다고 해서 위기 극복에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유전자 결정론'을 말하는데, 저는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씻으면 잠시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계 18,9)과 '사람과 몸과 영혼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킨 세상의 상인들'(계 18,13)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상화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때문에 결국 세상은 파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킴'으로 응답하십니다(계 11,18).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나 돈이 없어도 거저 마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계 21,3-6).

이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에 상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이사야 55,1). 모든 것이 상품이 된 세상, 돈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세상 대신에 돈 없이도 사먹을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예언자 이사야와 요한이 꿈꾸었던 세상입니다.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심판과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로 유예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생명수의 상속이 약속됩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계 21,8)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는 밤도 없고,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계

21,25). 이것은 죄 지은 사람은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 예비 된 것입니다(계 7,14; 22,14). 다시 말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눈물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에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향한 파국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해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와 삶에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메타노이아', 지금까지 잘못 걸어온 길에서 돌이켜 본래 가야할 곳을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이사야 66,2)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까이 온 지구의 종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회개는 '보다 많이'에서 '보다 적게', '보다 빠르게'에서 '보다 느리게', '보다 높게'에서 '보다 낮게'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은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도 열린 신학적 입장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2012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주최로 열린 제9차 국제실천신학심포지엄에서 오늘의 그리스도교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세계의 도전에 무력한 원인을 '문화로 전락한 그리스도교'로 지적했습니다. 탐욕과 물질 지상주의, 소비 지상주의와 개인주의, 개인적인 평안을 강조하는 대중문화와 결합한 그리스도교, 정치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그리스도교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문화적 그리스도교는 잠시 동안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스스로 쇠락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모습에서 '제자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도의 회복'은 지구 바르게 이해하기,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유일신 신앙, 강력한 삼위일체주의, 성경적 구원 재정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의 신학자 알로이스 피에리스(Aloysius Pieris, S.J)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가 '가난에서부터 오는 자유'와 결합되지 않으면 우상, 곧 '맘몬'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난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은 이 지구가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맘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맘몬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난에서부터 오는 자유'를 행복하게 누릴 때입니다. 숭배자 없는 우상은 힘을 잃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피를 먹고 살면서 생명을 파괴하는 우상, 맘몬으로부터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죄와 탐욕 때문에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다고 기뻐하셨던 이 지구를
더 아름답고 푸른 행성으로 보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 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로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선교도전] 바울선교회 대표, 전주안디옥교회 원로 **이동휘**

1983년 미군 창고구조물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깡통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세계선교에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단독교회의 틀을 벗어나 초교파적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 를 만들어 현재 97개국 49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23년 사역후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이자녀 4명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 현재 '바울선교회'를 총괄 지휘하며 선교집회 등을 통해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에 주력한다.

[사도행전1:6-10]

구원 받아 성령 임하는 순간 성도 모두 선교사 자격증을 가진다.
"성령-권능-증인" 성령 받는 순간 선교사 자격증 받는다는 선언이다.
*성령-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약속대로 성령 주신다(행2:38)
*권능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이다.
▶권세..하나님은 왕이시므로 왕의 자녀, 즉 왕자와 공주가 되는 신분이므로 권세를 가진 다. 신분이 높으면 거기에 따르는 권세가 있다(요1:12)
▶능력..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다(성령님이 내안에 계시므로)

증인-예수님을 증거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수님을 타문화권이나 타국에 가서 전할 때 전문적인 용어로 선교사라 부른다. 선교사나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 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하셨다.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예수님 믿 어 성령님이 계시는 자는 모두 선교사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 진다는 뜻으로 수동태 "되 리라" 하셨다.

베드로나 바울사도에게 있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내안에 계신다.

※ 주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 유훈, 대위임이 행1:8이다
승천 전 마지막 말씀, 어명이다. 따라서 선택과목이 아니고 필수과목이다.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 동시적 명령(헬라어 카이)이다. 지금 네 군데 선교를 동시에 해야 하는 현재적 사명이다.

※ 네 구역을 책임진다(세계270개국, 71억, 2만4천 종족을 넷으로 구분한다)

▶ 예루살렘...중심도시. 내가 사는 도시나 주
대전에 살면 대전이 예루살렘 선교지다. 방콕에 살면 방콕선교사다. 그 지역을 복음의 땅으로 만드는 지역 성시 화에 관심 가져야 한다.
▶ 온 유대...나라 개념이다. 한국인은 한국 복음화에, 미국에 살면 미국선교사로 사명 가지 고 자기 나라 곳곳에 교회 세우고 국가 복음화의 사명 가진다.
▶ 사마리아...북 이스라엘 수도로 주전 721년에 앗수르에 패망하여 각 나라 사람들을 이주 시켜 혼혈이 되고 그 후 남유다에 멸시받았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차원의 특수 분야의 선교다. 소외된 사람들과 장애자들 및 가난과 고통 속 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선교다.
▶ 땅 끝...세계선교, 해외선교를 말한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사로 훈련 받아 나가기도 하고 교회는 보내고 돕고 관리하는 전체적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세계 그리스도인의 통계는 33%로 나오나 거듭난 교인은 10% 내외로 본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 모두 세계를 책임지는 사명자 여야 한다. "나는 선교사다!" 외쳐야 한다. 전교인이 다 선교사 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를(Missional Church) 뛰어넘어 선교사교회(Missionary Church)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의 사명 : 1. 해외선교사. 2 . 자녀를 바치는 부모 선교사. 3. 기도선교사. 4. 물질선교사. 5. 직장선교사. 6. 가족선교사. 7. 문화선교사. 8. 길거리선교사

선교 전략 패널 토의 -"필드 중심의 선교"

[사회]

브라질 선교사 **한도수**

한국 토종 선교단체로 97개국에 459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바울선교회 초대 파송선교사이다. 선교사훈련원이 거의 전무했던 80년대, 필리핀에 선교사훈련원을 세워 한국선교사의 약점인 언어 및 타문화권 적응훈련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고 여러 현지 선교활성화에 주력해 왔다.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직을 역임했고 한인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바울선교회 이사 및 순회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패널]

태국 선교사 **강대흥**

한국교회가 건강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교현장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는 이러한 뜻으로 방콕포럼(2004)을 설립하여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다. 태국에 KGMA 선교회(1989)를 설립하여 16가정이 팀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태국 선교학교(2014)와 기도자학교(2014)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패널]

브라질 선교사 **강성일**

1983년 예장(통합) 선교사로 브라질에 파송되어 30여 년간 현지 협력선교의 모델을 이루어 내었다. 아마존지역에서 교회개척 및 현지교단 목회자를 양성하는 동시에 그들을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파송하면서 현지교회에 선교적 각성을 이루며 미래의 선교 방법과 모델을 제시해 왔다. 현재 30여 년간 헌신해 온 중남미지역 선교발전을 위해 개설한 "중남미 선교전략 연구소"를 통해 소외된 이 지역에 선교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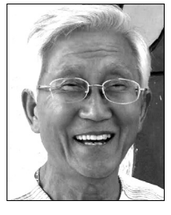
[패널]

베트남 선교사 **김영관**

1990년에 베트남에 선교사로 파송된 김영관 목사는 성균관대 법대, 서울신대, 감신대학원을 나왔다. 그는 파송받은 후 한인2세 교육기관인 휴맨직업기술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10년째 사역해 오고 있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패널]

가나 선교사 **최용순**



최초로 아프리카 가나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로 2004년 현재 최용순선교사는 지난 15년간 아프리카 가나 데마노회와 협력해 16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 1만여 평의 대지 위에 선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가나 선교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일본 선교사 **박영기**

박영기선교사는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후 김해 덕촌교회와 한국외항선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985년 KPM(고신)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일본 동경기독신학교에서 3년간 공부한후 일본동맹기독교단과 협력하여 31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 지금까지 8개의 교회개척사역, 4권의 저술을 통한 문서선교사역, 가정세미나사역, 노인돌보기사역, 병원과 YMCA에서의 사회봉사사역 등을 하고있다. 현재 KPM선교사회 회장으로 여러선교사들을 격려하며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중이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도미니카 선교사 **김성자**

김성자 선교사는 협성대학교(목회학과)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UNIVERSIDAD NACIONAL EVANGELICA (신학대학원) 졸업, 정동 해외훈련학교 졸업하고 1997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선교국에서 선교사 인준을 받고 1998년 기독교 대한 감리회 경기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1998 기감 중앙연회 노곡교회 파송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사역 하였고 담임목사 은퇴 후에 다시 2006년 기감 경기연회 갈릴리 교회에서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로 재파송 되어 지금까지 (교회개척, 비전 크리스찬 학교, 비전 신학교, 예술 학교, 사랑의 빵, 청소년훈련, 전도집회, 2010-2012.3월까지 아이티 지진구호 사랑의 빵공장설립, 등)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중이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요르단 선교사 **윤바울**

윤바울 선교사는 서울대학교(경영학과) 졸업, 침례신학대학원(M.Div) 졸업하고, 2004년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요르단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이라크난민 사역과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 및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능력의 불

[저녁선교대회 설교] 공동대회장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 **서삼정**

맑은 영혼의 소유자 서삼정 목사는 영성 깊은 거목이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복음전도자요 영성세미나 강사, 영성작가, 영성 시인이다.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그는 40 년 전에 아틀란타 제일장로교회를 개척하여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성장시킨 저력의 목회자이다. 저서로는 "영성", "성령의 음성", "예배", "가이오의 축복", "realizing God", "시집 조약돌"이 있다, 현재 KWMC 공동의장과 세계복음화 협의회 총재로 섬기고 있다.

1. 한 사람 엘리야를 준비시키셨다.

3년 6개월 동안 특별 준비시키셨다.
그는 숨어지내야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월이었다.
그러나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때 까지 준비시키신 세월이었다.

- 그릿 시냇가에서 준비시켰다.
-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준비시켰다.
  영적 대전쟁을 위해 준비시켰다.
- 당신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 동안 준비시켜 주신 줄 믿는다.

2. 영적전쟁의 최대 무기는 능력의 불이다.

- 능력의 불이 먼저다.
- 능력의 불이 임해야 여호와가 하나님되심이 나타난다.
- 능력의 불이 임해야 죄가 소멸된다.
- 능력의 불이 임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 능력의 불이 임해야 하늘 문이 열린다.
- 능력의 불이 임해야 달려갈 힘도 얻는다.

3. 능력의 불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임한다.

- 능력의 불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임한다.
- 능력의 불은 하나님께 전부를 걸 때 임한다.
- 능력의 불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
- 단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생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이루신다.

셋째날 6/8(수)

새벽기도회

사회/ **김종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기도/ **김신숙 선교사** 이집트
선교사역보고/ **전지석 선교사** 일본(MK)
찬양/ **선교사성가대** /지휘 : 최경선
설교/ **오정호 목사** 새로남교회
축도/ **강성철 선교사** 브라질

성경강해

강사/ **데이빗 로스(오대원) 목사** 안디옥커넥션대표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폴 에쉴만 박사** CRU 부총재
주제강연 II 강사/ **김혜택 목사** 공동대회장, 뉴욕충신교회
주제강연 III 강사/ **안성원 선교사** KWMF 사무총장
선교전략패널토의 / **KWMF-사회: 김경일**
패널 : **최광규, 이금주, 김정한, 박명하**

저녁선교대회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사회/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기도/ **강성일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역보고/ **김미영 선교사** 케냐
선교사역보고/ **주수은 선교사** 스페인
선교사역보고/ **최일호 선교사** 영국
특송/ **다윗성가대** 지휘 : 송규식
특송/ **박숙희 선교사** 태국, 찬양사역자
봉헌기도/ **조용성 선교사** GMS 선교총무
성경봉독/ **김종련 선교사** 인도네시아
찬양/ **베델한인교회성가대** 지휘 : 오성애
설교/ **김남수 목사** 공동대회장, 프라미스교회
합심기도/ **이병구 선교사** 인도
축도/ **이상남 목사** 증경대회장, 세계등대교회

평생기도자의 축복

[새벽기도회 설교]

새로남교회 담임 오정호

대전 및 중부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남교회의 담임이다. 오정호 목사는 4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부친 오상진 목사(가야제일교회), 형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와 더불어 삼부자가 목회자이다. 내수동교회와 사랑의교회 사역을 거치면서 박희천 목사로부터 말씀사역과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사역을 정통성 있게 이어받았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를 나왔고 현재 월드비전 이사,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한국 법인이사, 교회갱신협의회 공동대표, 제자훈련목회자네트워크 전국대표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1. 아래의 질문을 하나씩 조용히 음미해 보라!

• 한국과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게 곱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 중도하차증후군(DNF SYNDROME)이 만연한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까?
• 어떻게 주님의 소명에 충성된 사역자로 스스로를 세울 수 있을까?
• 어떻게 뒷모습이 아름다운 성도, 선교사, 목회자, 사역자로 설 수 있을까?
• 나 자신을 움직이는 궁극적 동인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 영적 에너지가 바닥이 났다. 탈진하였다. 버틸 힘이 없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힘이 딸린다.
-〉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사역자를 사역자 되게하는 능력의 원천은?

2.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1) 기도는 무엇인가 (　)자가 하는 것이다.
-〉 기도는 주님을 (　) 성도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　)하는 자가 드리는 것이다.
2) 기도는(　)과 (　)와 (　)을 당한 자가 하는 것이다.
-〉 기도는 (　)과 (　)과 (　)이 가슴에 불타는 성도가 드리는 것이다.
3. 기도는 (　)적 여유가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 기도는 내 삶의 (　) 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다.
4. 기도는 (　)자가 하는 것이다.
-〉 기도는 (　)과 (　)을 통하여 몸에 익히는 영적 작업이다.
5.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　)의 일을 한다.
-〉 (　)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3.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기도응답

1) (　)을 체험함(5절)
2)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와 개입하심을 체험함(6-8절)
3)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응답의 결단(12-14절/17-19절)

4. 결론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능력의 파이프 라인이며 놀라운 은총의 도구이다. 나의 기도전선과 기도골방 수호에 이상이 없는가?

기도는 자신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　)를 온전히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인생의 최고, 최선의 투자는 (　)과 (　)에 투자하는 것이다.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일본선교사(MK출신) 전지석

일본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학교 시절부터 일본 생활을 시작, 일본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언어와 문화를 배움. 2006년에 부르심을 받고 일본 동경기독교대학 신학과 졸업. 2012년에 바울선교회 파송을 받고 2대 일본선교사로 현재까지 일본 영혼을 섬기며 개척교회를 담임중.

하나님은 북한을 사랑하신다

[성경강해]

안디옥커넥션 대표 데이빗 로스 (오대원)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 청년사역을 시작,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이후 사역의 지평을 넓혀 1981년 YWAM 국제적 단체와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미주 한인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안디옥커넥션을 시작하였고 특별히 한반도의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 중보하며 남과 북이 함께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자는 '뉴코리아(New Korea)'운동을 펼치며 한국과 해외에서 통일관련 캠프와 훈련학교,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이사야 60:1-3]

God loves the world, every human living in every nation in the world, including those people we consider to be our enemies. He loves North Korea, that is, the people of North Korea.

At the present time, North Korea is a broken country. Our prayer is that God will heal the land, and that everyon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return to God, so that He can use a united Korea to bless the world.

Isaiah gives us some valuable lessons that will help as we engage in the evangelization of North Korea. Isaiah's most important message is to remind us that love alone is credible. The world will believe nothing but love that is demonstrated in mercy and compassion. God proved that His love is credible by sending His Son to die on the cross for the sins of the world. But today many of the world's people doubt the truthfulness of the Christian Church. They are suspicious of us, because they do not see us living out practically the love of Christ, sacrificing ourselves not only for God, but also for a needy world.

The message of Isaiah that will help us as we seek to work for the evangelization of North Korea can be summed up in three words. These 3 words are actually the 3 divisions of the Book of Isaiah.

1. DISMANTLE - 방해하는 벽을 분해하다 - Isaiah chs. 1-39 - The theme of this first section of Isaiah is repentance. Our sins are the walls that keep us from going into the world. We must repent in order to be used by God to bring healing to North Korea. Isaiah mentions many sins, but we will speak of only 4 major sins:

1) No knowledge of God, resulting in the rise of false religions humanism in the Church;

2) Superficial spirituality, or the form of religion without the essence;

3) Lack of justice;

4) Division and disunity.

2. DESCEND - Isaiah chs. 40-55 - Become servants, have downward mobility when the world has only upward mobility. Israel's paradox was that only by becoming servants could they be restored. Isaiah ch. 53 describes how God descended, became a servant and redeemed the world. This is the secret of North Korea evangelization.

3. DISCOVER - Receive God's revelation for the whole world - Isaiah chs. 56-66. God gives revelation that He is restoring His people in order to used them to bless the world. He reveals that He will His salvation embraces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God's work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bout North Korea, nor is it about South Korea. It is about God, and His plan to use a unified Korea, a unified Church, to bless the world.

미전도종족의 복음화

[주제강연 I]

CRU 부총재 폴 에쉴만

1,000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30여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애쉴만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사역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에 관한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인 그는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여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중이며 로잔운동 전략그룹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global church has seen the greatest movement of missionaries ever into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The reports from throughout the world all talk about unprecedented response to the gospel, the rapid establishment and multiplication of house churches, and the incredible multiplication of bi-vocational pastors and untiring volunteers. In this session we will be talking about the remaining task of reaching into the still untouched groups of Asia, and beyond.

We have heard of unreached people groups for many years. Over the last ten years, we have been concentrating on those that have never been presented with the gospel. In the last years, nearly 2,000 of these groups have received their first missionaries and over 80,000 churches have been started. We will also be talking about the workers that God is raising up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churches and marketplace donors partnering with effective, local evangelists. Three out of four organizations that pledge to send workers to various groups have not yet fulfilled their commitment. However, the good news is that 80% of the workers who have moved into the people group have come from the same country as the unengaged people groups.

They have proven to be more effective because of understanding both the languages and the culture. And, they are not planning to leave. They are already home.

지역교회의 미전도종족선교

[주제강연 II]

공동대회장, 뉴욕충신교회 담임 김혜택

타문화권 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 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ster를 매년 년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 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음을 거듭해서 들어야만 하는가?"
-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1. 지역교회가 주도하는 선교
2. 모든 평신도를 선교사로 무장시키는 전략
3. 교회의 총체적 선교동원
4. 전략적목표를 가진 미전도종족(UUPG)선교

오늘날 한국 선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제강연 III] 인도네시아 선교사, KWMF 사무총장 **안성원**

GP선교회, 합신총회 협력선교사로 서울공대와 합동신학교를 나와1984년 인도네시아로 파송, 현재까지 자카르타 및 정글 지역에서 사역해 오고 있다. 안성원 선교사는 교회개척 사역을 비롯하여 현지인 선교단체인 WP(World Partners)를 시작, 인도네시아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또한 안디옥 기독교등학교를 설립하고 안중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GP 선교회 대표를 역임하였고 한인선교사들의 연합체인 KWMF(한인세계선교사회)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지난 한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해 왔다. 일제시대의 핍박과 6.25 전쟁의 고난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1960년대 부흥회를 통한 성장이 있었고 1980년대에는 성경공부와 제자훈련의 활성화를 통해 양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질적으로 많은 성장이 되었다. 선교적인 면에서도 1970년대부터 시작된 조동진 목사님의 아시아 선교운동의 결과로 1980년대에 들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서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에는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은 170개국에 27,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활동은 하는 선교의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교사로 나오는 숫자가 급격히 줄었고. 선교 후원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목회자들의 영성이 떨어지고 교인들의 세속화와 물질주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교회 성장이 멈추고 교인들이 줄었고 오랜 경제 불황으로 교회 헌금이 줄고 선교 헌금이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교회 선교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선교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이 힘을 합하면 다시 선교의 황금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장에서 32년간 지낸 선교사의 관점에서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점과 후원교회의 문제점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1.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점

1) 선교사 선발의 문제점 - 선교의 부르심이 없이 선교지로 온다

2) 철저하게 선교훈련 과정이 없이 선교사를 파송한다.

3) 선교사가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가고 싶어하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다.

4) 선교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교회 건축은 현지인 스스로 해야 한다.

5) 선교지에서의 선교동원을 통해 현지인들도 선교를 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6) 선교사역에 대한 현지 이양 계획이 부족하다.

7)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투자하여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 부족하다.

8) 선교사들의 안식년과 노후를 위한 투자가 없다.

9) 선교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가 없다.

10) 병든 선교사들은 위한 대책이 없다.

11) 군소선교단체의 난립으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2. 후원하는 교회들의 문제점

1) 한국교회의 영적 침체로 성경공부 운동의 쇠퇴하고 기도운동이 없어져 간다.

2) 선교사들에 대해 갑질이 되는 교회들이 많다. 마치 고용인을 다루듯 한다.

3) 선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 선교사들의 사역 지도를 하려고 한다.

4) 선교사를 파송할 때 무작정 상경식으로 파송한다. 선교사 파송에는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와 협력해서 파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후원교회들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하여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현지 언어를 습득하기 전에 사역을 할 것을 강요한다.

7) 선교사들의 선교보고의 기회를 잘 주지 않는다.

8) 선교비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주지 않고 단기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9) 선교지에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선교사들의 생활환경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

10) 교회내 청소년들에 대한 선교교육이 부족하다.

11) 젊은 층(30대)을 격려해서 선교후원자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미주 교회의 물질적 잠재력과 한국의 선교후보생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13) 교회 주변 디아스포라 사회에 관심을 갖고 전도하여 그들이 자기 민족에게 선교를 하게 해야 한다.

패널토의 - "단기 선교에 대한 선교사님들의 바램과 요청"

[선교전략 패널토의] 사회

미주 선교사 **김경일**

김경일 선교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M. Div)하고 인디아나 그레이스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D. Miss) 학위를 받았으며, 가이오 세계선교회 총무로 7년간 사역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14년간 사역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6년 사역하였다. 현재는 미주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KWMC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본부장과 G & E 연구소 미주 대표로 사역중이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도미니카 선교사 **최광규**

1988년 도미니카 한인 1호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난 24년 동안 10곳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 동안 양육하며 훈련시킨 제자들을 사역자로 파송하여 함께 동역하고 있다. 최근 도미니카 교회 리더십과 함께 기도연합사역인 도미니카 기도군대를 창설하였다. 도미니카 기독교총연합회 실행이사, 도미니카 국가기도위원회 코디네이터, 도미니카 세계선교연맹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KWMF 대표회장으로 본 대회를 섬기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말레이시아 선교사 **이금주**

침례교 해외 선교회 소속으로 1989년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현지 사역, 필리핀에서 아시아 선교사 훈련을 하다가 현재는 말레이시아 침례 신학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며 현지 교회에서 가정교회 사역, 한국 및 아시아 선교사 훈련 사역을 하고 있다. 침례 신학대학 신학과, 대학원을 나와 뉴올린즈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M.Div. 써든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으로 Ph.D. 를 받았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미주 선교사 **김정한**

김정한선교사는 SON Ministry 와 GMAN 전문사역그룹네트웍 대표이며 86년도에 케냐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를 했고 현재는 미주에서 단기선교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KWMF 북미주지회장, KWMC 부회장 및 단기선교분과위원장, 전 KIMNET 총무를 역임했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M.A)를 졸업했고 현재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과정(D.Miss)을 밟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온두라스 선교사 **박명하**

1991년 대한 예수교 통합측에서 중미의 온두라스로 파송받아 섬기고 있다. 박명하 선교사는 일찍 중학교 학생 때(1966년도) 선교소명을 받고 고교시절 미션스쿨에서 종교부장으로 섬기고, 대학시절에는 기독학생회와 네비게이토에서 봉사와 영적훈련 받은 후 장신대 신대원을 나와 군목을 거쳐 일반 목회를 하다 소명을 따라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선교사로 온두라스로 파송받아 오늘에까지 사역하고 있다. 예장통합 중미선교사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중미 카리브 회장으로, 예장통합 세계선교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케냐 선교사 **김미영**

김미영 선교사는1968년 9월 9일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였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MTI 훈련 수료하고, 1994년 12월에 서울신학교를 졸업하였고, 1995년 12월 3일 케냐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케냐 보이 타이타 사갈라 부족 선교사로 21년째 현재 사역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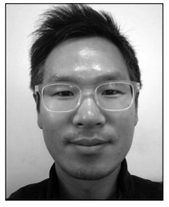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스페인 선교사 **주수은**

주수은 선교사는 1959년 2월 24일에 출생하여 1987년 고신대학신학대학원 졸업, 1989년 대구 경북 노회에서 목사 임직한 후 1990년부터 1996년까지 "대구남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7년간 사역한 후 1999년 2월에 KPM(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세계선교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1999년 6월 프랑스 선교사언어학교 2년간 불어 교육을 받으며 유학생들 선교에 힘썼다. 2001년 8월 여름에 북아프리카, "M국"으로 입국하여 사역하다가 2010년12월15일, M국의 종교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은후 2011년2월11일 본부와 상의하여, 거주지를 S지역에 두고 M국에 왕래하며 사역하기로 결정한 후 2012년 2월 부터 현재까지 M국과 스페인 지역에 거주하는 M국인들을 상대로 양면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영국 선교사 **최일호**



최일호 선교사는 칼빈신학교 선교학 졸업, 영국 Highland Theological College에서 신학 학부 졸업, University of Aberdeen 기독교윤리학석사 졸업, Wales Evangelical School of Theology에서 박사과정 중에 휴학하고, 2012년 Bristol International Church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2015년 International Presbyterian Church에서 목사 안수 받고, 2014년 Cross Mission를 설립하고 "2025년까지 영국 모든 도시와 마을에 복음을 선포하라"는 비전을 품고 현재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나를 믿는자는

[저녁선교대회 설교] 공동대회장, 프라미스교회 담임 **김남수**

강력한 선교적 목회를 통해 뉴욕지역 최대교회로 성장한 프라미스교회의 김남수 목사는 복음의 수용성이 가장 예민한 지구촌 4세-14세 어린이와 그 가족을 상대로 하는 집중교육 선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교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4/14윈도우운동의 제창자로 매년 제3세계교회지도자들을 초청, 4/14윈도우 글로발서밋을 개최하며 이 운동에 전력투구하고있다. 주요 사역으로는 파워하우스를 통한 지역사회 섬김사역, 뮤지컬 'His Life' 공연을 통한 문화사역, 축구와 태권도를 통한 스포츠 사역, 영어학습을 통한 교육사역등이다.

[요한복음 14:12-14]

넷째날 6/9(목)

새벽기도회

사회/ **박명하 선교사** 온두라스
기도/ **김정희 선교사** 러시아
선교사역보고/ **강경찬 선교사** 브라질(MK)
찬양/ **선교사성가대** /지휘 : 최경선
설교/ **장상길 목사** 송도주사랑교회
축도/ **김신호 선교사** 일본

성경강해

강사/ **론 스미스 목사** YWAM SBS 성경학교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마이클 오 목사** 국제로잔운동 총재
주제강연 II 강사/ **배현찬 목사** 공동대회장, 주예수교회
주제강연 III 강사/ **호성기 목사** 공동대회장, 필라인디옥교회
선교도전 강사/ **최복이 권사** 본월드미션
선교전략페널토의 / **KWMF-사회: 김종국**
패널: **이극범, 유기남, 정석천, 장영호**

저녁선교대회

경배와 찬양/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찬양팀**

사회/ **이승종 목사** 공동대회장, 어깨동무사역원장
기도/ **최광규 선교사** 케냐
선교사역보고/ **강복진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역보고/ **박영완 선교사** 멕시코
선교사역보고/ **김홍근 선교사** 이스라엘
특송/ **레위합창단** 지휘 : 곽경주
특송/ **권상욱 전도사** 은혜한인교회
봉헌기도/ **이휘재 선교사** 러시아
성경봉독/ **장완익 선교사** 캄보디아
찬양/ **은혜한인교회 그룹1&21** 지휘 : 신혜경
설교/ **한기홍 목사** 공동대회장, 은혜한인교회
합심기도/ **김경일 목사** KWMC 사무차장
축도/ **임동선 목사** 명예대회장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한 순교자를 찾고 계신다

[새벽기도회 설교]

송도주사랑교회 담임 **장상길**

전남 고흥 가상부락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15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났다. 무당 어머니를 두었던 장상길 목사는 예수를 믿고 핍박을 당하며 어머니가 강제로 키니네 독약을 먹여 사흘 동안 시체처럼 있다가 깨어나기도 했다. 이후 세상에서 성공의 꿈을 꾸다가 사업이 망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이후 인천 송도 신도시내의 대표적인 교회로 지역사회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는 주사랑교회를 개척했다.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 안양대학 신학대학원, 하와이 인터네셔날 칼리지를 나왔으며 해양경찰청 경목, 기아대책본부 본회이사 등을 맡고 있다.

[사무엘상 16:3]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브라질선교사(MK) **강마누엘**

6살 때 아버지 부모인 강성일, 현봉희 선교사를 따라 브라질에 온 강마누엘(한국명 강경찬) 목사는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부르심을 받아 브라질로 귀환, 아버지가 설립한 브라질신학교에 입학,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년간 소외된 지역인 떼레지나 마을에 살며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들이 들으리라

[성경강해]

YWAM SBS 성경학교 **론 스미스**

현재 전세계 50여 개의 학교를 통해 지난 30여 년간 1만 여명의 선교현지 성경교사들을 배출해낸 YWAM의 성경연구학교(SBS)를 로렌 커닝햄 목사의 초청을 받아 하와이 코나에서 1981년 처음 열었던 론 스미스 박사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을 좇아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선교지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 왔다. 현재 몬타나주에서 SBS를 담당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I want to study the impact and receptiveness of the gospel among the unreached.
I want to look at Acts 28.

Acts 28:1-10 -> The positive receptiveness of the pagan world contrasted with the opposition of the religious world in Acts
Acts 28:17-27 -> The mixed response of religious Judaism to the gospel
Acts 28:28-31 -> We go to the Gentiles! They will listen.

Our call to spread the gospel is an expensive one in every way, but the words of Paul are "they will listen." if we will pay the price.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주제강연 I]

국제로잔운동 총재 **마이클 오**

마이클 오 목사는 국제 기독교 기관 가운데 한인이 맡은 가장 권위 있는 고위직으로 국제로잔운동의 총재로 임명되었다. 빌리 그래함 등 영적 거성들의 유산이 담긴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위상과 열매, 그리고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심축이 제3세계와 새로운 세대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클 오 목사는 한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펜실베니아대학과 트리니티 신학교, 하버드대학교를 나와 선교사로 2004년부터 일본 나고야에 그리스도성서대학을 세우고 일본의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The Lord's Purpose for the World in the Lord's Prayer Come be a Nobody for Christ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주제강연 II]

공동대회장, 주예수교회 담임 **배현찬**

2011년 미주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장로교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를 봉헌하고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매년 "선교적교회 세미나"를 열며 모범적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예수교회를 이끌고 있다. 배현찬 목사는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듀북신학교, 보스턴대학을 나와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기독교사회윤리)학위를 받았고 한인이민목회 로드맵을 제시하는 공동체 시리즈 '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 등의 저서가 있다.

1. 선교적 교회의 배경

• 인도에서 35년을 선교사역으로 헌신하고 영국으로 귀국한 뒤 영국이 선교지보다 더 이교적인 사회임을 깨닫고 충격을 받은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서구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반성과 성찰로 시작된 선교적 교회운동이다. 지역교회 차원에서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확인하고 회복하려는 교회의 갱신운동이다.

• "선교적(Missional)"이라는 말은 1998년 출판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edited by Darrel L. Guder)란 책에 의해 학문적으로 연구과제로 제기되었다. 호주 및 북미 선교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GOCN)"를 통해 선교적관점에서 지역교회 갱신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한국교회에서도 중진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방향과 교회 개혁의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가고 있다.

• 최근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점들과 더불어 한계점에 이른 외형적 성장과 내면적 성숙의 불균형의 현장 속에서 건강한 한국교회의 미래상으로 제시되는 선교적 교회론이다.

2. 선교적 교회 정의

• 데렐구더(D.L. Guder)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의 본질과 소명"을 성서적(Biblical), 역사적(Historical), 상황적(Contextual), 종말론적(Eschatological), 실질적(Practical)이라는 다섯 가지 중심 단어로 설명한다.

• 알렌 록스버그(Alan J. Roxburgh)는 "성경전체가 선교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며 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선교적 해석의 방법을 강조한다.

• 크레이그 반 겔더(Graig Van Gelder)는 "선교를 위한 삼위일체의 토대 세움, 선교에서의 지역교회의 선교적 본질과 역할, 지역교회가 각 교회에 처한 상황과 문화에 선교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선교적 교회론을 종합한다.

• 최형근 교수(서울신학 대학교)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과 문화의 만남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다. 선교적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의 목표나 희망 때문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의 결과로 인해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안에 현존하는 교회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긴 여정이다."

• 한국일 교수(장로회 신학대학원) "선교적 교회론에서 선교를 더 이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가 선교 현장이며 먼 해외지역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교회의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한다."

3. 선교적 교회의 요소

1) 성서적 전통 / Biblical Tradition
2) 지역사회와 더불어 / Community Concept
3) 문화적 상황화 / Cultural Contextualization

4. 사도 바울의 선교에 비추어 본 선교적 교회의 특징들

1) 사명적이다(행13:1-3)
2) 예수중심이다(행16:6-15)
3) 공동체적이다(엡4:1-16)
4)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행20:17-24)
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빌4:10-20)

5. 선교적 교회의 현상

1) 건강한 교회 / 균형잡힌 교회
2)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
3) 섬김의 교회 /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선교의 제4물결, 디아스포라 선교

[주제강연 III] 공동대회장,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후 도미, 듀북신학교, 보스턴대학을 나와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기독교사회윤리)학위를 했다. 원칙이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잡힌 신앙지도로,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및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회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관으로 주 예수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 이민교회의 지역사회봉사에도 힘써 노숙자급식선교, Elder Homes, 다문화 음악축제, 커뮤니티 교회개방등 이민교회의 다문화권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Ralph Winter가 정의한 개신교 선교의 역사는 선교의 아버지 윌리암 캐리가 시작한 제 1시대인 연안선교 시대, 허드슨 테일러로 시작된 제 2시대인 내지 선교시대, 그리고 카메룬 타운젠드와 도날드 맥가브란으로 시작된 제 3시대인 미전도종족 선교시대로 정의 되어 왔습니다. 서구 선교사와 학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훌륭한 개신교 선교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인으로서 개신교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제 4물결인 '디아스포라 선교시대'에 살고 있다고 정의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헬라어는 '디아,' 즉 '흩어뿌려진'(scattered) '스포라,'즉, '씨앗'이란 뜻으로 '흩어져 뿌려진 씨앗'이란 의미입니다. 21세기는 한국인 뿐만이 아닌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져'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디아스포라'의 물결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는 사람들'(people on the move)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선교는 A에서 B로의 한 방향으로 고정된 선교가 아니라 이제 4방으로 '움직이는 선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제 4물결인 '디아스포라 선교'의 내부에는 4가지의 목회적이고 선교적인 '4가지의 물결'이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를 '선교의 4대 핵심가치'라고 부릅니다: 1. 복음의 디아스포라 들이 2. 지역교회가 중심이 되어 모든 성도들을 선교사로 양육, 훈련하여 3. 복음의 전문성과 은사로 4.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here and now)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모든 성도들을 깨워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비전

[선교도전]

본월드미션 대표이사, 시인 **최복이**

1965년 충남 청양에서 출생히여 1987년 충남대 국문과 졸업후, 1994년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을 수상한 후, 2003년 남편과 함께 (주)본죽을 창업하고 기업이익을 통하여 국내외 각종 선교를 하며, (재)본월드미션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기독교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06년 현대시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고독한 날의 사색, 미루나무 길, 속 깊은 편지, 길 위에 위안 등의 다수의 시집을 발간하였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세운 최복이 시인. 본죽가맹점주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본브랜드연구소 소장

1. 본죽 경영맵

2. 3대 사명

※ 생명을 살리는 기업
※ 사명이 이끄는 기업

본기업		본사랑		본미션
본이되는기업	--〉	이웃사랑실천	--〉	하나님사랑실천
측복의통로		사랑의실천		복음의통로

3. 본월드미션센터 소개(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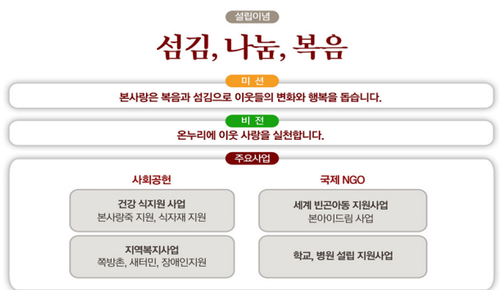
1	(주)본월드	기업	성경적가치경영
2	(사)본사랑	구제	이웃사랑을실천하라
3	(재)본월드미션	선교	땅끝까지복음전파하라

4. 본월드미션의 사역과 비전

1	선교사케어	게스크하우스, 회복켐프
2	선교사지원	교회, 학교, 병원 설립지원
3	비즈니스선교	선교사 파트너십

5. 본월드미션 경영맵

6. 본사랑 경영맵



7. 주가 일하시네 - 성령충만 - 순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 2;20)

패널토의 - "교회의 바람직한 선교사 후원"

[선교전략 패널토의] 사회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종국**

1983년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로 사역중이며, 인도네시아 복음장로교단(GPII)과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 설립하였다. 2003년 설립된 복음장로교단(STTP)의 학장직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Biloa대학교 초문화권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를 취득하여 현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공동회장과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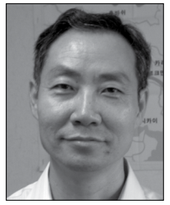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프랑스 선교사 **이극범**

장로회신학대학, 임마누엘신학원(영국) 틴데일신학원(네델란드)등에서 수학하고 1987년이래 파리장로교회를 26년간 섬겨오며 디아스포라교회를 기반으로 전교인선교비전일체화를 통한 불어권선교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급격히 이슬람화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불어권 27개 국가들을 향한 선교사역체인 MAFF27를 설립하고 전략연구, 교회협력, 선교사지원, 선교단체간 네트워킹, 단기선교 등을 활발히 진행해 가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일본 선교사 **유기남**



한국선교훈련원(GMTC)과 싱가폴 Asian Cross-cultural Training Institute (ACTI)를 거쳐 1987년 1월부터 OMF와 더불어 일본선교사와 본국디렉터(Director for Home Ministry)로 13년간 섬겼다. 미국 Fuller 선교대학원에서 선교목회학박사(DMinGM)를 받았고, 저서로 「일본선교」(ivp)가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위기관리위원회 공동대표, 선교훈련분과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하고, 2000년 4월부터 알타이선교회(Altai Cultural Center) 대표를 맡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태국 선교사 **정석천**

정석천 선교사는 총신대학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버지니아 리버티신학대학원(Th.M), 인디아나 그레이스신학대학원(D.MISS)에서 선교학을 공부했고, 1984년 동서선교개발원의 하기선교대학원(원장 조동진박사)에 참석중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 1988년 1월 태국선교사로 파송. 태국주일학교연구원장(1990,3월 설립), 방콕은혜국제학교 설립자/이사장(1999년 9월 설립), 방콕은혜교회 담임목사, 한국기아대책기구 태국지부장, 방콕은혜재단 이사장, 2015년 16차 인도차이나 5개국 선교사 대회장. 미주합동총회 선교부회장(2015, 2016)으로 섬기고 있다.

[선교전략 패널토의] 패널

러시아 선교사 **장영호**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GP 선교회 한국 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TEDS에서 신학석사와 RTS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브라질 선교사 **강복진**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남노회 파송선교사로 2004년부터 브러질애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브라질 마토스에서 팔라호의 교회건축사역을 비롯하여, 기술학교, 탁아소 사역 등의 어린이 사역과 YM제자양성사역과 장애자 사역을 통하여 브라질 선교에 열정을 쏟고 있다. 남편 고 이석은 목사의 소천이후에도 계속하여 브라질에서 남은 생을 선교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멕시코 선교사 **박영완**

박영완선교사는 서울기독대학교. 한국목회대학원를 졸업하고, 1993년에 GP선교회를 통해 제1차 남미 칠레주재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칠레 하나님의 사역교회" 목회사역, "일대일 제자양육성경공부" 스페인어판 번역 및 출판사역, 제2차 사역 중 볼리비아로 사역지를 변경하여 "라파스한인중앙교회" 목회사역 및 "생명과진리 기독교학교" 자립사역. 2006년 제3차 멕시코주재선교사로 파송, 티후아나 시에 벧엘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주일학교 교사대학, 청소년 연합예배사역 (Los Pescadores), 목회세미나 사역, 단기선교지원사역, 멕시코선교사 훈련사역, 멕시코 벧엘선교교회 목회사역을 섬기고 있다.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이스라엘 선교사 **김홍근**

1991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와 2003년 OM 선교회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로서 2010년 미국 Word Partner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 2002년 풀러 신학교 석사 졸업했고, 2016년 현재 미국 콘코디아 신학교 선교학 박사 논문 마무리 중이다. 2008년까지 세 개의 유대인 교회 개척, 현재 이스라엘에 교회 개척과 리더 훈련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 유대인 교회 개척을 준비중에 있다.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을 이루자

[저녁선교대회 설교]

공동대회장,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52개국에 25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8천여개의 현지교회를 개척해 내었으며 6개 신학교 및 한국에 선교사훈련원을 개원, 세계선교에 전력을 경주해 온 G.M.I. 선교운동은 한기홍 목사가 섬기는 은혜한인교회를 모체로 하여 세계선교를 최우선 과제로 세우고 교회 재정 50%를 선교에 투자한 아름다운 열매다. 새 성전의 이름을 '비전센터'라 명명하고 세계복음화 중보기도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며 2020년까지 2,0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표로 하는 "Vision2020"을 이루기 위한 팀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창세기 37:5-11, 마태복음 24:14]

다섯째날 6/10(금)

새벽기도회

사회/ **조용중 선교사** 글로벌호프대표
기도/ **조성덕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역보고/ **최승업 선교사** 가나(MK)
찬양/ **선교사성가대** 지휘 : 최경선
설교/ **메릴리 피얼스 던커 목사** 월드비전
축도/ **정금태 선교사** 파라과이

성경강해

강사/ **이승종 목사** 공동대회장, 어깨동무사역원장

주제강연

강사/ **고석희 목사** KWMC 사무총장, 예수학당훈장

폐회예배

한어권 영어권 합동예배

사회/ **안영섭 목사** KWMC 부의장
기도/ **조일구 목사** KWMC 부의장
성경봉독/ **김승진 선교사** 영국
특송/ **선교사성가대** 지휘 : 최경선
설교/ **송충석 선교사** KWMF 대표회장, 캐나
선언문채택/ **KWMC / KWMF 사무총장**
감사패증정
축도/ **최용순 선교사** 가나

담대한 믿음

[새벽기도회 설교]

월드비전 **메릴리 피얼스 던커**

밥 피어스 월드비전 창시자의 둘째 딸인 메릴리 피얼스 던커 여사는 40여개국을 방문하며 선교현장에서 극심한 가난의 고통들을 직접 접하였고, 월드비전의 사역들을 통해 변모하는 기적들을 보아왔다. 그동안 월드비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위해 힘써오며 다수의 모임에서 강연과 집필활동을 해오고 있다.

The Audacity of Faith (히브리서 11장)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MK 비지니스, 가나선교사 **최승업**

1992년 아버지 최용순 선교사를 따라 14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가나로 갔던 MK 최승업 선교사는 이제 이토크&나나텔(E-Talk & Nanatel Limited)을 운영하며 연간 8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가나에서 가장 성공한 청년기업가가 되어 BAM(비즈니스선교)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가나국립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고 사업과 함께 원주민 교회개척, 신학생 및 목회자자녀 장학금지원, 빌리지 의료선교 등의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람 세우는 선교

[성경강해]

공동대회장, 어깨동무사역원장 **이승종**

교회의 정체성을 선교적 시각으로 통찰, 5천년 민족사에 세계선교의 여울목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분복이라 믿는 그는 사역보다 먼저 사람이라는 고백을 품고 차세대 인물양성을 위한 "어깨동무사역원"을 설립하였다. 7백만 한인디아스포라의 청년동원에 힘쓰며 몽골국제대학교(MIU) 대표이사와 '아름다운 윤동주', 노스필드파운데이션, GMIT & Pan Pacific Film Festival 대표, KCNK(북한을 위한 한국교회연대) 이사장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목양심서」, 「선비크리스챤」, 「글로발퍼스펙티브」, 「뜻 세움, 뜻 지킴」, 「어깨동무 뜻 나눔 」 등의 저서가 있다 .

[사도행전 18:24-28]

우리 시대의 영적 화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건물, 행정, 조직,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경의 존재론적 본질을 학인하는 일이 화급하다. 한국 교회의 선교, 교육, 양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이다.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자

[주제강연 I]

KWMC 사무총장, 예수학당훈장, 지구촌선교교회 담임 **고석희**

지난 40년 다문화권 캠퍼스전도와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겨온 목양 사역 그리고 지난 30년 KWMC한인세계선교운동을 섬겨온 선교 동원 사역의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등 범세계적 탈기독교화, 반기독교화 현상을 방어할 『예수변증운동』의 절박성을 통감, 뉴욕 롱아일랜드 해변 6에이커에 방대한 신학과 인문학 도서를 소장한 〈예수학당〉 Jesus Academia(Apologia & Hummanitas/예수변증인문학당)을 설립, 『예수변증론강좌』를 비롯, 예수를 삶으로 변증할 인격함양과 지도력개발을 위한 『기독교인문학강좌』, 『동서양사상사강좌』 등 젊은 지성들과 선교사 연장 교육을 위한 학술사역에 주력하려 한다.

[로마서 9:1-3]

여호와를 위하여! -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

[폐회예배 설교]

KWMF 대표회장 , 케냐선교사 **송충석**

고교시절 리빙스턴 같은 아프리카 선교사의 꿈을 꾸다가 1991년 케냐의 마사이 오지에서 교회개척과 어린이교육사역을 시작, 현재 몸바사 무슬림권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선교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송충석 선교사는 한국해외선교 110년사에 처음으로 현지 감독으로 추대되었으며 (케냐 따라끼 연회) 전세계 170개국 2만7천명의 한인선교사들을 교단, 선교단체를 초월해 아우르는 모임인 KWMF(한인세계선교사회) 현 대표회장이다.

[사사기 7장1절-21절]

오늘 말씀의 무대, 그곳은 골짜기다. 영적싸움이 있는 골짜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음을 지적하셨다.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기 보다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할 만큼, 많다고 보셨다. 그래서 일부를 돌려보내라고 하신다. 그렇게 이만 이천명이 갔고, 만 명만 남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도 많다고 하셨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선별하셨다.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신 자, 300명만 남기고는 모두 돌려 보내게 하신다. 300명,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숫자가 못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는 충분한 숫자가 된 것이다. 기드온은 300명 명을 백 명씩 셋으로 구분하고 밤 이경 시간에 기습적으로 나팔을 불고, 각 병사가 갖고있던 항아리를 깨어 횃불을 드러내게 했다.

1. 힘을 빼거라,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
2. 하나님의 방법으로 뽑으시는 일꾼
3. 너와 나의 손에 들린 항아리를 부수라
4. 빛은 어둠보다 강하다
5. 외치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금은 엄청난 선교자원이 다각적으로 모아지고 있는 시대이다. 세계선교를 위해 모든 가능성이 총동원되어 가는 느낌이다. 그 만큼 세상의 어둠도 걷잡을수 없이 짙게 드리워져만 간다. 영적전쟁은 더 치열해져 간다.

양손에 세상 무기와 관계없는 방법으로 300명이 12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쟁 스토리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교훈을 찾고 어떻게 살아 살아가야 할지, 나가야할 길을 함께 조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1. 급한대로 달려오느라 놓친 영혼을 찾아 나서야한다.
2. 거룩한 절박감, 영적절박감을 찾아야한다.
3. 교회는 불러내졌다 -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것인지 계속 질문해야 한다.
4. 미션널 쳐지 - 미션얼(미션+얼)이다
5.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하라
6.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7. 항아리를 깨는 헌신
8. 우리의 부서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발해진다.
9. 함께 외치라.
10. 여호와를 위하여 - 기드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교포럼 및 선교사와 만남의 시간

권역별 선교포럼
6/8(목) 오후 3:30-4:30

세계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눠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사역들을 나누고 배우고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으로
목요일(6/9) 오후 3:30에 열립니다.

선교사와 만남의 광장
6/8(목) 오후 5:00-6:00

권역별 선교포럼에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더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로
이어질 수 있는
선교사와 만남의 광장이 열립니다.

KWMF 지도부의 인도에 따라
은혜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	**목 3:30 DUKE 125**
진행 ▶ 김종련 선교사 (인도네시아)	
서남아시아	**목 3:30 광장**
진행 ▶ 이병구 선교사 (인도)	
인도차이나	**목 3:30 DUKE 121**
진행 ▶ 장완익 선교사 (캄보디아)	
중앙아시아	**목 3:30 DUKE 117**
진행 ▶ 강형민 선교사 (키르기즈스탄)	
태평양	**목 3:30 DUKE 122**
진행 ▶ 정상진 선교사 (태평양)	
러시아	**목 3:30 DUKE 119**
진행 ▶ 유창현 선교사 (러시아)	
일본	**목 3:30 DARL 411**
진행 ▶ 조남수 선교사 (일본)	
중동	**목 3:30 WCAM 170**
진행 ▶ 김영서 선교사 (요르단)	
서북아프리카	**목 3:30 DUKE 123**
진행 ▶ 최철 선교사 (튀니지)	
동남아프리카	**목 3:30 DUKE 601**
진행 ▶ 이은용 선교사 (케냐)	
북미주	**목 3:30 DUKE 507**
진행 ▶ 김정한 선교사 (미국)	
중미	**목 3:30 DUKE 513**
진행 ▶ 전재덕 선교사 (도미니카)	
중국	**목 3:30 SEGC 162**
진행 ▶ 권요셉, 고주몽 선교사 (중국)	

미전도종족선교전략포럼

[진행] 공동대회장, 뉴욕충신교회 김혜택

타문화권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 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ster를 매년 년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진행] GAP 국제 사역 대표 안강희

6살 때 아버지 부모인 강성일, 현봉희 선교사를 따라 브라질에 온 강마누엘(한국명 강경찬) 목사는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부르심을 받아 브라질로 귀환, 아버지가 설립한 브라질신학교에 입학,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년간 소외된 지역인 떼레지나 마을에 살며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하박국 2:14)

서론 : 성경적인 모본과 사례를 따라 전세계의 모든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다.

1. 성경적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전략들 :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할 목표(누가복음 19장10절)를 가지고 사신 예수님의 모범과 전략들을 따라 잃어 버린 미전도 국가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개척한다.
2. 잃어 버린 미전도 국가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복음화하기 위한 우선적 목표 : 아직 개척이 되지 않고 있는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을 우선적으로 개척하여 자생적이고 재생산적이며 다른 미전도 종족들을 개척하기 위해 일군을 파송하는 교회와 일군을 세운다.

본론 :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적 사역들

1. 미전도 나라와 민족과 종족과 언어 조사 및 개척 계획 수립

1) 전세계 미개척, 미전도 종족 분포도
2) 세계 선교의 최대의 남은 과업
- 미개척 미전도 종족들(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인구 5,000명 이상의 644 종족들.
3) 세계 선교의 최대의 과제 인도
- 2011개의 미전도 종족들
- 약 2억의 회교도들
- 전세계 미전도 종족 인구의 75%
- 0.1%의 복음화 율의 171개의 미개척 지역:1억의 인구
- 인도의 미전도 종족 정보 조사 및 보급

2. 진입 전략: 평안의 축복 전도-예수님 달력, 평안의 축복 기도로 평안의 사람들 찾기

3. 복음화 전략: 전도 책자, 달력 전도지, 가족 전도

4. 제자화 전략: 새신자 양성, 가정 예배

5. 교회 개척 전략: 가정 교회 개척

6. 일군 양성 전략: 가정 교회 지도자 양성, 교회 개척 사역자 양성, 목회자 양성

7. 미전도 종족 개척 전략 : 미전도 종족 개척 코오디 네이터 양성과 파송

북한선교전략포럼

[기조강연] 북한선교를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의 영적 근거 안디옥커넥션 대표 오대원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 청년사역을 시작,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이후 사역의 지평을 넓혀 1981년 YWAM 국제적 단체와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미주 한인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안디옥커넥션을 시작하였고 특별히 한반도의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 중보하며 남과 북이 함께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자는 '뉴코리아(New Korea)' 운동을 펼치며 한국과 해외에서 통일관련 캠프와 훈련학교,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주제발표] 4K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대외협력처장 오성훈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오성훈 사무처장은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선교를 위한 인식적, 실천적 차원의 콘비벤츠에 관한 대안적 연구"로 박사(Ph. D.)학위를 수여하였고, 월간 큐티진 〈통일코리아〉 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네트 (PN4N) 대표, (주)포앤북스 대표이사로 있다.

북한선교는 단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열방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전히 분열의 영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국제사회와 북한이 갈등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통일 논의만으로는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이 이루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때에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영적인 근거를 가지고 연합하고 협력해야할 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SK), 북한교회(NK), 디아스포라한인교회(DK), 그리고 한반도를 사랑하는 외국인들(Lover Korean)을 준비해 두셨다. 이들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묶어내고, 실질적인 사역에서 연합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이번 포럼의 목적이다.

[패널]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장 이상숙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이상숙 권사는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패널]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이관우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이관우사무총장은한국대학생선교회(CCC) 통일연구소장, 기독교통일포럼 운영위원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히11:1)다. 믿음의 기도는 그 증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이 시대의 통일과 구국의 나팔수로 외치고 있다. 복음통일의 선물은 우리 자녀와 손자 세대의 미래와 희망이다(렘29:11).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사역은 통일선교사역의 기초이며, 기도 자체가 중요한 사역이다. 한국교회가 실천 가능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성령의 끈이다. "기도하는 한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패널]

영광교회 담임, 전 한꿈학교 교장 김성원

김성원 목사는 그리스도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Covenant Bible Seminary에서 M.Div 학위를 받고, 중국 단동에서 구호물자 지원과 탈북청소년들을 보호 및 교육 사역을 하였고, 태국 방콕에 탈북자 쉘터 설립운영하였고,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꿈학교 설립' 및 운영하고 있으며,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협의회 아동 청소년 분과 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마포 영광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사역중이다.

복음의 전파와 함께 진행되어진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와 놀라운 평양의 대 부흥과 동족 상잔의 전쟁과 분단,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하심에 사용되기 위해 준비해야하며, 그 첫 번째가 바로 북한 선교이다.

[패널]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장 하광민

하광민 목사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총신신대원 M.Div 학위 취득, 고든콘웰 신학교 성경신학 Th.M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남침례신학교에서 선교학 Ph.D를 취득하였고,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초대 사무총장과 사랑의교회 북한사역 담당자로 지내며,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초대회장으로 역임하였으며 현재 생명나래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로 있으면서 기독대, 합신신대원 강사로 재직중이다.

"통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징조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탈북민들을 통해서 북한을 알아가고 함께 함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2)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점점 더 확대되어지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 한국교회의 새로운 형태가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을 담아내는 그릇의 교회들이다. 통일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탈북민들의 역할과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데 이는 둘 다 마중물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탈북민은 남한과 북한을 경험한 통일의 마중물로 역할하며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통일한반도와 열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패널]

새희망나루교회 담임,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마요한

마요한 목사는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1998년 탈북하였다가 2001년에 잡혀서 북송되었다가 같은해 재탈북하여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여 온누리교회 북한선교 담당교역자로 사역하였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새희망나루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중이다. 현재 (사)탈북민목회자연합회 대표이자 (사)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으로 역임중이다.

[패널]

사랑의교회 북한사랑선교부 담당 길이진

길이진 목사는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를 졸업하고 총신대학교신대원을 나와서 현재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전임 교역자로 일하면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인 반석 학교 교장과 쥬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상임 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기독교적으로는 민족대부흥의 역사를 주였던 북한의 교회가 공산정권의 핍박 속에서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며 아직도 지하교회를 통하여 울부짖는 피의 절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한 땅의 교회로 전달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지리상 대륙으로 이어진 반도이지만 정치군사적 이유로 섬 아닌 섬이 되어서 사면이 대륙과 분리되어있다. 좁은 땅에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인구밀도와 일자리창출 등 글로벌시대 국가 경제적 경쟁력을 위해서 대륙으로의 길을 열어야하기에 통일은 선택이 아닌 국가장래를 위한 사생의 문제이다. 대륙으로의 통로가 되는 우리민족의 반쪽 북한 땅의 현실은 전국가적으로 부정부패와 마약과 매춘 등 일반적상식이상의 사회부패상황이 심해져가고 있다. 사회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우리의 현실을 불안하게 하는 극한점에 서있다. 여기에 남북분단의 유관국들의 실질적인 관섭과 이해관계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가운데서 단순히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통일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단순히 국가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효율성 등 인간적인 시각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사적인 접근으로 복음적평화통일로의 접근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일에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신앙적인 All-in을 하여야 한다.

여성선교전략포럼 [1]

[사회]

KWMF 부회장(여성회장), 러시아 선교사 **김정희**

김정희 선교사는 장로회신학대학 세계선교대학원를 졸업하였으며, 1993년도에 대한예수교장로회(PCK) 총회 파송 러시아선교사로 현재까지 사역중이며 현재 KWMF여성선교사 회장으로 사역중이다.

[설교] 천국복음의 위력 (마24:14)

KWMC 여성세계선교운동본부장, 순복음사랑교회 담임 **송성자**

Nor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박사,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선교이사, KWMC 세계 여성선교 운동본부장, 북인도 네팔 Rock of The truth신학교와 인도사랑 대표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교 북한 미주도서기증회 대표이며 시카고 순복음 사랑교회 개척하여 딤임목사로 사역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KWMF 여성선교사회가 2008-2016년까지 6차 여성선교사대회를 대륙별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여성선교사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감과 미래에 나가야 할 방향성을 연구하며 시행착오를 개선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대회를 통해 선배 여성선교사들의 빛나고 숨어 있는 사역과 여선교사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으로 이방 땅에서 수고한 사역은 극찬할만 합니다. 아름다운 독신 여선교사로 오지에서 땀흘리며 세원진 교회와 신학교들!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어 동역자로서 동등하게 일구어 낸 사역들! MK를 멋지게 성장시켜 세계의 리더들로 성장시킨 복된 여인들입니다. 여성의 예민함으로 뛰어난 현지언어 실력과 현지인들을 어머니 마음으로 품어 제자들을 세우는 대한의 위대한 딸들입니다. 이방 땅에서 풍토병과 갱년기 장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일어서 계속 사역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여성선교사들은 대회를 통하여 아픔과 고통을 위로 받고 서로의 사역들을 공유해 왔습니다.

미래의 우리 사역지는 전쟁과 지구의 변화로 고난과 순교의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여성선교사회가 계속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선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성선교전략포럼 [2]

[사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미주선교사 **그레이스 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미주 특별연회 파송인준선교사, Volkhocshule in Germany Finished. (수료), Southern California presbyterian Seminary Th. M., New life mission Founded 설립자, 도시 빈민 및 감옥 출소자 전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패널]

Holizen Mission 대표 **정인순**

정인순 박사는 숙명여대를 졸업하고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 학위를 수여받고,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D.Min GM 수료한 후 현재 Holizen Mission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들어가는 말 - AI(Artificial Intelligence)/ SI(Spiritual Intelligence)
1. 시간적 차원 : Kairos/ Kronos (슥 14:7, 시 132:7)
2. 영생의 차원 : Eternal Life/immortal Life (요 3:35, 요 6:47, 요 6:54, 요 10:28, 요 12:35)
3. 영광의 차원 : 고후 4:14, 시 24:7-10
4. 말씀의 차원 : 요 1:14, 렘 1:9, 요 15:7
5. 성령의 현존 : 요 16:13, 롬 8:14, 딤후 3:16-17, 고전 2:10, 요 14:26, 갈 6:8
6. 선교적 차원 : 엡 1:7, 히 1:13, 벧전 4:14
7. 통치력의 차원 : 사 9:6-7, 슥 9:10, 벧전 3:22, 엡 1:22

[패널] 선교사 아내의 영성관

불가리아 선교사 **배점선**

배점순 선교사는 1992년도에 GMS파송 불가리아 선교사로서 크리스천 바이블 칼리지&세미너리 (상담학)을 전공하였고, 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중독재활상담 수료)을 나왔으며 중독재활상담2급 자격증을 가지고 사역중이다.

[패널]

대만 선교사 **박만선**

박만선 선교사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파송 대만선교사로서 감리교 신학원 목회 아카데미(M.Div.)와 아주 선교 신학 연구원(M.Div.)을 졸업하였다.

전문인선교전략포럼

[사회]

공동대회장,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호성기**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후 도미, 듀북신학교, 보스턴대학을 나와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기독교사회윤리)학위를 했으며 원칙이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잡힌 신앙지도로,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및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회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관으로 주 예수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는 이민교회의 지역사회봉사에도 힘써 노숙자급식선교, Elder Homes, 다문화 음악축제, 커뮤니티 교회개방등 이민교회의 다문화권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패널]

큰빛교회 담임 **노희송**

1994년 큰빛교회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 큰빛교회 영어 목회(New Hope Fellowship)를 담당하다 담임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되면서 3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 기독교 영성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사모 헬렌과 두 자녀가 있다. 사모는 틴데일에서 상담학 박사를 받았고 현재 틴데일 교수로 있다.

[패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이상명 박사는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를 마치고,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Ph.D. in New Testament Studies 학위를 받고, 현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패널]

나성영락교회 장로 **이지수**

나성영락교회의 이지수 장로는 Certified Financial Planner로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해외한인장로회 회계로 사역하였고 서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1. 전문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1) 세속적 의미의 전문인
   2) 지역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의 전문인
   3) 은사론적인 측면에서의 복음의 전문인
   4)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복음의 전문인
2. 전문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3. 지역교회에서 성도들을 복음의 전문인으로써 어떻게 선교사로 훈련하고 참여케 하는가?
4. 지역교회에서 2세들을 복음의 전문인으로써 어떻게 선교사로 훈련하고 참여케 하는가?
5.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와의 협력에 있어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무엇인가?

평신도선교전략포럼

[진행 및 발제]

공동대회장, GBC Seattle 대표, 선교학박사 **이상진**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장로인 이상진 박사는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역임하였고, 시애틀미주복음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선교인 "지구촌선교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교단체인 India Care Mission과 Global Mission Connection을 설립하였고, 현재도 주께서 보내신 곳은 어디든지(전쟁지역을 포함하여) 열방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또한 1986년 이후 현재까지 인도선교인 LOVE INDIA 2017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KWMC공동의장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

1. 교회 내외에서 평신도의 역활
2. 교회 내 선교에 있어서 평신도 사명
3. 교회 외 선교에 있어서 평신도의 역활
4. 선교사의 삶
5. 평신도 정체성 확립 -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6. 대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평신도 선교전략 파라다임 쉬프트
7. 넷웍 조직 (전문인 선교, BAM 선교, 실업인 선교, 의료 선교, 단기 선교, NGO 등)

[패널]

아리조나 템피장로교회 선교 사역 위원장 **윤영복**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템피장로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여러 지역 및 선교사, 기관을 통해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역 소개

- 단기선교지 : 코스타리카 의료선교와 VBS. 멕시코 급식 선교와 집짓기 사역. 아이티 교회 지원 및 건물짓기. 북한 선교 (빵공장. 결핵 요양소 지원). 중국 선교 (삼자 교회와 농촌 교회)

-협력 선교지와 개척 교회 지원 : 쿠바 (지영범) · 일본 (강민숙) · 필리핀 (김인효) · 케냐 (윤에벤) · 케냐 (박홍순) · 케냐 (조규보) · B국 (만나선교회) · 브라질 (양성식) · M 국 (이상민) · K국 (Amy Oh) · 러시아 (배돈자) · 세계선교협의회 · Global Partners · 피닉스 복음방송 · Joy Center · 교도소 사역 (설용희) · Covenant Life Church (James Alderman) · 최예규

선교적교회포럼

[사회] 공동대회장, 주예수교회 **배현찬**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 신학석사 후 도미, 듀북신학교, 보스턴대학을 나와 루이지애나 대학교에서 철학박사(기독교사회윤리)학위를 했으며 원칙이 있는 분명한 목회 철학과,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균형잡힌 신앙지도로,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 및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회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목회관으로 주 예수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그는 이민교회의 지역사회봉사에도 힘써 노숙자급식선교, Elder Homes, 다문화 음악축제, 커뮤니티 교회개방등 이민교회의 다문화권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패널] 주예수교회 장로 **노승환**

주예수교회의 노승환 장로는 배현찬 담임목사와 함께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공동사역하며 주예수교회가 미주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장로교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를 봉헌하는 가운데 함께 하였다. 현재 교회에서 〈선교적교회 세미나〉를 3회째 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선교하는 모범적인 교회상 수립을 위해 노력하며 강사로도 서고 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수행하기 위해 독특한 역사와 문화 속으로 파송 받은 신앙 공동체로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적극 응답하여 세상을 섬기는 지역교회이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는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

단기선교전략포럼

[사회] SON Ministry , KWMF 북미주지역 회장 **김정한**

김정한선교사는 SON Ministry 와 GMAN 전문사역그룹네트웍 대표이며 86년도에 케냐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를 했고 현재는 미주에서 단기선교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KWMF 북미주지회장, KWMC 부회장 및 단기선교분과위원장, 전 KIMNET 총무를 역임했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M.A)를 졸업했고 현재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과정(D.Miss)을 밟고 있다.

[패널] 러시아 선교사 **송상천**

1991년 부산영락교회 및 S.O.L.에서 러시아로 파송받은 송상천 선교사는 구소련(CIS)선교사협의회회장, 연해주선교사협의회장, BAEKSEOK총회 선교사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하였고 현KWMF임원으로 블라디보스톡(아르쫌)한-러교육문화원장, 러시아현지인목회자훈련원장, 블라디보스톡장로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고려대, 총신, 백석대학원, 플로리다비컨바이블칼리지를 나와 훼이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박사를 받았다.

[패널] 캄보디아 선교사 **장완익**

현 KWMA KAMSA 인도차이나지역 코디네이터, WMF 부회장/인도차이나지역 회장/R&D분과장/GC TEAM을 맡고 있는 장완익 선교사는 GMS 베트남/캄보디아 주재 선교사로 1993년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상과대학(B.B.A.),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Th.M.), 신학대학원(M.Div.equ),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D.Min.) 졸업했고 현재 ACTS 연구전담 조교수/캄보디아선교연구원, 아태아대학원 부총장(행정)으로 사역하고 있다.

[패널] 인도 선교사 **이윤식**

1991년에 인도로 파송받은 이윤식 선교사는 인도교회개척운동훈련학교(ICPMTI) 디렉터이자 인도복음주의협의회(IEF) 훈련디렉터로 사역하며 북인도 지역에서 2007년부터 교회개척운동과 미전도종족사역 활성화를 위한 'R 7 to 7 사역'을 시작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인도 델리에 있는 명문 네루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문화인류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단기선교는 지난 30년간 지대한 선교동원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선교프로그램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선교전략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교회안에 성도들을 대상으로 생성되는 선교동원력, 선교재생산력, 선교공감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그동안 단기선교를 하나의 시즌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보았고 초점을 마추어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기선교를 통해서 교회안에 선교동원재생산력을 어떻게 증대시켜야 하는지 집중연구를 해야 할때가 되었다. 본 포럼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단기선교를 평가하고 새로운 단기선교운동에 대한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 본인은 지난 20년간 남가주지역의 200교회들을 대상으로 2세 단기선교팀을 훈련하여 보내왔고 단기선교에 대한 전문선교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동안 팀 구성이 어려운 작은교회들의 2세들을 도와 팀을 만들어 35개국이상에 70개 단기선교팀을 훈련하여 파송하여 오고 있다.

한국형선교연구개발포럼

[발제]

KWMA 국제총무 **김연수**

김연수 목사는 합동신학대학원(M. Div),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M.A.),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Ph.D)를 졸업하였다. 남서울교회(홍정길목사시무) 대학부 지도 사역,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끄웨르바 부족 성경번역사역, 아태아대학원(ATEA Institute for Intercultural Studies) 부총장(학사)을 역임하였고 현재 스토리텔링사역연구소(SMI) 대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국제총무로 사역중이다.

들어가는 말

인도에 있는 셀리 오우크 대학(Selly Oak Colleges)에서 성경해석을 가르치는 서거싸라자(R. S. Sugirtharajah)는 제3세계에서의 성경해석을 다루는 그의 책, 『변두리로부터의 목소리들 (Voices From the Margin)』[1]에서 35편의 제3세계 신학자들의 글을 통해 제3세계 각지에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는 한국 신학의 하나로서 안병무의 "민중신학"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신학들이 여전히 변두리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이지만 계속 변두리 목소리만으로 남을 것이 아니기에 성경해석 분야에서의 그들의 새로운 방법론 개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새로 생겨난 교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이 사색하거나 고민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로부터 성경교육과 훈련, 그리고 성경해석 훈련을 받아왔던 현지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적인 상황과 복음과의 관계, 자신들의 주위에 있는 토속적인 신앙이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관계 혹은 그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복음이 소개되고 해석되어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신학적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루퍼스 앤더슨(Rufus Anderson)과 핸리 밴(Henry Venn)은 선교지에서 새로 탄생하는 교회들의 독립에 기초가 될 만한 세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자전(自傳, Self-Propagation), 자립(自立, Self-Support), 자치(自治, Self-Governance)였다. 이것들은 많은 단체들,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 오랫동안 선교지에 건전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좋은 원칙으로 사용되어 왔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그 나라의 핵심적인 종교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그 부흥 속도와 복음화율에 있어서 세계 선교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부흥 요인들과 함께 선교 초기부터 이 원칙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은 중국에서 30년 이상 사역했던 네비우스(John L. Nevius)를 초청하여 함께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때 네비우스 선교사는 그 3자 원리를 통해 처음부터 자립의 원칙을 내세워 빠른 시간 내에 한국 땅에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진취적인 토착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들 중에서 선교지에 개척된 교회로서 초기부터 자립적인 토착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2]

그런가 하면 그러한 네비우스 정책은 한국 개신교의 대표적인 선교전략으로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삼으면서 자립과 자치와 자전을 통해서 토착적인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3] 그것은 나아가 한국 선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교지에서도 그와 같은 3자 원리가 선교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해주었다.

1) R. S. Sugirtharajah, (ed.), Voices From the Margin, Interpreting the Bible in the Third World, New York: Orbis Books, 2006.

2) Charles A. Clark,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1928, 19-33.

자신학화(自神學化, Self-Theologizing) 필요성의 전제

우리가 살펴 본 3자 원칙은 아직도 중요한 교회 개척의 원리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교회개척을 위해 적용되어야 할 적절한 지침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지의 새로운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들과 동반자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신학화다.

윌리암 테일러(William Taylor)는 현지 교회와 문화의 토착화 원리로서 3자 개념에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개념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4] 어떤 면에서는 신학과 선교학을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선교학[5]은 실천 신학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여기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를 다루는 대신 "자신학화"만을 다루려고 한다.

히버트(Paul Hiebert)는 새로 태어난 교회도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 그러면서 그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신학적 다원주의를 직면하게 되면서 신학적 충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서 혼란을 겪게 됨을 말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도 다양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직면하게 되면 그 자신의 해석이 왜 옳은 것인지 반드시 자문해봐야 하는 것이다.[7]

크래프트(Charles Kraft)는 초문화적 관점에서 역동적이고 성경적인 신학화를 주장하면서 "역동적 등가 신학화"(dynamic-Equivalence Theologizing)라는 용어를 사용했다.[8] 그는 신학을 "인간의 역동적인 신학화 과정의 결과"[9]라고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와 혼돈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또한 신학은 생성뿐만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신학자의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이해, 이러한 이해에 대한 의사소통, 그리고 그 의사소통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 때문에 문화와 하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10] 그렇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역동적인 동일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 상황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신학화 작업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믿어왔던 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후진들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학화의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학화 작업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왔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왔던 신학은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을 굳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성경은 물론이고 그 말씀이 주어진 특정한 문화에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학은, 히버트가 지적하듯이,[11] 우리와 복음을 연결해주는 가교(架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전한 신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석의와 상황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본래의 의미와 저자

3)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1973, 306.

4) W. Taylor(ed.), "From the Iguassu to the Reflective Practitioners of the Global Family of Christ.", 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 Grand Rapids: Baker, 2000, 6.

5) 신현수는 그의 책에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선교학(missiology)"은 선교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적 방법으로, "선교신학(mission theology)"은 선교학의 한 분야로서 선교의 동기와 방법 그리고 전제들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신학의 한 분야이다.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서울: CLC, 2011, 24. 그렇다면 필자가 볼 때, 선교학과 선교신학은 당연히 신학의 한 분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6) P. Hiebert, 김동화 · 이종도 · 이현모 · 정흥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6, 279.

7)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281.

8) C. H. Kraft,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Dynamic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Orbis Books, 2000, 291-312.

9) C. H. Kraft, 294.

10) C. H. Kraft, 297.

11) Hiebert, 289.

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진 문화적, 역사적 정황에 대한 이해와 지금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문화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근본적인 신학은 오류가 있을 수 없지만,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기술하는 모든 신학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온전하거나 완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발전시켜 온 모든 신학은 그들 자신의 특정한 문화적, 역사적 정황에 맞추어 형성되어 온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것 또한 첫 번째 원리와 관련되어 있지만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한 것은 특정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자체가 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성경해석에는 편견이 없으며 자신의 성경해석이 옳다고 쉽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언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또 다른 신학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신학화에서 자신들의 모어(vernacular language)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들의 모어가 그들의 정체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네(Lamin Sanneh)는 선교에 있어서의 모어 사용 이슈를 다루면서 모어로의 성경번역이 선교지에서 서구화와 식민지주의에서 벗어난 토착적인 신앙을 갖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12] 모어로의 메시지 전달은 그것이 식민주의를 넘어서서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셋째로, 모든 다른 문화권, 언어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은 성경해석과 신학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의 지적인 활동은 자신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자신의 세계관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카네기멜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197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사이먼(Herbert A. Simon)은 그의 논문에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다.[13] 인간의 모든 결정과 인지적 작용은 결국 그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신학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로, 모든 문화권에서의 자신학화는 일종의 "상황신학"(Contextual Theology)[14]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신학을 거부한다. 다만 성경의 권위적 지배를 인정하면서 복음 전달을 위해 문화의 상황화를 꾀한 상황 신학은 인정할 수 있다.[15] 본문과 상황, 본래의 메시지와 상관성, 기독론과 문화가 해석학적인 균형을 이룰 때 바른 자신학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건전한 자신학화, 긍정적인 의미의 상황신학의 개발이 없이는 한 특별한 문화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각자의 특별한 문화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 문화권에서의 자신학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 자신학화의 필요성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한국 자신학화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로 서구 사람들에 의해 정립된 신학을 당연하고 옳은 것으로 배워왔고 가르쳐왔으며 그에 따라 그것들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신학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굳이 한국 자신학화를 말해야만 하는 것인가? 오랫동안 기독교의 신학화의 중심부에는 서구적 문화와 언어와 세계관이 있었다. 그래서 마치 신학하면 당연히 서구신학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신학의 특징과 전제에는 신학과 문화, 신학과 언어, 그리고 신학과 세계관/가치관의 상관성이 관여되어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한국 신학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2) L.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2005, 123-125.

13) Report of the Research Briefing Panel on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 1986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ublished by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4)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 신학을 거부한다. 다만 성경의 권위적 지배를 인정하면서 복음 전달을 위해 문화의 상황화를 꾀한 상황 신학은 인정할 수 있다.

15) K ster, Volker, John Bowden(trans.), The Many Faces of Jesus Christ, London: SCM Press, 2001, 27.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자신학화를 생각해야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로, 이제는 기독교의 중심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을 주장하고 있는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교회의 선교적 행위가 세속화되어 가는 문화에 대해 철저하고 확고한 복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16] 기독교의 선교적 과업은 구원이 집합적이고 우주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시적 중심지에서 시작하여 다음 중심지, 그 다음 중심지로 퍼져 나가게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17] 역사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의 메시지는 한 중심지에서 다음 중심지로 옮겨 다니면서 전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필립 젠킨스(Philip Jenkins)는 그의 책, 『새로운 기독교의 발흥』에서 2050년이 되면 세계의 인구가 상위 25개국 중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인 수도 2025년이 되면 기독교 신자수에 있어 상위 10개국의 11.3억 중에서 비서구가 차지하는 인구는 7.1억으로 63%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8]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직시한다면, 일반적인 인구 면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숫자에 있어서 그 중심지가 이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앤드류 월스(Andrew Walls)가 이미 말했듯이,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겨졌고 선교의 주축도 남반구로 옮겨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중심부가 서구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19] 그래서 김상근은 한국이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된 신학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20]

해석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독일의 선교신학과 미국의 복음주의(특별히 풀러신학교 계통) 선교신학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의 선교신학계에 앤드류 월스의 도전은 선교한국을 위한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의 선교신학은, 한반도에서 우리 문화의 틀 가운데서 우리나라 말로 신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유럽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중심축이 끊임없이 고향을 옮겨가며 연속적인 이동을 계속하여 왔다면, 이제 한국은 기독교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선교강국이다. 세계 2위의 선교대국인 한국교회는 더 이상 유럽과 미국교회의 신학을 제3세계에 소개하는 신학적 중간거래상의 역할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앤드류 월스(Andrew Walls)의 주장처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기독교의 중심축이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가며 이동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한국 기독교가 제3세계 기독교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제3세계 기독교도들을 위해서라도 한국 자신학화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서구신학이 제3세계에 대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한국 자신학화가 필요하다. 서구신학은 서구적 문화와 세계관과 가치관, 서구적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한 전제들이 동양이나 제3세계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제3세계, 한국의 문화와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서구적 시각에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쉬(David Bosch)는 서구의 학문과 신학이 결코 중립적이 아니고 서구적인 지식과 전제와 상황에 맞추어져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21] "서구 과학과 서구 철학 뿐만 아니라 서구 신학도 보수적이든 자유주의적이든, 지식은 중립적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서구의 이익을 섬기도록, 더 특별하게는 '기존의 세계'를 합법화하도록 의도되었다는 큰 의심이 있다."

거기에 다가 요즘의 서구 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나라들의 상

16) 뉴비긴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인도 선교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을 때 본국의 상황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 때문이었다. 그는 서구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 변질시켜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175.

17) L. Newbigin, 홍병룡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0, 172-173.

18) 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4-85, 89-92. Jenkins가 제시한 표를 보고 필자가 비율을 계산한 것임.

19) A. Walls,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New York: Orbis Books, 2002, 34.

20) 김상근, "21세기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앤드류 월스의 선교신학", 『선교신학』, 2005, 234.

21) D. Bosch, 김병길 ·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626.

황을 본다면 결코 그들의 신학이 제3세계의 상황에 맞지도 않으며 맞추어서도 아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재영한인교회연합회"의 논문 자료집은 대표적인 서구 사회의 문제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22]

서구신학은 서구의 자연과학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는 비신화화함으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자연과 초자연의 관계, 신비 혹은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 통합적인 답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원론적인 세계관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계몽주의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성경도 학문적인 분석대상으로만 간주하여 분석과 비평을 함으로써 성경 말씀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 신학, 다원주의 신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서구신학이 그들의 사고와 전제와 상황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을 담고 있다는 전제는 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로,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한국 자신학화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자신학화를 이룩해야 한다. 서구로부터 복음을 받은 지 130년이 지난 한국, 세계 기독교 역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세계 선교 역사상 그렇게 짧은 시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부패와 미성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자신학화가 없었고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기독교 문화를 갖추지 못함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사가인 이만열은 한국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의 자신학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23] "이들은 입으로는 '한국적 신학'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국의 신학에 기생하고 있으며, 자기의 문제에 고민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신학화하려는 노력에 오히려 방해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가 지적하듯이, 한국 기독교에는 진정한 의미의 한국 자신학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영미 문화권에서 신학과 윤리학 분야에서 탁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듀크대학의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고 행동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설명을 가능케 하는 "종교적" 의도와 같은 개념적 의미에 강조를 두고 있다. "윤리적 행동은 단순히 인간이 특별한 문제들에 대해 내린 결정과 선택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역시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성품과 덕)이며, 어떤 종류의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일관된 삶을 위해 자신의 자원과 에너지를 어떻게 통합하고 조직화하는가를 포함하고 있다."[24]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올바른 개념, 신념, 성품과 덕, 삶의 방식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개념과 덕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올바른 윤리적 행동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말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 교인들의 올바른 삶과 윤리적인 행동을 위해서 바른 자신학화의 정립, 바른 개념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넷째로,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가 갖는 세계 교회와 세계 선교를 향한 위상과 역할 때문에 한국 자신학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신생교회가 자신의 신학을 개발하면서 신학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들은 해외교회에서 일어난 새로운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신학, 라틴 아메리카 신학, 인도 신학, 중국 신학 등 신학적인 사실 자체를 다루어야 한다."[25] 지금 제3세계는 신학적인 몸살을 앓고 있다. 제3세계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한국교회는 자신학화 정립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기독교적 위상은 단지 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앤드류 월스(Andrew Walls)는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라토렛(Latourette)의 3중적 측정을 사용하고 있다.[26] 그것은 기독교 직업의 확산, 그리스도를 자신의 근본으로 삼는 새로운 운동의 숫자와 강도, 그

22) 재영한인교회연합회, "디아스포라 영국: 재영한인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디아스포라 영국 논문 자료집』, 2006, 99.

23) 이만열, "해방 50년, 한국교회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제20호, 1995.7, p. 8.

24) S. Hauerwas,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4, 69.

25) P. Hiebert, 김영동 • 안영권 역,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 이해,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124-125.

26) A. Walls,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8-25.

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기독교의 효용성이다. 그런 점에서 한 국가나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를 원한다면, 신자의 수, 교회의 수, 기독교가 만든 학교나 단체, 사회 각 영역에서의 영향력, 국내 전도, 해외 선교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최근에 와서 성장세가 꺾이고 퇴보의 길로 들어선 것이 사실이다. 한 때 1200만 명의 신자가 최근에는 800만 명대로 줄었고 많은 교회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주일학교를 염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22.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통계로는 2013년 말 한국이 파송한 선교사는 169개국에 25,745명이었다. 이러한 통계들은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세계 기독교 및 선교지에 대한 위상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교사들은, 제3세계 교회는 성장하고 서구 교회가 퇴조하고 있는 선교 현실에서, 현지인들의 자신학화를 도울 수 있는 자격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자신학화는 제3세계 선교지의 자신학화에 좋은 선례와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자신학화의 원칙

일찍이 이태웅은 한국 선교신학의 시도를 제안하면서 한국선교신학의 전제를 몇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28]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서구 신학의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좀 더 한국적인 방법론을 추구해야 된다. 둘째로, 우리는 이제 서구를 의식하는 신학이 아니라, 주체성을 갖고 신학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옳고 그른 것에 관점을 둔 서구적 신학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과 진리를 축으로 하는 신학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로, 우리의 신학이 과거의 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동시에 창의적인 면을 간과하는 그 어떤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섯째로, 우리가 선교신학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황화의 틀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전제는 한국 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 자신학화를 위한 전제 내지는 원칙으로서 통찰력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그의 주장대로, 한국 자신학화를 위해서는 한국적인 방법론, 주체성을 갖춘 신학 형성, 능력과 진리를 축으로 하는 신학 체계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0년 제5차 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 보고된 광범위리서치에서는 한국형, 한국적 선교의 4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29] 첫째로, 한국형, 한국적 선교 및 선교학은 성경적이어야 한다. 둘째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로, 이론과 실천이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 넷째로, 종합화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 자신학화는 성경적, 자기성찰적, 종합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주장들을 고려하고 한국 자신학화를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원칙들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신학화는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신학의 상황화가 성경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사실상 서구신학을 포함하여 많은 제3세계 신학들이 자문화중심주의에 빠짐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프리카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음비티(John S Mbiti)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30] 무엇이 주가 되어야 하는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복음에 아무 것도 다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새로운 여정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는 걸인과도 같다. 그러므로 그 여정에서 만나는 문화로부터 옷과 주거와 음식과 음료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기초를 둔다고 하면서 시대정신이나 인본주의적 체계에 그 근거를 둘 가능성이 있다. 자신학화에서 성경에 기초를 둔다는 것은 먼저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그 메시지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탐구하고 이

27) 이것은 2012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실시한 전국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것이다.

28) 이태웅,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 그 이론과 실제,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61-63.

29) 하나님의 선교행적 찾기: '125년 한국교회와 선교, 그 벤치마킹 모델 만들기' 연구 보고서, KWMA, 2010, 14-16.

30) John S. Mbiti, "Christianity and Traditional Religions in Africa,"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59 (1970), 430-40.

해해야 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그 메시지에 대한 "역사적 진전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31]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특히 구약)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세계관과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에 대한 기록인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을 다루면서 그 궁극적 관심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있"[32]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학화 과정에서 성경은 확고부동의 기초로 자리를 잡아야만 하는 것이다.

둘째로, 예수 중심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신학자요 사회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33]는 일찍이 그의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라는 책에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성을 정의하는 하나의 가능한 모형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부터 "문화의 충족자로서의 그리스도" 사이의 두 극단에서 세 가지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문화는 서로 상충된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문화의 위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라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이다. 어쩌면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문화와 상황화에 대해 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문화에 관련된 한국 자신학화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수 중심성에 대해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독론(Christology)이 선교학(missiology)을 결정짓고 선교학이 교회론(ecclesiology)을 결정짓는다"[34]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독론이 제대로 세워져야 올바른 선교도 교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퀴스터(Volker Küster)는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상호문화적인 기독론" (Intercultural Christology)에 대해 말하고 있다.[35] 상호문화적인 기독론도 일반 기독론처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이지만, 일종의 상황 신학으로 다원주의적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럴 때 그 신학이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기독교 신앙에 어떤 특별하고 규범적인 것, 혹은 우월한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있다는 견해를 거부"[36]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 한국 자신학화는 종합적이라기보다는 통합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종합적이라는 것이 신학의 여러 분과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다루는 것을 말한다면 통합성이란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37]가 말하는 10가지 갈등 패러다임에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의미에서 통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10가지 갈등 패러다임은 선교지와 선교사의 사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양극단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 양쪽 극단들을 모두를 통합해야 하는 것이다.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많은 손실과 문제를 동시에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통합성은 부분과 전체를 통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로, 비판적 상황화를 수용해야 한다. 상황화는 불가피하게 타종교와 타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상황화라는 것이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곳의 문화와 언어에 맞는, 수용가능한 형태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상황화는 자신학화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선교사의 삶의 방식,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사역 방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히버트(P. Hiebert)는 특정한 상황에서 신학화 작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화

31)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314.

32) Hiebert, 314.

33) 니버는 신학적으로 칼 바르트(Karl Barth)와 그의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는 그는 이 책에서 기독론과 문화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1951.

34) M. Frost & A. Hirsch,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09, 40.

35) K ster, Volker, John Bowden(trans.), The Many Faces of Jesus Christ, London: SCM Press, 2001, 29-36.

36) H. Netland, "선교와 종교다원주의: 선교신학과 선교훈련에 있어서의 쟁점들", 『현대선교 11』, 선교와 종교다원주의,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7, 47.

37) 헤셀그레이브는 그의 책에서 오늘날의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10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는데 그 책의 서문을 쓴 쾨스텐버거(Andreas J. K stenberger)는 각각의 주제들의 양쪽 극단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헤셀그레이브가 주장한 열 가지 주제는, 주권과 자유의지, 제한주의와 포괄주의, 공통의 장과 적진, 전체주의와 우선주의, 성육신주의와 재현주의, 능력대결과 진리대결, 아마추어화와 프로페쇼날화, 형식과 의미, 최종점검과 예언적 경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D. Hesselgrave, Paradigms in Conflict, 10 Key Questions in Christian Missions Today, Grand Rapids: Kreges Academic & Professional, 2005, 16.

를 연구하고, 성경, 궁극적으로 성경의 진리와 도덕성을 사용해서 그 문화와 세계관을 판단하고 교정하도록 하는 비판적 상황화(critical contextualization)[38] 과정"[39]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비판적 상황화는 한 마디로 상황에 통제권을 부여하지 않고 성경에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성경이 특정한 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되고 해석되며 선포되어야하는 동시에 '상황'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40]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선교적 교회론은 비판적 상황화에 실패한 서구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오게 된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들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뉴비긴이 바라볼 때 서구인들은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끼고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를 판단했기 때문에 복음이 서구 문화에 적응되어 본래의 빛과 힘을 상실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41]

그러므로 자신학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성경 메시지와 그 전달에 있어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상황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에 타협하지 않으면서 문화에 관여하는 것"[42]으로서 문화에 속하지는 않으면서 문화와 의미 있는 관련을 맺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다.

다섯째로, 글로벌 신학(Global Theology)을 겨냥해야 한다.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교회가 제3세계 대해 갖는 위상과 책임을 인정한다면 한국 자신학화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제3세계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서구신학보다는 동양의 신학이요, 아시아 신학인 한국 신학이 그들에게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더 적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3세계의 교회를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섯째로, 위기와 변혁의 신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느 민족이나 아픈 역사와 위기, 그리고 그에 대한 극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 역사만큼 많은 위기와 좌절과 고난이 있었던 민족의 역사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민족은 잦은 외부의 침입, 민족상잔의 전쟁, 급격한 산업화와 그 부작용, 투쟁으로 얻은 민주화,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세계화 등을 모두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국 교회도 수많은 핍박과 순교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어쩌면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는 "위기와 그 극복의 공동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는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그 위기를 변혁의 기회로 삼아 변신을 거듭해 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여정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위기와 변혁"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세계의 많은 선교지들은 빈부의 격차, 자연재해, 내전, 비자발적 이주, 민주화의 투쟁, 테러로부터의 위협, 신앙적 박해 등 여러 가지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변혁의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자신학화가 그러한 "위기와 변혁"에 초점을 맞추어 신학화가 이뤄진다면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좋은 위기 극복과 변혁의 사례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일곱째로, 긍정적인 이야기 신학(Narrative Theology)을 담아야 한다.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그 자신이 대담에서 밝히고 있듯이[43] 신앙인의 삶에서 덕(virtue)과 이야기(narrative)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 사람이다. 그는 한 인간의 행동은 그 사람의 덕,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신념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윤리야말로 더 큰 신학적 작업"이라고 말함으로 신학과 윤리를

38) 이러한 "비판적 상황화"에 대해 헤셀그레이브(D. Hesselgrave)는 "신뢰성과 상관성이 있는 상황황(authentic and relevant contextualiza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D. Hesselgrave & E. Rommen, Contextualization - Meanings, Mothods, and Model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84, 197-245. 그가 말하는 "신뢰성과 상관성이 있는 상황화"는 신실성과 의미성의 균형을 갖춘 것으로 계시와 해석과 적용을 모두 염두에 둔 상황화 모델을 말한다,

39) P. Hiebert, "회심과 세계관의 변화", 현대선교 12, 선교와 세계관,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9, 35.

40) Jim Chew, 네비게이토번역팀 역, 타문화권 선교,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93, 54. 이 말은 본래는 D. A. Carson이 말한 것을 Jim Chew이 인용한 것이다.

41) 박광철, "교회는 결국 선교적이어야 한다," 『빛과 소금』 1988년 1월호, 58.

42) M. Frost & A. Hirsch, 40.

43) 이것은 기독교 사상이 2013년 8월에 스탠리 하우어워스 교수와 이메일로 인터뷰한 것을 녹취한 것으로 cafe.daum.net/SolaScroptura에서 볼 수 있다.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윤리는 어떤 원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그는, "복음이 사회적 의의를 주장하려면 기독교적 확신이 이야기 구조(narrative structure)를 지닌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44]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상실할 때 그 공동체도 상실된다"[45]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야기는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야기 신학의 긍정적인 면은 바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개념과 신념을 갖게 된다는 점을 깨우쳐 주는 것이다. 문자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문자를 갖게 된 후에 치명적인 폐해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기록한 후에 보관만하고 실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이야기로 살아가는 구전문화권 사람들은 들은 것을 암기하여 기억하고 그것을 즉시 실행하려고 한다. 그들은 암기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학은 이야기 신학을 담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75%가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미전도종족의 75%가 이야기로 사는 구전문화권이다. 이 세상의 2/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야기 형태로 의사소통하고 학습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렇다면 이야기 신학이 갖고 있는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국 자신학화가 그러한 긍정적인 이야기 신학을 담고 있다면 한국 교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의 모든 선교지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효과적인 자신학화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뤄질 때 실질적인 행함의 신학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가는 말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 경제화,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후 130년 동안을 줄기차게 앞만 보며 달려왔다. 물론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도 없었고 계속 성장만 해왔다는 것이 아니며,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당면한 문제들이 없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한국 교회는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기독교 사상 초유의 급성장과 복을 누려왔던 한국 교회는 이제 위험한 기로에 서있다. 내부적으로는 성장은 멈추어 뒷걸음을 치고 있고 그에 따라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 선교사들이 점점 재정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 교회 외부적으로는 한국 교회와 지도자들과 신자들의 윤리적 타락과 미성숙으로 사회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는 수준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한국 자신학화의 부재와 건전한 한국 기독교 문화 창조의 실패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이며 그가 삶과 일에 대해 갖고 있는 그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결국 그 자신의 변화된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교회 숫자가 적거나 교인수가 적거나 목회자가 부족하거나 헌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말씀 공부가 없거나 말씀 선포가 없거나 성경에 대해 몰라서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으로까지, 삶의 최우선순위로까지 와 있지 않은 것에 기인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자신학화에 대해 활발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사역 현장과 한국인의 문화에 기반을 둔 한국 자신학화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 문화와 상황을 반영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올바른 신학이 한국 교인들의 최우선 순위의 가치관이 될 때 한국 교회는 참다운 의미의 성장도, 성숙도,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도 얻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44) S.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28.

45) S. Hauerwas, 44.

참고 문헌

박광철, “교회는 결국 선교적이어야 한다,” 『빛과 소금』 1988년 1월호.
백낙준, 한국개신교회사(The History of the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1973.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서울: CLC, 2011.
이태웅,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 그 이론과 실제,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재영한인교회연합회, “디아스포라 영국: 재영한인교회의 정체성과 선교”, 『디아스포라 영국 논문 자료집』, 2006.
하나님의 선교행적 찾기: ‘125년 한국교회와 선교, 그 벤치마킹 모델 만들기’ 연구 보고서, KWMA, 2010.
Bosch, David, 김병길, 장훈태 역, 변화하고 있는 선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Chew, Jim, 네비게이토번역팀 역, 타문화권 선교,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 1993.
Clark, Charles A.,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evell, 1928.
Frost, Michael & Alan Hirsch, 지성근 역, 새로운 교회가 온다, 서울: IVP, 2009.
Hauerwas, Stanley,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4.
----------, 문시영 역, 교회됨, 서울: 북코리아, 2010.
Hesselgrave, David, Paradigms in Conflict, 10 Key Questions in Christian Missions Today, Grand Rapids: Kreges Academic & Professional, 2005.
---------- and E. Rommen, Contextualization - Meanings, Mothods, and Models,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0.
Hiebert, Paul,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흥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6.
----------, 김영동, 안영권 역,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7.
----------, “회심과 세계관의 변화”, 『현대선교 12』, 선교와 세계관,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9, 27-35.
Jenkins, Philip,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Kraft, Charles, Christianity in Culture, A Study in Dynamic Biblical Theologizing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Orbis Books, 2000.
Netland, Harold, “선교와 종교다원주의: 선교신학과 선교훈련에 있어서의 쟁점들”, 『현대선교 11』, 선교와 종교다원주의, 서울: 한국해외선교회출판부, 1997, 31-144.
Newbigin, Lesslie, 홍병룡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IVP, 2010.
Niebuhr,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1951.
Mbiti, John S. “Christianity and Traditional Religions in Africa,”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 59 (1970).
Simon, Herbert, Report of the Research Briefing Panel on Decision Making and Problem Solving , 1986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ublished by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Sanneh, Lamin,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New York: Orbis Books, 2005.
Sugirtharajah, R. S.(ed.), Voices From the Margin, Interpreting the Bible in the Third World, New York: Orbis Books, 2006.
Taylor, William(ed.), “From the Iguassu to the Reflective Practitioners of the Global Family of Christ.” Global Missiology for the 21st Century, Grand Rapids: Baker, 2000.
Volker, K ster, John Bowden(trans.), The Many Faces of Jesus Christ, London: SCM Press, 2001.
Walls, Andrew, The Cross-Cultural Process in Christian History, New York: Orbis Books, 2002

힌두권선교포럼

[사회]

KWMF 서남 아시아지역 회장 이병구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GMS 선교사로 인도 벵갈로에 파송받았다. 인도의 라디방시 미전도종족 개척과 벵갈로 웰컴교회 개척, 목회자 영성훈련등의 사역을 하다가, 플러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발제]

인도 선교 네트워크 대표 최은성

최은성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현재 서울은현교회 담임목사이며, Grace Hill Community Church 대표와 India Mission Network (인도선교 네트워크) 대표로 사역중이다.

힌두권 선교는 인도 중심의 힌두교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권 영역이다. 전세계 힌두교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공산권 선교와 이슬람권 선교에 비해 힌두권 선교의 중요성은 사실 그 동안 많이 부각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선교의 서진 운동에 있어 힌두권 선교는 이제 꼭 뛰어 넘어야 할 선교 과제가 되고 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 되어 있는 곳인 힌두권을 향한 선교가 세계선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들어 힌두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추방이 잦아지고 있다. 효과적으로 힌두권 선교를 모색하기 위해 힌두권에서 사역하는 시니어 선교사들과 오랫동안 인도 선교를 후원하고 동역해 온 후원교회 목사들과 함께 힌두권 선교 전략을 나누기 위하여 포럼을 마련하였다. 힌두권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관심있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발제]

전인도 선교사회 부회장 김바울

FMB. KFHI 공동파송으로 인도 무슬림 선교 17년 차인 김바울 선교사는 교회개척, 어린이 사역, 학교 사역. 지도자 훈련 등의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패널]

전인도 선교사회 증경회장 김대균

김대균 선교사는 199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어 인도의 카르나타카 주와 북인도 지역의 미전도 지역 교회개척을 목표로 사역하며 인도 '카르나타카' 주를 중심으로 30 여개의 미전도 지역 교회 개척을 하면서 2001년 '베델 뉴라이프 신학대학'을 개척하고 2011년에 '베다니 사랑의 집 고아원'을 개척하였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였고 싱가폴 트리니티 신학대학 (TH.M)을 나왔다.

선택강좌

당면한 선교현안들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1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과 한인/외국인/선교사 강사들의 선택강좌가 대회중 화/수/목 오후 3:30과 5:00에 1시간씩 진행됩니다.

1. 선교, 그 위대한 명령의 재발견

❶-1	End Bible Poverty Now	로렌 커닝햄	화 3:30	DUKE 127
❶-2	기독교, 세계 종교의 다양성을 따라	타드 존슨	화 3:30 수 3:30	DUKE 121 WYNN 130
❶-3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타드 존슨	화 5:00 수 5:00	DUKE 121 WYNN 130
❶-4	Spirituality and Missions	데이빗 로스	화 5:00	DUKE 601
❶-5	The Family in Missions	엘렌 로스	화 3:30	DUKE 603
❶-6	The Evangelization of Unreached Peoples:The Global Church Report	폴 에쉴만	화 3:30	WCAM 170
❶-7	바람직한 선교와 바람직하지 않은 선교	박기호	화/수 3:30	DUKE 119
❶-8	로잔총재와의 질문과 대답	마이클 오	목 3:30	DUKE 127
❶-9	선교의 시급한 과제 : 패러다임을 바꾸라!	호성기	화 3:30	DUKE 116
❶-10	선교의 동력 : 부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호성기	수 3:30	DUKE 116
❶-11	바벨탑과 새예루살렘 (창11:1~8)	장상길	수 3:30	DUKE 513
❶-12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가?	오정호	화 3:30	DUKE 601
❶-13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확신하라!	오정호	수 3:30	DUKE 601
❶-14	선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김혜택	화 3:30	DUKE 123
❶-15	신학교육, 다시 생각해보자! -신학교는 '학교놀이'가 아니다-	김의원	화 3:30	DUKE 621
❶-16	믿지 않은 농사꾼이 농사짓는 것은 죄인가?	김의원	수 3:30	DUKE 621
❶-17	이스라엘과 대체신학	이상남	화 3:30	HILL 238
❶-18	이스라엘 회복과 알리야 운동	이상남	수 3:30	HILL 238
❶-19	이스라엘 회복과 중보기도	이상남	수 5:00	HILL 238
❶-20	선교란 무엇인가? 왜? 어떻게?	장영호	화 3:30	DUKE 605
❶-21	선교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박시경	수 5:00	DUKE 122
❶-22	사도 바울의 영성과 선교	이상명	화 3:30	HILL 221
❶-23	현대 선교 현장의 복음제시 방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장은혜	화 3:30	DUKE 517

❶-24	How to Get from Here to There	이승현	화 3:30	HILL 225
❶-25	미전도종족의 현 현황	조장연	화 3:30	DUKE 113
❶-26	족장들의 선교전략	박우원	화 3:30	HILL 227
❶-27	이방인의 충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총체적 선교	양태철	화 3:30	DUKE 619
❶-28	Understanding How the Three Worldviews Influence Cross-Cultural Ministry	차태광	수 3:30	WLDN 227
❶-29	에스겔서의 성령역사 : 하늘이 열리다	한태진	수 3:30	WCAM 236
❶-30	유럽선교 - 웨일즈 부흥과 선교적 유업	김철중	화 3:30	WCAM 236
❶-31	21세기의 선교 VISION	인관일	화 3:30	WCAM 238
❶-32	평신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전략	유미향	목 3:30	DUKE 617
❶-33	창조과학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섭리	마바울	목 3:30	DUKE 621
❶-34	조선인 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캐나다 선교사	윤혁기	화 3:30	DUKE 618
❶-35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 교회의 관계	김기동	수 3:30	HRTG 815
❶-36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	박광재	수 5:00	HILL 221
❶-37	멤버케어를 통해 본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사의 현실과 미래전망	김진봉	화 5:00	HILL 231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❷-01	네 분야의 선교를 동시적으로(행1:8)	이동휘	화 3:30	DUKE 507
❷-02	선교하는 교회의 질적 요소	이동휘	수 3:30	DUKE 507
❷-03	선교하는 교회의 구조	이동휘	수 5:00	DUKE 507
❷-04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사43:1)	김양재	화 3:30	DUKE 520
❷-05	특별히 말씀이 임하고(겔1~4장)	김양재	수 3:30	HILL 234
❷-06	공평하신 하나님(겔5~48장)	김양재	목 3:30	DUKE 520
❷-07	주님의 부활과 강림(살전 4:13~18)	장상길	화 3:30	DUKE 513
❷-08	성공보다 선한 영향력	최복이	화 5:00	HILL 234
❷-09	성경적 가치관 리더십	최복이	수 3:30	DUKE 520
❷-10	7전8기 무릎경영	최복이	수 5:00	DUKE 520
❷-11	경제위기와 기독교의 대응: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채수일	화 3:30	DUKE 122
❷-12	기후변화와 교회의 과제	채수일	수 3:30	DUKE 122
❷-13	지역 사회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 난민사역	지수향	수 5:00	HILL 234
❷-14	성경적 청지기와 비지니스	김경일	화 3:30	DUKE 118

❷-15	선교와 부활의 복음	김종이	수 5:00	WCAM 170
❷-16	복음과 경제	김한옥	화 3:30 목 3:30	DUKE 515 DUKE 113
❷-17	아프리카 가정교회 개척 파워와 청소년 사역	정명섭	화 3:30	DUKE 617
❷-18	선교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선교의식 고취	정아브라함	화 3:30	HILL 231
❷-19	건강한 선교적 교회의 역할	최은성	화 3:30	DARL 407
❷-20	이민교회에 적합한 선교방법 - 선택과 집중	최병걸	목 3:30	DUKE 118
❷-21	이민 목회 현장 속에서의 복음과 문화	변인복	목 3:30	DUKE 605
❷-22	선교하는 교회 / Glocal 선교	이준성	화 5:00	DARL 407
❷-23	가정교회-지극히 성경적인 그리고 직극히 문화적인 그 교회	주민호	화 5:00	HILL 227
❷-24	가정교회로 세워가는 세계 선교	추기성	화 5:00	DUKE 618
❷-25	나는 위대한 선교사다	김기동	화 5:00	DUKE 515
❷-26	선교지에서의 효과적인 전도	김기동	수 3:30	DUKE 515
❷-27	바이블 동서남북	정원섭	화 5:00	DUKE 621
❷-28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겔44:9-19)	손길성	화 5:00	HILL 221
❷-29	회복 탄력성: 건강한 삶을 위한 내적 자원	김현경	화 5:00	DUKE 116
❷-30	기독교인의 상처 관리는 어떻게	박태동	화 5:00	HRTG 815
❷-31	크리스천의 이중성	김희종	목 3:30	WCAM 236
❷-32	자연치유 건강세미나	김갑선	화 5:00	DUKE 120
❷-33	한방은 수월. 양방은 복잡, 한.양방 통합보완이 최선	김광오	화 5:00	DUKE 603
❷-34	인생의 하프타임	박호근	화 5:00	DUKE 605

3. 한인디아스포라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❸-01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 (빌2:5-11)	채수일	화 5:00	DUKE 122
❸-02	선교동향과 이민교회의 선교전략	김혜택	화 5:00	DUKE 123
❸-03	Joseph's Vision 21 요셉운동을 통한 차세대 선교사 전략	나광삼	화 5:00	DUKE 513
❸-04	디아스포라 선교의 재발견	한도수	화 5:00	HILL 238
❸-05	한국형 미니국제학교 설립 및 개발	한정국	수 5:00	DARL 411
❸-06	한인 디아스포라의 협력을 통한 일본 선교	김신호	수 5:00	HILL 236
❸-07	디아스포라한인교회와 글로벌 단기선교사역	김일권	목 3:30	HILL 225

❸-08	세계선교운동과 미주 한인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황데이빗	수 3:30	WYNN 213
❸-09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	홍승영	화 5:00	DUKE 619
❸-10	북한지하성도들의 증언과 디아스포라들의 역할	박상원	화 5:00	HILL 223
❸-11	통일한국을 준비합시다	이반석	수 5:00	DUKE 619
❸-12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신창민	목 3:30	HILL 227
❸-13	왜 북한 탈북자 인권운동 시작했나!	윤요한	수 5:00	DARL 401
❸-14	기도운동 영역에서 준비하는 통일	이관우	목 3:30	DUKE 114

4. 세계는 부른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❹-01	선교지에서의 교회개척	안성원	수 3:30	DUKE 117
❹-02	아프리카 선교사의 영적 싸움	김일석	수 3:30	DUKE 603
❹-03	Changing History, Changing Geography, and how to respond?	미셜아워드	수 3:30	WLDN 228
❹-04	동북아선교의 전략	이귀범	수 3:30	DARL 407
❹-05	한국내 태국인 다문화 사역	이용웅	수 3:30	DUKE 619
❹-06	소수민족의 주 민족 선교동원	오영철	수 3:30	HILL 231
❹-07	일본 선교 어디까지?	정순엽	화 5:00	WCAM 170
❹-08	터키 현대이슬람운동의 상황화 연구	조용성	수 3:30	DUKE 106
❹-09	중동사역자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자질은?	이영한	수 3:30	WCAM 170
❹-10	무슬림 지역에서 어떻게 제자 훈련과 신학교 사역을 하여야 하는가?	이준재	수 3:30	DUKE 121
❹-11	IS 출현과 이스라엘 회복 이슈	정형남	수 3:30	DUKE 113
❹-12	이스라엘, 그 구속사의 시계(지금은 예루살렘 시대)	송만석	수 3:30	DARL 405
❹-13	갈등의 핵 예루살렘과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김인식	수 3:30	WCAM 238
❹-14	IS 극단주의 이슬람과 시리아 난민 상황 및 사역	김교회	수 3:30	DUKE 618
❹-15	세계 선교와 함께 가는 유대인 선교	송하경	목 3:30	HILL 221
❹-16	Israel: The Missing Link in the World Missions	김황신	수 3:30	WLDN 229
❹-17	디아스포라 타민족 선교를 통해 건강하게	이돈하	수 3:30	DUKE 605
❹-18	다민족 대학인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송종록	수 3:30	DUKE 617
❹-19	"케이스 연구법"을 통한 한인 1세와 2세의 타문화 및 선교훈련의 효용성	허동현	목 3:30	WCAM 238

5. 선교사 그 삶과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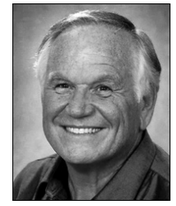
❺-1	Notes for Pioneering new Ministries	론 스미스	수 3:30	DARL 411
❺-2	Let My Heart Be Broken	마릴리 피어스 던커	수 3:30 목 3:30	DUKE 127 WYNN 2
❺-3	선교와 성경 이야기 사역	김연수	화 5:00	DUKE 507
❺-4	4/14 선교전략 (1) 화살선교론	허연행	화 3:30	DUKE 114
❺-5	4/14 선교전략 (2) What	허연행	화 5:00	DUKE 114
❺-6	4/14 선교전략 (3) Why	허연행	수 3:30	DUKE 114
❺-7	4/14 선교전략 (4) How	허연행	수 5:00	DUKE 114
❺-8	세계 선교환경과 창의적 선교전략	조용중	수 3:30	HILL 236
❺-9	건강한 사역의 이양	김종국	수 3:30	HILL 221
❺-10	삶을 통한 선교(사망에서 생명으로)	박수영	수 3:30	HILL 227
❺-11	전도와 교육을 위한 생동감 넘치는 OBJECT LESSONS	여병현	수 3:30	HILL 225
❺-12	선교지의 미래를 바꾸는 빵육(0-6세)세 유아교육	신소피아	목 3:30	HILL 231
❺-13	교회학교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이옥희	수 3:30	DARL 401
❺-14	교육선교와 동남의 선교 교두보 제주	좌영진	수 3:30	WCAM 236
❺-15	과테말라 공립학교의 기적 : 도덕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한재홍	수 3:30	DARL 403
❺-16	팀 / 네트워크의 중요성	이현석	목 3:30	DUKE 603
❺-17	Introducing Come Summer Mission School	Joel Lee	수 3:30	WLDN 230
❺-18	평신도전문인 선교동원의 구조(인프라)의 개혁을 시도하라	김정한	수 3:30	DUKE 120
❺-19	BAM 바른 이해와 적용	이근식	수 5:00	DUKE 515
❺-20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문인 선교와 BAM	최규남	수 3:30	DUKE 517
❺-21	Mission & NGO	김다니엘	목 3:30	DARL 403
❺-22	선교적 NGO	정승호	목 3:30	DARL 407
❺-23	물 복음? / 싸고 좋은 정수기를 이용한 복음 전하기	권종승	수 5:00	DUKE 601
❺-24	WEC의 선교동력과 미전도종족내에서의 교회개척	한명구	수 5:00	DARL 405
❺-25	선교지 기도학교 성경 기도교육의 필요성	김정복	목 3:30	HILL 227
❺-26	21세기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방안	주헌국	수 3:30	DARL 407
❺-27	복음 미디어를 이용한 효과적인 단기 선교 - 제목변경 요청	강요엘	수 3:30	WYNN 11
❺-28	Distance Education 기술을 활용한 신학교 온라인 강의시스템 구축	구자혁	화 3:30	DARL 403
❺-29	선교사 자녀 학교인 여수룬 기독학교	지용주	화 3:30	DUKE 120
❺-30	선교사 멤버케어와 실천방법	장인관	수 3:30	DUKE 118

❺-31	선교사의 연장 교육과 올바른 선택	김에녹	수 5:00	DUKE 605
❺-32	선교사 위기관리	김진대	수 5:00	HILL 223
❺-33	설레는 은퇴 두려운 은퇴	천경태	수 5:00	DUKE 603
❺-34	대물림 - 삼대가 함께하는 아프리카 선교	최승업	수 5:00	DUKE 113
❺-35	크리스천 영어동화 교육 "스페셜미"	김미성	목 3:30	DUKE 618
❺-36	미디어와 선교	최승목	목 3:30	DUKE 517

1. 선교, 그 위대한 명령의 재발견

❶-1 End Bible Poverty Now

로렌 커닝햄 / YWAM(Youth With A Mission)총재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인 로렌 커닝햄은 1960부터 지난 반세기동안 예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정예부대로 훈련시켜 선교단체로는 가장 많은 4,000명 이상의 장단기 선교사를 세계복음화 최전방에 배치시킨 막강한 YWAM(Youth With A Mission)을 창립했으며, 또한 하와이 코나와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110개국의 250개 캠퍼스에 700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보유한 『열방대학』(University of the Nations)을 세워 섬기고 있다.

❶-2 기독교, 세계 종교의 다양성을 따라

타드 존슨 /Gordon-Conwell University

고든 컨웰 신학교에서 세계기독교학과 부교수로, 또 세계기독교센터(CSGC)의 디렉터로 있는 그는 데이빗 바렛 박사와 함께 「세계기독교대백과사전 」을 편찬, 모든 전세계 모든 종족, 언어, 나라, 도시의 기독교와 타종교 현황의 전체 통계의 연구 권위자로 이 자료는 ABC, BBC,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서 널리 활용 및 인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로잔운동에서 새로운 전략, 미전도종족선교, 세계종교에 대한 「글로벌 컨버세이션 」을 통해 활발히 동참하고 있다.

"Following Christ in global religious diversity" - The world is becoming more religiously diverse every year. What do you know about other religions? How do you express your Christian faith to people of other religions? Do you practice the Christian virtue of hospitality? How do you distinguish between evangelism and friendship in relating to others? This workshop covers these topics in light of the latest research on global religions. Dr. Johnson draws on his book The World's Religions in Figures (Wiley-Blackwell) and his annual Yearbook of International Religious Demography series (Brill).

세계는 매년 더 종교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당신은 다른 종교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다른 종교의 사람들 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 합니까? 당신은 환대의 기독교의 미덕을 실천 하는가?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 관한 전도와 우정을 구별 합니까? 이 워크샵 은 세계 종교에 대한 최신 연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룹니다 . 존슨 박사 는 그의 책 "세계의 종교와 국제 종교 인구 시리즈"의 연례 연감을 참조하여 강의합니다.

❶-3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

타드 존슨 /Gordon-Conwell University

"Doing Evangelism and Social Justice" - The world needs the gospel and the world needs justice. How do we do both evangelism and social justice? This workshop examines the biblical basis for evangelism and social action, the history of Christian development and current efforts around the world. The workshop offers some solutions to the dilemma of an either/or approach to global evangelism and development. The workshop draws on a semester long course entitled "NGOs and Development in Mission" that Dr.Johnson teaches at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세계는 복음을 필요로 하고, 세상은 정의 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두 전도와 사회 정의 를 해야합니까? 이 워크샵 은 전도와 사회적 행동 , 기독교 발전과 세계의 현재 노력 의 역사 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검사합니다. 워크숍은 여러 방면의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글로벌 전도와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워크숍은 타드존슨 박사가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교에 있어서 시민 단체와 개발"이라는 과목의 요약입니다.

❶-4 Spirituality and Missions

데이빗 로스 / 안디옥커넥션

1961년 한국에 파송된 미장로교 선교사로 초교파적 청년사역을 시작, 오늘날 예수전도단이라 불리는 단체의 출발이 되었다. 이후 사역의 지평을 넓혀 1981년 YWAM 국제적 단체와 하나가 되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미주 한인 젊은이들을 세계선교를 위해 훈련시키는 안디옥커넥션을 시작하였고 특별히 한반도의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 중보하며 남과 북이 함께 변화되어 새로운 하나의 코리아를 만들자는 '뉴코리아(New Korea)' 운동을 펼치며 한국과 해외에서 통일관련 캠프와 훈련학교,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During my 55 years of mission work, the three most important foundations that have enabled me to continue are: First, the Holy Spirit. He is the Spirit of missions, and only as we receive His power and walk in His ways are we able to be partners with Jesus Christ in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Second, being a part of the community of "those who fear the Lord," (Malachi 3:16) Third, Bible meditation and study. Meditation and study are not opposites; instead, Bible meditation "sits on the shoulders" of godly Bible study.

Missionaries are called to proclaim the Gospel of the Kingdom to the nation to which they are called. In order to do this, we must know the Word of God, so that the Gospel we proclaim is clear and accurate. But we also must proclaim what God is doing in our own lives, how we meet Him personally, how we walk daily with Jesus in intimacy and obedience. To do this, the missionary must be a meditator.

The Gospel begins in action: God acted by sending His Son into the world for the salvation of the world. It then leads to meditation; the greatest meditation we as missionaries can do is to meditate on the depths of the finished work of Christ,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We must then allow God to speak to us daily as we open the Scriptures. We desire not only to hear what God is saying to the world; we also want to hear what God is saying to me personally.

Joshua conquered the Promised Land, enabling God's people to settle there. But before he became a conqueror, he had to become a meditator (Joshua 1:8). We do not conquer nations militarily today, but we must spiritually conquer the forces of evil that imprison the nations to which we are called. We can do this only by meditating on the Word of God. Meditation leads to action, the action of obeying God, the action of loving the people God has given to us, the action of working for justice in an unjust world. From the action of God to save the world to the meditation on God's act in Christ, and then to the action of becoming His instruments and partners to extend the Kingdom of God throughout the world. This is our task. Nothing can stop the Word of God.

❶-5 The Family in Missions

엘렌 로스 / 안디옥커넥션

앨렌 로스 (Ellen Ross) 앨렌 로스를 아는 사람들을 그녀를 빛나는 여인, 평화의 사람으로 표현한다. 엘렌 로스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목회적인 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희년사역(Jubilee Ministry)이라는 활동을 펼치고 있으다. 1961년부터 오대원 목사(David Ross)의 부인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으며 인류학 박사이기도 한 그녀는 일종의"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자녀 셋은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였다

❶-6 Taking your first steps to reach an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폴 애쉴맨 / CRU 부총재

1,000개의 언어로 번역, 236개국에서 6억번 이상 상영된 '예수영화'를 창안하고 지난 30여년간 디렉터로 섬겨온 폴 애쉴만 박사는 1966년 C.C.C.에 헌신하여 현재 부총재로 사역하고 있다. 미전도종족에 관한 최고의 전략가 중 하나인 그는 「Finishing the Task Movement」를 통해 전세계 639개 미전도종족을 향한 최전방 개척선교를 펼치며 국제오랄네트워크를 통해 성경이 없는 3천여 언어를 위한 성경녹음사역을 추진중이며 로잔운동 략그룹의 의장직을 맡기도 했다.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global church has seen the greatest movement of missionaries ever into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s. The reports from throughout the world all talk about unprecedented response to the gospel, the rapid establishment and multiplication of house churches, and the incredible multiplication of bi-vocational pastors and untiring volunteers. In this session we will be talking about the remaining task of reaching into the still untouched groups of Asia, and beyond.

We have heard of unreached people groups for many years. Over the last ten years, we have been concentrating on those that have never been presented with the gospel. In the last years, nearly 2,000 of these groups have received their first missionaries and over 80,000 churches have been started. We will also be talking about the workers that God is raising up through partnerships between churches and marketplace donors partnering with effective, local evangelists. Three out of four organizations that pledge to send workers to various groups have not yet fulfilled their commitment. However, the good news is that 80% of the workers who have moved into the people group have come from the same country as the unengaged people groups. They have proven to be more effective because of understanding both the languages and the culture. And, they are not planning to leave. They are already home.

❶-7 바람직한 선교와 바람직하지 않은 선교

박기호 / 풀러신학교 글로벌커넥션 디렉터/ 교수

1981년 예장합동(GMS)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파송된 후 15년간 사역하며 원주민 교회들을 개척하여 목회하였고 여러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필리핀장로회신학대학을 설립, 총장과 교수로 사역했다. 또한 아시아선교협회(IAM)와 아시아선교학회(ASM)를 설립하여 아시아 선교학자들과 동역하며 아시아 선교에 관한 연구, 책자발행, 컨퍼런스, 교육 사역을 했다. 선교사로서 사역 후 1996년에 풀러 선교대학원 아시아 선교학 부교수로 부임하였으며 현재 글로벌커넥션 디렉터와 다문화연구학과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a missionary God) 하나님의 통치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 그들과 동역하기도 하신다. 예수께서 직접 온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을 뿐 아니라 12제자를 세워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8-20).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성취해야 한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으로 세계 복음화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대위임령이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근대선교운동은 1792년 윌리엄 케리의 주도 아래 구라파교회가 시작하여, 북미주교회가 참여하였고 지금은 비서구권교회들이 참여하는 전 세계교회의 사역이 되었다.

지금까지 시행된 선교 가운데 바람직한 선교도 있었고,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도 있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른 선교는 건강한 선교이고, 인간의 선교, 곧 하나님을 제쳐놓고 대망을 품고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인간 중심의 선교는 건강하지 못한 선교이다. 건강한 선교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인 선교지도자들과 미국인 선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국인 선교사들과는 2014년 5월 3일(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파사데나 소재 빠네라 (Panera) 라에서, 그리고 미국인 선교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로 지적되는 것들이 공통적이었다.

1.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 (DON'Ts in Mission)

첫째,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한 사역이 아닌 자기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 (Mission for the Expeansion of One's Own Denomination or Missions, Not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둘째, 공동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하는 선교 (Independent Mission, Not Cooperative and Partnership Mission Between Missionaries Called for the Same Purpose)

셋째,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사역하게 하지 않고,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일하거나 선교사들이 직접하는 선교 (Direct Mission by Missionaries or Mission Dependent on Hired National Workers, Not Mission by Developed National Workers)

넷째,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외국 돈으로 하는 선교 (Mission by Foreign Funds, Not by Local Resources)

다섯째, 전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이 아닌 예배당을 지어주는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Project-Oriened Mission Such As Building Sanctuaries, Not Mission for the Recounciatation with God Through Evangelism)

여섯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선교 (Mission by Human Means and Methods, Not by Mission the Guidance and Empowerment of the Holy Spirit)

일곱째,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하는 선교 (Mission in Fields Missionaries Want, Not Mission in Fields That Need Missionaries)

여덟번째, 약함 가운데의 선교가 아니라, 풍요속에서의 힘에 의한 선교 (Mission From the Position of Strength, Not Mission From Weakness)

아홉번째, 쌍방의 선교가 아니라, 일방적인 선교 (One-Way Mission, Not Mission by Both Sides)

열번째,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한 선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선교/ 주의 뜻에 따른 선교사 아닌 소견에 옳은대로 하는 선교 (Mission By Volunteers, Not Mission By the Called People / Mission by One's Own Accord, Not Mission by the Will of the Lord)

열 한번째, 현지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 만 삼는 선교 (Mission That Considers Natives Only as Target for Mission, Not Mission That Considers Natives as Missionary Forces)

열 두번째,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 하는 선교 (Mission That Functions as Sending-Agencies Only, Not Mission that Becomes a Missional Church)

열 세번째, 섬기는 자세로 하지 않고,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적으로 하는 선교 (Paternalistic Mission with Conquerors' Attitude, Not Mission with Servant Attitude).

열 네번째, 선교사들을 제쳐놓고, 교회가 직접하는 선교. (Church-Direct Mission, Not Mission Through Missionaries)

열 다섯번째,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돌보지 않는 선교 (Mission That Sends Missionaries without Taking Care of Them)

2. 바람직한 선교(DOs in Mission)

첫째, 하나님의 나라 도래, 곧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위한 선교 (Mission for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Miss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Rule of God)

오늘날 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해 사역하기 보다, 자기들을 파송한 교단 교회의 전통을 따른 교회들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 자기 교단 교회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체의 흐름은 아름답고, 질서있고, 영광스러웠던 세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세계를 추하고, 무질서하고, 혼동 속에 빠뜨린 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회복을 통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창조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 영혼구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건강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선교이다.

"죄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독교인들이 불러온 이 찬송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등한히 해왔는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통치 회복과 하나님의 뜻 구현이 선교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협력과 동반자 선교 (Cooperative and Partnership Mission)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해야 하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사역하므로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서로 다른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허고,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주고 양보하고 희생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이야기 하나 그 협력과 동반자 사역은 자기 중심의 사역이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이 아니다.

셋째, 현지인 지도자 개발을 우선 순위로 삼는 선교 (Mission That Development of the Native Leaders is the Priority).

예수님은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친히 온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것들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세계선교를 위하여제자들을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우선 순위로 삼으셨다 (마 9:35-38; 막 3:14-19).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봉급을 주며 하는 선교는 건강치 못한 선교이다. 현지인들을 제쳐놓고 외국인 선교사가 직접 모든 일들을 다 하거나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봉급을 주며 일을 하게 하지 말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일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선교이다. 선교사는 일시적으로 선교지에 머무르나 현지인들은 영구히 거기 머무르기 때문이다.

넷째, 토착교회 설립과 육성의 선교 (Planting and Development of Indigenous Church)

선교사는 외국의 자원을 끌어들여 선교하려 하지 말고, 선교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여 하는 선교를 추구하여여 한다. 오늘날 선교사들의 실수는 외국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므로 현지교회들에게 의존심을 길러주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을 중요한 선교사역으로 생각을 한다. 현지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현지교회들을 자치, 자립, 자전하는 토착교회들로 세워야 한다. 참으로 토착화되지 않은 교회는 그 민족의 교회라 말할 수 없다. 랄프 윈터는 서양 선교사들이 범한 두 가지 큰 실수는 복음을 서구와 시킨 것과 지나친 돌봄으로 현지인들에게 의존심을 길러주는 것이라 하였다. 복음의 탈 서구화와 자립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선교사들이 해야할 일이다.

다섯째,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선교 (Mission That Carries Both Evangelistic and Social Responsibility).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 사고 건물 짓고 각종프로그램을 운용하나, 막상 전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등한히 하고 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일할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성경학교나 신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들을 세워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과테말라 알몰롱가가 그 한 예이다. 알몰롱가는 영적 변화와 함께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변화까지 일어났다.

여섯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 (Mission Guided and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3년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였지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성령)을 기다리라"(행 1:4)고 명하셨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말씀하셨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도들은 그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육과 훈련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의존하는 선교를 하였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오직 세 안식일, 곧 3주간만 머물며 사역을 하였던 교회인데

역동적인 선교교회가 되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만 들릴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살전 1:4-8)

일곱번째,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하는 선교 (Mission That Works in the Fields Missionaries are Badly Needed).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가서 선교하기 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사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역에 종사하여야 한다.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랄프 윈터 (Ralph D. Winter) 박사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삶았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일들이 있는 한 결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하게될 일은 하지 말라."(Never do anything others can do or will do, when there are things to be done that others can't do or won't) 독특하게 지음받고 독특하게 부름받고 독특한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모방하지 말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을 하라는 말일 것이다. "히브리서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If he were one earth, he would not be a priest, for there are already priests who offer the gifts prescribed by the law). 이것은 선교사들이 자기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독특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번째, 약함 가운데의 선교 (Mission From the Position of Weakness)

선교사들은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선교하려는 유혹을 받곤 한다. 과거 구라파와 북미주 교회의 실수는 부요 속에서 힘의 선교를 한 것이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오늘날 선교의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총과 칼로 힘에 의한 선교를 힘썼던 선교 중 하나인 십자군 전쟁은 오늘날 회교권 선교에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마 26:53).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Moses was educated in all the wisdom of the Egyptians and was powerful in speech and action) (god 7:22). 그가 나이 40세에 막강한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하려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이 80이 되어 매우 약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고린도 후서 12장 7-10절에 보면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지만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 고백하였다. 건강한 선교는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하는 선교이다.

아홉번째, 쌍방의 선교: 주고 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선교 (Both Directional Mission: Give and Take, Love and Being Loved, and Teach and Being Taught).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일방적인 선교를 하였다. 땅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고 받고,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쌍방의 선교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데 하라"(빌 2:2-4).

열번째, 부르심과 은사에 따른 선교 (Mission According to the Calling and Gifts)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자로서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열매가 없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은사들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받아 사역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You did not choose me, but O chose you and appointed you so that you might go and bear fruit-- fruit that will last and so that whatever you ask in my name the Father will give).

열 한번째, 선교지 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선교 (Mission That Builds Native Churches into Missionary-Sending Churches).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선교지 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우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 그러나 현지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들로 세우지 않고서는 세계복음화의 과업이 달성될 수 없다.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은 초기 서양선교사들의 공로가 크다. 초기 한국 주재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비전을 갖게 하고, 그들을 자문하고, 그들을 선교지와 연결시켜 주고, 협력하였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세워줘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선교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현지교회들에게 선교정신을 심어주고 사교사역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하고 훈련시켜 파송하고 연결시켜 주는 일은 참 잘하는 일이다.

열 두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함 (Be a Missional Church, Not Just Trying to Send Missionaries)

구라파 교회와 북미주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들이 되지 못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들이 된 것이다. 영국의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비긴(L. Newbigin) 인도선교사로 35년간 활동하고 귀국 한 후 영국이 더 이상 기독교사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세속사회가 된 것에 충격을 받고 선교사의 시각으로 영국과 유럽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더 이 상 지리적 공간적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이 세상 전체가 선교현장이며 먼 해외지역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을 교회의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활 동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로 존재 하며 활동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열 세번째, 섬기는 자세로 하는 선교 (Mission with Servant Attitude).

과거 서구 선교는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적인 선교를 하였다. 근래 한국선교사들도 이런 정복자의 자세로 선교하는 인상이 짙다.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한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지도자 자리를 탐하고 자기의 임으로 주관하는 자세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신다.

열 네번째, 전문적인 선교단체들을 통한 선교 (Mission Through Professional Mission Agencies).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현장의 선교사들이나 전문적인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선교하지 않고 개교회가 직접 선교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물론 선교단체도 단체 나름이다. 그러나 선교단체들을 제쳐놓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 감당한 지역교회의 예는 없다. 그들은 많은 물적 자원들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열 다섯번째, 선교사를 돌보고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선교 (Mission That Cares Missionaries and Develops Their Leadership).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해 놓고 그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다. 그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돌보지 않아 많은 분들이 탈진상태에 있고 건강이 망가져 있다.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없다. 물론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하는 일도 없다. 선교사들이 역량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재배치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나가는 말 (Conclusion)

지금까지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와 바람직한 선교에 대하여 말씀 드렸다. 바람직하지 못한 선교는 선교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건강한 선교에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선교사들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으며, 사도들은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교사들은 바람직한 선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지양하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한 선교를 추구할 것.

둘째, 공동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다른 교단 및 기관 파송 선교사들과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할 것.

셋째,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봉급을 주고 하는 사역을 지양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사역하게 할 것.

넷째, 외국 돈으로 하는 선교를 지양하고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선교를 할 것.

다섯째, 예배당을 지어주는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사역을 지양하고.전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힘쓸 것.

여섯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선교를 지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를 할 것.

일곱째, 선교사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선교할 것.

여덟번째, 풍요속에서의 세상적인 힘으로 하는 선교를 지양하고 약함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선교를 할 것.

아홉번 째, 일방적인 선교를 지양하고 현지인들과 주고 받으며 쌍방의 선교를 할 것.

열번 째, 자원봉사자들로 일하지 말고 소명과 은사를 따라 사역할 것.

열 한번째, 현지교들을 선교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선교의 역군으로 세울 것.

열 두번째, 선교하는 교회만 되지 말고 선교적 교회가 될 것.

열 세번째, 정복자의 자세로 사역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역할 것.

열 네번 째, 교회가 직접 선교하려 하지말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하여 할 것.

열 다섯번째,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방치하지 말고 돌보고 지도력을 개발해 주는 일에 힘쓸 것.

기업들이 연구개발부를 두고 끊임없이 시장을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 하듯이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교회는 성령의 인도 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끊임 없이 선교지를 연구하고 선교 전략을 개발하며 선교 지도자들을 개발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❶-8 로잔총재와의 질문과 대답 시간

마이클 오 / 로잔선교운동 총재

빌리 그래함 등 영적 거성들의 유산이 담긴 국제로잔운동의 총재로 임명되면서 국제 기독교 기관 가운데 한인이 맡은 가장 권위 있는 고위직으로 한국교회와 선교계의 위상과 열매, 그리고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심축이 제3세계와 새로운 세대로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클 오 목사는 한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펜실베니아대학과 트리니티 신학교,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 선교사로 2004년부터 일본 나고야에 그리스도성서대학을 세우고 일본의 젊은 세대 기독교인들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Question/Answer Time on Global Missions with the Global Executive Director / CEO of the Lausanne Movement. This will include about half looking at the major trends and challenges for global mission and half an opportunity to ask questions.

❶-9 '선교의 시급한 과제 : 패러다임을 바꾸라!' (마15:21-28)

호성기 /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방황하다 24세에 예수님을 만나 선교의 비전을 받고 영국 런던국제신학연구원에서 선교훈련을 받은 후 28세에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미국교회에서 복음전도자로, 순회부흥사로 집회를 인도하였다. 이후 조지아 임마누엘대학, 프린스턴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사명을 받아 필라안디옥교회를 개척하였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신 선교를 위해 PGM(세계전문인선교회)의 국제대표로, KIMNET 대표, KWMC 공동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강력한 복음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다.

선교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내가 살고있는 곳을 떠나 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선교지 이기에 멀리 가기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지역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선교지에 가셨을 때 그 외국의 선교지에서 발견된 문제는 가정의 문제였고,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바로 '가정이요 자녀'입니다. 가정과 자녀라는 주제가 기독교교육에서만 다루어지는 토픽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과 자녀와 특별히 대학교들이 이 시대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삽니다.

❶-10 '선교의 동력 : 부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행2:29-36)

호성기 / 필라안디옥교회 담임

선교의 동력은 돈도, 방법도,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선교의 동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와 능력'(authority and power)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복음의 전파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실패하였던 120여명의 실패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는자들이 받아야 할 성령의 능력'(요 7:39)을 받아 모두 다 순교하기까지 능력있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❶-11 바벨탑과 새예루살렘 (창11:1~8)

장상길 / 송도주사랑교회 담임

인천 송도 신도시내의 대표적인 교회로 지역사회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는 주사랑교회를 개척하여 섬겨온 장상길 목사는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 안양대학 신학대학원, 하와이 인터네셔날 칼리지를 나왔으며 해양경찰청 경목, 기아대책본부 본회이사 등을 맡고 있다.

❶-12 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가?

오정호 / 새로남교회 담임

대전 및 중부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남교회의 담임이다. 오정호 목사는 4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부친 오상진 목사(가야제일교회), 형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와 더불어 삼부자가 목회자이다. 내수동교회와 사랑의교회 사역을 거치면서 박희천 목사로부터 말씀사역과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사역을 정통성 있게 이어받았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를 나왔고 현재 월드비전 이사,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한국 법인이사, 교회갱신협의회 공동대표, 제자훈련목회자네트워크 전국대표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 프롤로그 (Prologue)
- 한국교회의 현실 직시할 때(Context)
- 국민들의 기독교회에 대한 선호도를 알고 있다면(Future)
-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면(Next Generation)
- 자운대 국군의무학교 교정 "살려야 한다!"의 도전(Challenge)
- 새로남교회의 현장스토리(Story Maker)

1. 왜 제자훈련을?
2. 제자훈련의 유익?
3. 어떻게 제자훈련을?

• 에필로그 (Epilogue)
- (성숙지향적 공동체)에 대한 열정
- (생명력 있는 공동체)에 대한 거룩한 기대
- (영향력 있는 공동체)에 대한 실천

❶-13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확신하라! (행 13:1-3)

오정호 / 새로남교회 담임

대전 및 중부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남교회의 담임이다. 오정호 목사는 4대째 믿음의 가정으로 부친 오상진 목사(가야제일교회), 형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와 더불어 삼부자가 목회자이다. 내수동교회와 사랑의교회 사역을 거치면서 박희천 목사로부터 말씀사역과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사역을 정통성 있게 이어받았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풀러신학교를 나왔고 현재 월드비전 이사, 크리스챠니티 투데이 한국 법인이사, 교회갱신협의회 공동대표, 제자훈련목회자네트워크 전국대표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1. 왜 지역교회가 중요한가?

1)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1절)
2) 성령님의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이다.(2절)
3) 공적 파송의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3절)

• 건강한 교회생활의 유익을 경험하라

1) (정상적인 예배생활)을 제공한다.
2) (훈련과 책임)의 기회를 제공한다.
3) (믿음의 동료들)을 얻는 공동체로 이끈다.
4)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는다.
5) 건강한 교회생활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직결된다.

2. 담임목회자와의 목회관(목회철학)에 대한 동의와 확신

3. 평신도 지도자의 성숙과 힘써야 할 분야

1) 하나님 중심(신앙의 기본기 확립)
2) 말씀 중심(진리에 대한 확신 + 헌신)
3) 교회 중심(교회 세움이로서의 자세확립과 봉사하는 직분자상 확립)
4) 영적지도자 중심(영적 리더십과의 생산적이고 축복된 관계형성)
5) 가정 중심(가정윤리 확립, 가정을 통한 복음의 은혜 확산)

4. 자기객관성에 대한 통찰

1) 비평에 대한 수용과 경청의 태도
2) 시너지 효과를 살리라
3) 나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의 사고정립

• 균형 잡힌 교회는 성숙한 성도를 세우고 성숙한 성도는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❶-14 선교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김혜택 / 뉴욕충신교회 담임

타문화권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 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ster를 매년 년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선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며,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 현장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며 다음세대를 선교적으로 세울 수 있다. 많은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복을 누리게 된다. 선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2) 청지기는 자신의 소유권 포기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❶-15 신학교육, 다시 생각해보자! -신학교는 '학교놀이'가 아니다-

김의원 / AIIS 총장, 구약학교수

김의원 박사는 Westminster 신학교를 졸업하고, New York University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4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로 부임해 만 23년간, 2007년부터 8년간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였고 현재 AT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교육의 목표는 '정보전달'(Information)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형성'(Formation)에 있다. 많은 신학교들이 자칫 정보만을 전달하는 '학교놀이'로 그치는 것 같다. 정보전달 교육은 그 중심에 배우는 학생이 있기 보다는 배운 바를 전달하려는 교사가 있다. 그들은 학생들로 실천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운 바를 주입시키려는 데 있다.

이런 문제점을 빌 하이빌스가 이상한 동물학교를 잘 지적하였다.

"옛날 옛적에 어떤 동물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하자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학교를 세웠다. 그들은 달리기, 오르기, 수영, 날기 등의 이수 과정을 택했다. 이수해야 할 과정들을 보다 쉽게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동물들이 그 과정을 맡았다. 오리는 수영에 능했다. 교관보다 더 잘했다. 그러나 날아가기는 간신히 이수하는데 그쳤고 달리기는 형편이 없었다. 그는 방과 후에 달리기 연습에 주력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그의 발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따라서 수

❶-16 믿지 않은 농사꾼이 농사짓는 것은 죄인가?

김의원 / AIIS 총장, 구약학교수

김의원 박사는 Westminster 신학교를 졸업하고, New York University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1984년 35세의 젊은 나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교수로 부임해 만 23년간, 2007년부터 8년간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였고 현재 ATEA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영역들을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된 답변은 두 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세상을 영/육의 이원론으로 구분한데 있고, 다른 하나는 "죄"의 근본개념을 '관계'가 아닌 '행위' 개념으로 이해한데서 비롯된다.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져야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창1:26) 인간은 창조주를 '마땅히'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창조의도를 이 땅에 펼쳐 가는 '종교명령'을 가진 피조물이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구를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독특한 '문화명령'을 받았다(창1:27-28).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 종교명령을 가진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신 것이다. 상기의 질문에 온전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문화명령을 창조구도와 방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타락된 데 있다. 1) 인간의 범죄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종교명령)이다. 종교명령의 '방향성'을 상실한 데 있는 것이지, 인간과 세상 사이의 창조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일하고 있는 개미의 안테나를 떼어버리면, 개미는 일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다. 2) 안테나가 없어져 방향성을 상실하였지만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에 주어진 '창조의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문화명령). 타락 이후 방향성을 잃은 인간들은 세상 속에서 다스리고 경작하고 그 속에서 문화를 계발하고 발전시켜왔다. 하나님과의 방향이 잘못 되다보니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지 않다. 오늘날 환경파괴와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들도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방향성'을 상실한데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만물을 회복하러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엡 2:10)이자, '새 창조물'(고전 5:17)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방향에서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섬김의 문화명령이 주어져야 한다.

❶-17 이스라엘과 대체신학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담임

이상남 목사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과 서울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LA에 소재한 세계등대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면서 왕의 복음 선교 센터(The King's Gospel Institute) 원장과 이스라엘 회복선교회 (Israel Restration Mission)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복음과 종교", "주와 동행하는 생활(왕의 복음)", "복음의 핵심" 외 여러권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0-13절]

1. 대체신학의 정의 - 대체신학이란 무엇인가?
2. 대체신학의 기원- (1) 성경적인 기원, (2) 역사적인 기원
3. 대체신학의 기반이 된 신학 사상 - ① 져스틴 ② 털틀리안 ③ 오리겐 ④ 요한 크리소스톰 ⑤ 어거스틴 ⑥ 말틴 루터 ⑦ 칼빈
4. 대체신학에 대한 성서적인 올바른 이해 〈창 22:17-18, 시 105:8-11, 사 54:6-8, 렘 32:37-40, 신 29:2-4, 롬 11:25-26, 롬 11:1절〉

〈결론〉 "주여! 열방선교를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 선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❶-18 이스라엘 회복과 알리야 운동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담임

이상남 목사는 성결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과 서울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후,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미국 LA에 소재한 세계등대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면서 왕의 복음 선교 센터(The King's Gospel Institute) 원장과 이스라엘 회복선교회 (Israel Restration Mission)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인생의 본질과 급선무", "복음과 종교", "주와 동행하는 생활(왕의 복음)", "복음의 핵심" 외 여러권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32-34절]

1.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성경적인 예언과 성취
(1)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태복음 24:32-34절〉
(2)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의 영적 환상〈겔 37:1-3절〉

2. 이스라엘 고토 귀환의 알리야 운동에 대한 성경 예언 〈사 43:5-6, 겔 39:25, 렘 31:8-9, 신 30:3-5, 겔 39:27-28절〉
3. 이스라엘 고토 귀환(알리야)의 현재 전 세계 현황

〈결론〉 "주여! 열방선교를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 선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❶-19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이상남 / 세계등대교회 담임

[시편 122장 6-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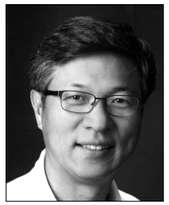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복음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다.

(1) 우리 이방의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2)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물 려 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 우리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준 사람들 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였기 때문이다.
(4)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 이스 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시적이나마 완악하게 하셨고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그들을 대신 희생시키셨기 때문이다.
(5)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 성도들 보다 이스라엘 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중보기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곧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과거 역사 속에서 유대 인들로부터 실제적으로 엄청난 사랑과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결론〉 "주여! 열방선교를 넘어서 이스라엘 회복 선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❶-20 선교란 무엇인가? 왜? 어떻게?

장영호 / 러시아선교사 / GP선교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GP 선교회 한국 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으며, 총신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시고 TEDS에서 신학석사와 RTS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선교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하는 강의입니다."
(1) 한국 교회의 현황 진단 및 미래적 전망
(2)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이론적/실천적 정의)
(3)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선교의 소극적/적극적 이유)
(4)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교의 효과적 실천 방법)

❶-21 선교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박시경 / GMS선교훈련원장

13년간 러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다. 5년간 합동 총회 선교훈련원장으로 600명의 선교후보자들을 훈련시켜 전세계로 파송했고, 현재 87년 전통의 미국 그레이스신학대학원에서 유일한 한국인교수로 재직하며 '교차문화 의사소통'과 '선교역사'를 강의하고 있다. 현재는 미주 GMS선교훈련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선교의 핵심은 복음의 진리를 세계관이 다른 타문화권 사람들에게 저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통(communicate)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전문 기술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한국 교계에서는 선교사 훈련에서 필수적인 문화인류학(Cultural Anthropology), 교차문화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같은 분야는 매우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있다. 그것은 "선교는 영적전쟁"이라는 전제하에, "전투에서 승리는 실전경험을 통해 얻어진다"라는 매우 안이한 전략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초훈련 없이 전쟁터에 투입되는 군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중한다면 한국교회가 치루고 있는 선교의 낭비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윌로우뱅크 보고서(Willowbank Report)는 많은 설교자들 (목사와 선교사)이 수 천년전 성경의 저자들과 현재의 설교의 청중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문화적 간격에 신중한 고려없이 곧바로 본문해석과 적용에 들어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별히 문화적 상황이 선교사 자신과 판이하게 다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매우 신중하고 현지인들의 문화적 틀에 맞는 방법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메세지를 듣는 현지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삶에 적용은 선교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저들은 외형적으로는 기독교인 모습을 갖게 되지만, 내면적으로는 자신들의 전통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혼합종교 (Syncretism)의 결과를 낳게된다. 지금 한국교계와 한국 선교계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❶-22 사도 바울의 영성과 선교

이상명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는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iv를 마치고,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Ph.D. in New Testament Studies 학위를 받고, 현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바울의 서신 전체에 면면히 흐르는 4막으로 구성된 구원 드라마가 거룩성 회복의 드라마며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논증하면서, 바울이 지향한 선교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자기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임을 소개합니다.

❶-23 현대 선교 현장의 복음제시 방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장은혜 / 에티오피아 선교사

Ph. D in Intercultural Studie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Ethiopian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선교학 교수, 1994-현재, GMS-SIM 소속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재임중이다.

1. 서론: 선교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2. 에티오피아 선교현장 Case Study
Research Question 1: 어떤 복음의 메세지를 듣고 개신교로 개종을 했을까?
Research Question 2: 복음 메세지를 듣지 못하게 방해한 요소는 무엇일까?

3. 선교현장에서 복음증거 방법에 대한 문제점 : 선교사 중심의 복음제시 방법
1) 선교사의 Literacy based Christian witness Lausanne Committee on World Evangelization(LCWE) 2004 Grant Lovejoy (2005, 5). Making Disciples of Oral Learners. Richmond. ION/LCWE. Alex Smith (2008), 선교사들의 기존 복음제시 방법들 Charles Madinger (2013), 선교사들의 무의식적인 Textuality Bias
2) 복음증거 대상자의 Learning Preference를 알지 못한 채로 복음을 전한다. Oral Communicator vs. Print Communicator

4. 선교현장에서 효과적인 복음 제시법은 무엇일까?
1) 복음증거 대상자 중심의 복음제시법 : Charles Kraft (1979),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2) Heart language
3) Develop Culturally appropriate communication means (선교지 문화에 적합한 Communication 방법)

❶-24 How to Get from Here to There: Global Partnership for Community **이승현** / ITS 총장

James S. Lee, Ph.D. is the president of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Prior to assuming the presidency, Dr. Lee was resident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ITS. He was previously the dean of academic affairs at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He earned the Ph.D. in Old Testament from Union Presbyterian Seminary. He received the M.Div. from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and the B.A. in Philosophy from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urrently, he is a regular preacher at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El Monte.

No community is an island. In order for churches to bear witness to the Gospel that transforms a community, global partnership is essential. Churches in the Global South are experiencing tremendous growth and vitality. They can offer churches in the Global North insights on mission and evangelism. Churches in the Global North in return can provide those in the Global South with resources to fight poverty, infectious disease, illiteracy, and environmental damage. This session will offer an overview of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of global partnership. We will also hear testimonies and practical ways on how to get involved in partnership from those of the Global South and North.

❶-25 미전도종족의 현 현황 **조장연** / 세계모든종족선교회

조장연목사(Rev. Dr. Jang Yun Cho, Ph.d),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North Park Theological Seminary in Chicago, M.Div, M.A.C.E.,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n Louisville, Ph.D in Christian Missions. 서부아프리카 카메룬선교사 역임, 아시아복음선교회 한국대표역임, 서울신학대학 겸임교수 역임, 호서대학교 선교학강사 역임,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 강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강사, 그리스도대학교 선교학 강사,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강사, 세계모든종족족선교회 설립자및 대표

1. 미전도종족선교의 정의(the Definition of Unreached People Missions)
2. 미전도종족선교의 필요성 및 당위성(The Necessity of Unreached People Missions)
3. 종교적 측면의 미전도종족선교(Religious perspectives of the mission)
4. 지정학적 측면의 미전도종족선교(Geo-political perspectives of the missions)
5. 사회경제적 측면의 미전도종족선교(Socio-Economic perspectives of the missions)
6. 이주적 관점의 미전도종족선교(Migrational perspectives of the missions)

결론(Conclusion): 미전도종족중심의 선교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무섭고, 끝으로 마지막 남아 있는 선교과업의 대상들이다. 세상은 경제적 빈곤(Economic poverty) 때문에 인류에 대한 자비를 베풀고 있지만 교회는 경제적인 빈곤(Economic poverty)과 더불어 영적 빈곤(Spiritual poverty)지역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미전도종족지역의 영혼들을 향한 우선적인 선교사역이(Priority mission) 필요하며, 온 교회가, 온 세상이, 온 힘을 다해 최우선적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수많은 재한 해외선교사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교사연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같이 익히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중요 선교사들을 선별하는데 1차적 복음의 전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했는가를 종종 기준으로 삼았다. 때문에 조선민족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선교사들의 중요도를 정하는데 강조점을 두지 못하기도 했다. 이것이 이후 선교사 배척운동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❶-26 족장들의 선교전략 **박우원**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 교수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Faith Theological Seminary와 Northwest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졸업하고 현재 메릴랜드한우리침례교회 담임목사와 The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있다.

1. 아브라함의 오순절(창 12:-3) * 창대 전략 * 번성 전략 - 창 17:2-3 * 창 21:1 사라 전략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 고전 15:45

2. 이삭의 오순절 (창 26:1-5) * 나타나 - 라아 전략 * 가라사대 - 오마르 전략 (갈 4:29)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3. 야곱의 오순절 * 편만 전략 * 축복 전략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서 동서 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 28:12-15)

4. 요셉의 오순절 (신 33:16)
1) 비젼 전략 (창 37:9)
2)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창 41:38)
3) 신 33:16 가시떨기나무 전략

❶-27 이방인의 충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총체적 선교

양태철 / GMI 선교팀장

양태철 목사는 24년 간 은혜한인교회의 사역자(선교사 9년, 선교팀장 15년, G.M.I. 미주 본부장)로 사역 중이다. 미국 GMU 〈은혜선교신학대학(원)〉 및 GMI 선교지 13곳 신학교와 초교파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있다 (최종학위는 목회선교학 박사). GMI는 현재 60개국 에 294명의 선교사 (파송 80%)가 사역 중에 있으며, 총재는 김광신 원로 목사가 맡고 있으며, 부총재는 한기홍 담임 목사가 맡고 있다. 양태철 목사는 2013년, 6개월 간 영국 옥스포드 선교연구소에서 방문학자 신분으로, GMI 선교를 선교학적으로 연구하였으며, 2014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책으로 출판되었다 (Called Out for Witness: The Missionary Journey of Grace Korean Church). 연락처 : danieltaiyang@gmail.com (1-714-553-5800)

들어가는 말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의 때를 선교의 마무리 (주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때)로 표현하신 구절로 볼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들 수 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숫자는 2015년 중반의 통계에 의하면, 238개국, 16,400 족속, 73억 2천만 명, 6,919 방언으로 볼 수 있다 (2016년5월19일의 www.worldometers.info 의 통계적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74억 2천만 명 이상으로 나타나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오직 주님만이 아심을 믿는다). 선교적인 통계로 보면, 전 세계의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전체인구 중에서 20% 미만으로 보고 있으며, 80% 이상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로 보고 있다.

1. 이방인의 충만 수를 위한 선교
2.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

나가는 말

총체적(總體的) 선교의 의미로는 ①복음주의(evangelical)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ecumenical) 선교신학의 종합적인 의미, ②직접선교와 간접선교의 종합적인 선교, ③전인적, 통전적, 성육신적 의미의 선교, ④'이방인의 충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종합적 선교, ⑤양방향(구심적 선교, centripetal mission & 원심적 선교, centrifugal mission)적인 선교 등으로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아버지의 꿈'이자,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원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방인의 충만 수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생명을 다 하여 사명을, 총체적인 선교의 관점과 전략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스위스의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에밀 부르너 (Emil Bruner)가 말한 "불꽃은 타오르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고백이, 모든 교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❶-28 Understanding How the Three Worldviews Influence Cross-Cultural Ministry

차태광 / Crescent Project

Rev. James Cha was born in Pusan, Korea, and immigrated to the US when he was eight years old. He studied electrical engineering at Cornell University, where, in 1983 he committed his life to be Christ's ambassador to the Muslims. He worked 10 years as an electrical engineer before receiving MA in Biblical Exposition at Columbia Biblical Seminary in South Carolina. He and his family served 10 years in Central Asia (Uzbekistan and Kyrgyzstan) as church planting missionaries with Pioneers, and are now back in the US reaching out to the Muslims here. He is the DC Area Coordinator for Crescent Project. He is happily married to Faith, and they have three children: Joniel, Josiah and Karis.

There are 3 predominant worldviews that form the basis of every culture: shame & honor, guilt & innocence, and fear & power. Each culture has varying degrees of each worldview shaping or influencing it. There is not one correct or "biblical" worldview. All 3 are present in the world from the time of its creation (Gen 3). While cultures in the West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guilt & innocence worldview, Muslims, Hindus and Buddhists (and Chinese atheists) come from cultures that are heavily influenced by the shame & honor worldview. Cross-cultural evangelists need to be aware of the different worldviews and learn how to leverage "open doors" that are present in each culture to introduce the Gospel in effective and fruitful ways.

❶-29 에스겔서의 성령역사 : 하늘이 열리다

한태진 / 산호세대성장로교회

시카고 루터교신학대학원 성서신학부 및 시카고대학교 신학부 연합학위과정에서 구약성서신학으로 Ph. D.학위를 받았다. 성경을 이야기성서비평(Narrative Criticism)으로 연구했다. 시카고 맥코믹신학대학원 한미목회원 연구간사와 교수로 성서신학을 가르쳤다. 2007년부터 현재 북가주 실리콘벨리지역 한복판에 위치한 대성장로교회(PCUSA)에서 목회하고 있다. 산호세지역목회자들을 위해서 이야기설교와 성경공부크리닉을 개설해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현재 미국 북가주교회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면서 지역교회의 부흥과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가정공동체성경공부), 룻기와 에스더서 연구:위기 속에 타오른 믿음의 불꽃, 사무엘상하연구: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가복음연구: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 전도서연구:인생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이 있다.

1. 에스겔서는 구약/신약 성경의 중심이다.
2. 에스겔서는 예선서와 묵시서의 연결다리이다.
3. 에스겔서의 개요
4.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 유다왕국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적 전개
5. 예언자 에스겔의 개인적 배경과 특징
6. 에스겔의 소명(겔 1-3장)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겔 1:1
7. 에스겔 신학의 독특성: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의 이유

❶-30 유럽선교 - 웨일즈 부흥과 선교적 유업

김철중 / 영국 Nations 선교회

김철중 목사는 영국 Nations 선교회 소속으로 영국 웨일즈 선교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고, Maryl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에서 2004년에 중국으로 파송되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 난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영국 웨일즈에서 Frontline Nations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창세기 40:8(저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Tell me your dreams)
요셉의 꿈이 죽고 요셉의 다른 사람의 꿈을 들어주는 자리에 감.

1866 :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1866년 신미양요,
1904 : 웨일즈의 대부흥,
1906 : 프랑스 평양 대부흥,
그리고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꿈이 죽고 다시 사는 것 (Redeem)

웨일즈의 꿈 : 부흥의 죽음 : 이제 새로운 사람들의 꿈이 웨일즈에서 펼쳐지기 시작함.
결국 더 많은 삶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창세기 50:20)
웨일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유업의 결론
(한국과 남미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을 통한 새로운 선교의 운동)

❶-31 21세기의 선교 vision

인관일 / GMI파송 미얀마선교사

인관일 선교사는 1970년 서강대학교 상대 무역학과를 졸업하였고, 1999년에 해외한인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 (M.Div.), Th.M. 수료한후 2000년에 해외한인장로회 (KPCA) 총회파송으로 미얀마 선교사로 사역하던중 2002년에 은혜한인교회(GMI)에서 재파송하였다. 2008년 코헨신학교 신학대학원 명예박사와 2010년 코헨신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미얀마 두란노 아시아 신학대학원 총장과 나욧(한미) 신학대학원 명예총장으로 사역중이다.

1. 성령의 존재와 삼위일체
2. 성령의 역할
3.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관계
4. 말씀과 기도와 사역의 관계
5. 성령과 사역의 관계
6. 예수의 사역과 성령의 관계
7. 우리의 사역과 Vision

❶-32 평신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

유미향 / 한국 SALT & LIGHT 기독학교 교사

유미향 선교사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6년간 선교사역을 하였고, 보츠와나 Kgodiso Day Care Center 원장을 했으며, 현재 한국 Salt & Light Christian Int'l School 교사로 사역중이다.

에스겔 33: 7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 찌어다.(파수꾼: 성벽이나 망대에서 주변의 동정을 살피며 경계하는 사람, 파수병, 보초, 경계병.)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에게 경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의 중대함을 깨달아 이미 택하여 선교지로 보내심을 입은 많은 선교사들은 때에 맞춰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선교지의 특성상 복음 전하는 발이 묶일 때도 있을 것이며 더 박차를 가해 나아갈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기를 원하시며 때로는 연약한 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강한 자를 세우기도 하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사람들이 분류상 정해 놓은 '평신도'를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평신도가 부는 나팔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 한 나약하고 평범한 평신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❶-33 창조과학을 통하여 본 하나님의 섭리

마바울 / 퀸즈성령감리교회 담임

퀸즈성령강림교회 담임 마바울 목사는 미국의 영적회복을 위하여 차대세 미국을 이끌어갈 잠재적 리더자들에게 영적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있다. Williams College (Massachusetts)에서 부흥집회를 시작으로 Johns Hopkins University (Maryland) 및 타 대학교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호남대를 나와 Bethesda University in Anaheim, Chesapeake Seminary(M.DIV)를 졸업하였다.

과학이라는 정의를 정리해 보면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관찰 되어지고 실험되어져 나온 결과를 넓은 의미로 학(學)이라고 부르고 좁은 의미로는 자연과학이라고 부른다.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었던 기독계에 혼란이 찾아온 것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과학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온 1859년 종의 기원의 강력한 증거라고 진화론을 들고 나온 찰스 다윈(Charles R. Darwin)의 허황된 이론이 복음을 방해하고 그 이론이 이미 과학계에서 불완전한 이론으로 결론 되어졌으며 미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더이상 가르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여파가 아직도 곳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약화 시키는 불신앙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 문명의 발달로 과학 이라는 것을 맹신 하는 이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전능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릴것인가? 아직도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기에는 이 세대가 너무 패악하지 않은가? 로마서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역설적으로 이제 오히려 과학을 맹신하는 이들에게 만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 창조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물에 살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것이 보다 효과 적이지 않을까....

소제목 : 늙은 지구 젊은 지구 ? / 젊은 지구의 지질학적 증거 / 바이킹 후예들이 놀란 노아의 방주 기술
인류는 한종족으로 부터 출발했다 / 자연을 통하여 본 창조의 신비 / 옐로우 스톤 공원의 석화는 가짜?

❶-34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캐나다 선교사

윤혁기 / 내한캐나다전시관 Vision Fellowship

윤혁기 장로는 토론토 서머나 장로 교회 선교 위원장으로 N국의 탁아소, 유치원을 섬기고 있고 현재 현 비젼 휄로쉽 대표로 섬기고 있다.

130여년전 게일 선교사를 비롯한 180여명의 캐나다 선교사들이 가장 낙후되고 복음의 볼모지였던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워서 근대적인 의료기술을 전파하였고 학교를 세워 오늘의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근대적 기초를 닦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제 2의 선교대국으로, G20의 일원으로 선진국들과도 반자적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세기가 지난 이후 이분들 의 헌신이 역사의 기억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비전 휄로쉽은 한국에 뿌리 내렸던 내한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신앙을 재발견하고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2011년 5월에 토론토에 내한 캐나다선교사 상설 전시관을 개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흔적, 182명의 내한 선교사 중 50여명의 선교사님 들의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❶-35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지역 교회의 관계

김기동 / 세리토스충만교회

김기동 목사는 연세대, 서울신학대학원, 동경성서학원, 일본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전 일본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세리토스충만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직전OC교협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남가주지역 공동준비위원회 상임준비위원장으로 사역중이다.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및 제15차 한인세계선교사대회를 위한 남가주지역 공동준비위원회의보고

서론 : 성공적인 선교대회및 선교사대회가 될려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지역교회에 대한 이해와 협력과 준비과정에 있어서 많은 대화와 전략을 협의하면서 준비할 때에 효과적인 대회가 될수 있게 된다. 또한 대회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대회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본론:
1. 대회가 열리게 되는 지역교회의 이해와 연구와 협력이 중요하다.
2. 지역교회 공동준비위원회가 대회가 추구하는 비젼과 사명을 이해함이 필요하다.
3. 지역교회 준비위원회가 본 대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4. 2016년 남가주지역 공동준비위원회의 4차 모임에 대한 진행상황과 보고
5. 선교대회와 선교사대회를 위한 지역교회준비위원회와 대회본부에 대한 방향제시

결론 : 선교대회와 선교사대회는 하나의 대회로 끝마치는 집회가 아니다.지역교회와 공동으로 세계선교에 대해서 협력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대회본부와 지역준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전략을 펼나아갈 때에 성공적인 선교대회와 선교사대회로 발전하여 나아갈 것이다.

❶-36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 (민 26:55~56)

박광재 /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원장

박광재목사는 대한신학교,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미주총신대학대학원(D.D)을 졸업하고 48년 전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속에서 재발견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를 목회사역과 교단 정치와 선교사역과 개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왕권이 직접 행사되는 신본.신주.신정정치를 회복하고 세속화된 교회와 총회와 국가를 거룩한 교회와 총회와 국가로 개혁하며 교회공동체를 비롯한 인류공동체의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룩하는 평화의 사역인 "거룩한 제사장 사역" (벧전2:5)과 "왕 같은 제사장 사역" (벧전2:9)을 전개하고 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16:33)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언18:18)

〈서론〉 왜 ?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인가 ?
〈본론〉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와 사역을 제정하신 목적 ?

1, 선교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적용사례 발표
2, 목회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적용사례 발표
3, 교단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적용사례 발표
4, 개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사례 발표

〈결론〉 말틴루터에 의하여 재발견된 '이신득의'가 중세교회와 국가를 개혁했듯이 한국교회가 재 발견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가 한국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선교사역지의 교회와 국가를 거룩한 교회와 국가로 개혁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제도이며 성경의 원안이다.

❶-37 멤버케어를 통해 본 한국교회와 한국선교사의 현실과 미래전망

김진봉 / WEC 선교사

김진봉 동 목사는 WEC International 한국본부 소속 선교사로서 및 GMS 소속선교사(1994년부터)로 기니에서 풀라니종족 사역을 두 텀 마친 후 OMSC에서 국제교회관계대표로 섬기고 있다.

한국교회 침체는 한국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한국 선교사 3만명 시대는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선교사는 어떠한 전략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2. 세계를 품은 기독교인의 생활

❷-1 네 분야의 선교를 동시적으로 (행1:8)

이동휘 / 바울선교회 대표

1983년 미군 창고구조물로 전주안디옥교회(일명 깡통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위해 불편하게 살자"라며 일평생 선교와 구제를 위해 온 몸을 다 바친 충성된 종은 교회재정의 70% 이상을 세계선교에 사용하며 그 흔한 자가용 하나 없이 검소와 절제의 삶을 살아왔다. 또한 단독교회의 틀을 벗어나 초교파적 선교단체인 『바울선교회』를 만들어 현재 80여개국 32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선교의 큰 획을 긋기도 했다. 23년 사역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목사의 자녀 4명도 선교사로 바쳤다. 현재 『바울선교회』를 총괄 지휘하며 선교집회 등을 통해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에 주력한다.

• 예루살렘...중심도시. 내가 사는 도시나 주
대전에 살면 대전이 예루살렘 선교지다. 방콕에 살면 방콕선교사다.
그 지역을 복음의 땅으로 만드는 지역 성시 화에 관심 가져야 한다.

• 온 유대...나라 개념이다.
한국인은 한국 복음화에, 미국에 살면 미국선교사로 사명 가지 고 자기 나라 곳곳에 교회 세우고 국가 복음화의 사명 가진다.

• 사마리아...북 이스라엘 수도로 주전 721년에 앗수르에 패망하여 각 나라 사람들을 이주 시켜 혼혈이 되고 그 후 남 유다에 멸시받았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차원의 특수 분야의 선교다.
소외된 사람들과 장애자들 및 가난과 고통 속 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선교다.

• 땅 끝...세계선교, 해외선교를 말한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사로 훈련 받아 나가기도 하고 교회는 보내고 돕고 관리하는 전체적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
세계 그리스도인의 통계는 33%로 나오나 거듭난 교인은 10% 내외로 본다.

❷-2 선교하는 교회의 질적요소 (행11:19-30)

이동휘 / 바울선교회 대표

1. 예수님을 닮은 교회 11:29,30
2. 환난 중에 세운교회 11:19
3.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13:1
4. 기도와 금식하는 교회 13:2
5.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 13:3
6. 은혜로운 교회 11:23
7. 지도자가 훌륭한 교회 11:24
8. 부흥하는 교회 11:,21, 24, 26
9. 선교하는 교회 13:4
10. 도와주는 교회 11:29,30

❷-3 선교하는 교회의 구조

이동휘 / 바울선교회 대표

1. 교회 내 모든 기관을 자립시켰다. -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찬양대, 유치부까지 자체 운영토록 했다.
2. 교회재정의 70% 정도를 선교와 구제로 사용했다.
3. 남녀 전도회(신도회, 선교회)를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이름으로 명명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선교회(1948. 5-8월생, 여), 브라질선교회(1963. 7-12월생, 남), 현재 176개의 선교회가 있고 기도기관은 현재 220개 나라로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운영한다.
4. 해외선교 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교의 최종의결 기관으로 집행한다.
5. 주일학교는 4년마다 선교교재로 분반공부를 실시한다(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6. 선교사로 헌신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다.
• *선교 헌신자모임(청년대학 및 일반) *기드온(고등부) *바나바(중등부) *디모데클럽 (초등부) • *폴키즈 클럽(유년부)
7. 교회내 모든 상을 없앴다.
8. 각 기관은 재정의 60%정도를 교회에 선교비로 헌금하여 전체 선교비에 힘이 되게 한다.
9. 교회에 일 년 예산을 세우지 않고(결산만 있다) 선교 지향적 교회체제로 전환했다.
10. 24시간 중보기도 팀이 주야로 기도를 올린다(24년째).
11. 권리는 포기하고 의무만 강조했다. '불편하게 살자.'를 강조했다
12. 아직도 콘센트 건물에서(비행기 격납고) 예배드리며 절약 생활한다.
13. 결혼식 축하품이나 축의금이 없이 직분 구별 없이 예배 상(만 오천 원)으로 통일했다.

❷-4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43:1)

김양재 / 우리들교회 담임, 큐티선교회 대표

고난이 축복임을 역설하며, 실제적이고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조명하는 '큐티'를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 온 김양재 목사는 큐티선교회와 우리들교회를 개척하여 여성 목사로는 드물게 1만여 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으며 CTS, CBS 등 방송과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등 14권의 저서를 통해서 가정회복과 말씀대로 믿고 누리는 운동에 헌신하고 있다. 서울대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백석대 신학대학원을 나와 서울예고와 총신대에서 강사를 역임하였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옥 같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 회개로 돌이키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1절).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막힌 사건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의 모든 사건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바로 알도록 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기에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두렵습니다.

둘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창 3:16-17, 골 3:18-19)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구조가 다른데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 재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여자를 꼬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고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에 대해 벌로 하나님은 남편에게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을, 아내에게는 남편 복종과 자녀 낳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남자의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여자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만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과 자녀 때문에 깨지고 남자는 백수가 되어야 깨집니다. 따라서 내가 깨어 있으려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참는 것은 오래 못 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위한 참음이 아니면 다 병이 됩니다.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면 거룩을 목적으로 두면 행복은 따라옵니다. 생살의 반을 잘라내고 반을 채워 넣어야 하니 이 땅의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는 결혼인 것입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1절)
성경은 장차 받을 환난의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음판을 걸어가는데 넘어질 때 "앗 넘어지네!" 하고 손이 얼른 뒤로 가면 손은 부러져도 온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넘어지면 완전히 대형사고가 납니다. "앗 넘어지네!"가 말씀묵상, 큐티이고 예방주사입니다.

넷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1절)
인생은 지명 당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차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최고의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인생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❷-5 특별히 말씀이 임하고 (겔1~4장)

김양재 / 우리들교회 담임, 큐티선교회 대표

-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한다.
-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에스겔1장)
- 성경을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듣고 조금씩 씹어 먹어야 한다. (에스겔3장)
- 말씀은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거룩을 위해 고난을 주신다.
- 고난을 나를 위한 훈련으로 기쁘게 받아들일 때, 메신저가 메시지가 된다. (에스겔3-4장)

❷-6 공평하신 하나님 (겔5~48장)

김양재 / 우리들교회 담임, 큐티선교회 대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늘 깨어있어야 한다. 날마다 개인적인 적용을 하며 나아갈 때, 다음 단계인 교회의 적용도 할 수 있게 된다. (에스겔8장) 하나님은 100% 옳으시다는 것을 믿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을 본다. (에스겔 18장) 내 고통을 열어 보이며 말씀을 의지한다.

- 내 고통을 열어 보인다. (에스겔 24장) : 고등부 교사, 평신도 큐티모임에서의 사역, 코스타 강사
-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먼저 구한다 : 평신도와 목회자의 갈림길에서 (요한복음 21:3)
- 말씀에 꽂혀 영혼 구원에 온 힘을 쏟다 :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면, 만 명을 섬길 수 있는 지경을 열어주신다.
- QTM (큐티선교회) 창립 (마태복음 21:2-3)
- 천국 성전을 짓다 (에스겔 25:1-3) : 한국 최초의 큐티 교회 개척
- 우리들 교회 창립예배 드리는 날 주신 말씀 (에스겔 43장)
- 상처가 약재료가 되는 교회

❷-7 주님의 부활과 강림 (살전 4:13~18)

장상길 / 송도주사랑교회 담임

인천 송도 신도시내의 대표적인 교회로 지역사회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는 주사랑교회를 개척하여 섬겨온 장상길 목사는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 안양대학 신학대학원, 하와이 인터네셔날 칼리지를 나왔으며 해양경찰청 경목, 기아대책본부 본회이사 등을 맡고 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3~18)

❷-8 성공보다 선한 영향력

최복이 / 본월드미션 대표이사, 시인

1965년 충남 청양에서 출생히여 1987년 충남대 국문과 졸업후, 1994년 아동문학평론 신인상을 수상한 후, 2003년 남편과 함께 (주)본죽을 창업하고 기업이익을 통하여 국내외 각종 선교를 하며, (재)본월드미션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기독교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2006년 현대시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고독한 날의 사색, 미루나무 길, 속 깊은 편지, 길 위에 위안 등의 다수의 시집을 발간하였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목표를 세운 최복이 시인. 본죽가맹점주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본브랜드연구소 소장

네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마 5;16)

1. 크리스찬의 선한 영향력의 확장
2. 본죽의 6대 핵심 가치 - 기독교적 가치
3. 성공보다 사명
4. 기업이 필요한 인재 - 인성 지성 (가치관 역량)
5. 가치관 리더십 예 - 리더와 기업 조직 가치공유 ,실행
6. 성공보다 선한 영향력

❷-9 성경적 가치관 리더십

최복이 / 본월드미션 대표이사, 시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 73;28)

1. 가치관의 중요성

1) 가치관이 이끄는 삶 - 세계관, 인생관
2) 가치관 정립 삶의 방향결정
3) 가치관은 모든 선택의 기준

2. 리더의 가치관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의 가치관 - 사명, 리더십
2) 리더의 가치관 - 기업의 방향 구성원 영향
3) 조직의 가치관 - 세상국가와 민족에 영향

3. 가치관 리더십의 사례 - 본죽 6대 핵심가치

경쟁보다 협력 / 성공보다 사명
개인보다 우리 / 계약보다 약속이윤보다 가치 / 빨리보다 멀리

- 3대 사명(생명을 살리는 기업, 사명이 이끄는 기업)
  본기업 - 본이되는 기업 - 축복의 통로
  본사랑 - 이웃 사랑 실천 - 사랑의 통로
  본미션 - 하나님 사랑 실천 - 복음의 통로
  예 - 가치관 워크샵, 사명 워크샵,
- 감사캠페인 - 기독교적 문화. 정신. 확산
- 본사랑 NGO, 본월드미션 - 구제와 선교, 기업사명

4. 기독교적 가치관 → 가치관 리더십 →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 확장

❷-10 7전 8기 무릎 경영

최복이 / 본월드미션 대표이사, 시인

기도 ;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 73;28) / 섬김 ; 주께 하듯 하라 (엡 5;22)

자기 경영 - 인성 지성 영성
가정 경영 - 예배 사랑 감사
기업 경영 - 가치 문화 영향력
- 복음적 인생 경영 - 제자의 길

[3대 사명]
- 생명을 살리는 기업 - 사명이 이끄는 기업

본기업 - 본이되는 기업 -축복의 통로
본사랑 - 이웃 사랑 실천 -사랑의 통로
본미션 - 하나님 사랑 실천-복음의 통로

1. 창업 간증 스토리 - 고난이 유익이라 - 역경의 열매 본죽
2. 본죽 성공 노하우 - 약함이 곧 강함이라 - 주께 하듯 하라
3. 불만제로 사태 ;성경적 위기 관리 - 자고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4. 글로벌 한식 브랜드 -때가 차매 /주가 일하시네 / 성령이 이끌게 하라
5. 가치 경영 - 기독교적 가치 경영 맵
- 설립이념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 6대 핵심 가치 ; 경쟁보다 협력 / 성공보다 사명

개인보다 우리 / 계약보다 약속
이윤보다 가치 / 빨리보다 멀리
성령충만 - 순종 - 하나님이 하십니다

❷-11 경제위기와 기독교의 대응: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딤전6:6-10)

채수일 / 경동교회 담임

한신대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박사(선교학)를 받고 함부르크대학 선교아카데미 연구실장을 역임, 귀국후 한국신학연구소장, 국제인권센터소장, 한신대학교총장 재임중이며 지구온난화 사막화와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인구폭발, 산성비, 핵겨울, 기아 질병등에 대한 지구재생프로젝트인 유엔지구환경회의 한국대표로 활약하며 한국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선교학회등 13개 학회와 전국 40여 신학대학 및 기독교대학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학회의 회장이다.

1. 들어가는 말.- 2017년이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독일은 물론 전 세계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내 년에는 더 큰 행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500주년이라는 시간적 의미만이 아니라, 오늘 개신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상상력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내재해 있다고 할 것이다. 500년 전 종교개혁의 본질과 신학적 도전을 재조명하는 작업 가운데, 오늘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하려고 하는 주제의 하나는 경제문제이다. 500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을 추동한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제문제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루터의 사상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2. 16세기 유럽과 독일의 경제상황
3.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대응 - 1) 고리대금업에 대한 비판, 2) 독점 비판
4. 평가

❷-12 기후변화와 교회의 과제

채수일 / 경동교회 담임

1. 들어가는 말

2. 기후변화와 그 예상되는 결과들, 기후변화란 무엇인가?

1)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대략 섭씨 20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섭씨 20도라는 지구 평균온도는 적어도 100만년 동안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2) 기후변화의 결과인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40년 전 5,257억 달러에 비해 거의 3배나 높아진 1조 5,800억 달러로 집계된다.
3) 세계 빙상의 20%를 차지하는 그린란드의 빙상이 바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사라지고 있다.
4) 2015년이 되면 기후변화로 인해 밀 생산량이 30%, 쌀 생산량이 15% 감속하고 가격은 각각 194%, 12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 기후변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 이산화탄소
2) 열대 우림의 파괴
3) 비행기구름의 역할

4. 기후변화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1) 소비적 삶의 전환:
2) 기술과학적 변화:
3) 정치적 변화
4) 전쟁 없애기

5.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1) 세계교회협의회(WCC)는 1975년 나이로비 세계대회 이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2) 선 맥도나는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의 도덕원칙이었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기후변화 대응방식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❷-13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 난민사역

지수향 / 시라큐스한인교회

현재 시라큐스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중인 지수향 전도사는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상담학을 전공하였고, US Center for World Mission에서 동남부 코디네이터이며, InterVarsity Staff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로 사역중이다.

미국은 열방이 들어와 있는 선교지입니다. 특별히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로부터 많은 난민들이 미국에 와 있으며, 시라큐스는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보아즈 프로젝트(Boaz Project)는 모압 여인 룻이 난민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녀를 영접하고 먹이고 돌보았던 보아스처럼(룻 2:12,14) 미국으로 들어와 또다른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가는 난민들에게 컴퓨터와 Tutoring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라큐스 한인교회의 난민 사역입니다. 봄학기, 가을학기에 각 10주씩 20여명의 난민학생들에게 computer 수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여름방학 기간에는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VBS인 "Lodi Summer Camp"를 통해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100여명의 난민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열방에게,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에서 온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이 보아즈 사역의 열매로 미국에 나와있는 25개 나라(Afghanistan, Bhutan, Brunei, Burundi, China, Congo, Haiti, Iraq, Liberia, Mozambique, Myanmar, Nepal, Niger, Nigeria, North Korea, Palau, Puerto Rico, Rwanda, Senegal, Sierra Leone, Somalia, Tanzania, Thailand, Turkey, Vietnam) 등지에서 온 860여명의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Martin Luther King Jr. Unsung Hero Award (2008, 2015)와 YWCA에서 수여하는 Academy of Diversity Achiever's Award를 받게 하셨습니다(신 14:29).

미국이 선교지임을 생각해볼 때 한인 디아스포라로서의 미주 한인교회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미국 내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난민 사역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아즈 프로젝트 난민 사역과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열매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미주의 한인교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❷-14 성경적 청지기와 비지니스

김경일 / KWMC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본부장, 미주선교사

김경일 박사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M. Div)하고 인디아나 그레이스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D. Miss) 학위를 받았으며, 가이오 세계선교회 총무로 7년간 사역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14년간 사역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6년 사역한 후, 현재는 미주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KWMC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본부장과 G & E 연구소 미주 대표로 사역중이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정한 부자가 없을까? 분명 성경은 "은과 금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학2:8)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속자이며, 세상에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신8:18) 라고 했는데…, 현재 한국 교회는 물질의 풍부가 곧 축복이라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만 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물질적 부를 마음껏 누려도 좋다는 청부론,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부(富)는 영적 생활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성 프란시스와 같이 '가난이 곧 영성'이라 주장하는 청빈론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 즉 재물관 의식의 심각한 왜곡과 혼돈이라 할 수있다.

1. 성경적 축복관 (祝福觀 Biblical blessing tube)
2. 샤머니즘 기복론 (祈福論 Shamanism's blessing-biased faith)
3. 청빈론 (淸貧論 Clean Poverty Theory)
4. 청부론 (淸富論 Clean Wealth Theory)
5. 성경적 청지기론 (廳職論 Biblical Stewardship Theory)

❷-15 선교와 부활의 복음

김종이 / 성림침례교회 담임

1987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에 성림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95년에 성림침례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2005년 대전 침례신학대학 목회 신학대학원 졸업했으며, 2014년에 대전 침례신학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성림침례교회 담임목사, 침례신문사 이사, 미션 21 이사, 광주CBS 이사, 성림수련원 원장이자 성림어린이집 성림파인슐레 어학원 원장으로 역임중이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만물이 복종케되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기에 이 시대에도 부활의 복음을통하여 만물을 복종시키는 왕의권세가 나타나고 원수가 발등상이되는 현장이 되어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율법의 저주를 뽑아 버리고 부활의 문을 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문이 열림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생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가는곳마다 부활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려고 혼신을 다한것입니다. 마지막 로마감옥에서 순교하는 순간까지 부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려면 부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❷-16 복음과 경제

김한옥 / 복음과 경제 연구소

서울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뮌헨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밀알연합회 부이사장과 한국실천신학회 직전회장을 역임했으며, 기독교 통일학회 편집장으로 재직중이며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와 복음과 경제 연구소 신학연구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1. 복음과 경제
1) 경제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
2) 복음전파 수단의 시대적 변화
3) 목회자(교회)의 경제활동

2. 복음과 경제 연구소 주요 사역
1) 벤처기업 발굴과 지원의 필요성
2) 벤처기업 선교기금 조성
3) 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및 예상 효과
4) 벤처기업 1호 지원 가능 대상 : "엔터테인먼트"
5) 복음과 경제, 그리고 문화

3. 벤처기업을 통한 부요의 복 활용과 나눔
1) 개인
2) 가정
3) 미자립 교회
4) 중소 교회
5) 세계선교
6) 병원, 학교
7) 언론, 방송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때로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정말 가까이서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❷-17 오직 제비뽑아 나누라

박광재 /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원장

박광재목사는 대한신학교, 총신대학신학대학원, 미주총신대학대학원(D.D)을 졸업하고 48년 전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속에서 재발견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를 목회사역과 교단 정치와 선교사역과 개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왕권이 직접 행사되는 신본,신주,신정정치를 회복하고 세속화된 교회와 총회와 국가를 거룩한 교회와 총회와 국가로 개혁하며 교회공동체를 비롯한 인류공동체의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이룩하는 평화의 사역인 "거룩한 제사장 사역" (벧전2:5)과 "왕 같은 제사장 사역" (벧전2:9)을 전개하고 있다.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원장.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연구소장.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실천운동 총재, 기독교 총회임원 선거제도 개혁운동 총재. 교회와 국가의 선거제도 개혁운동 총재, 예장 제94회 총회규칙부장 역임, 예장 제99회 총회정책위원회 고문 역임,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 역임. 기독신문사 이사 역임. 현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운영이사, 미합중국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The Holy Lot Mission, U.S.A (THLM)총재 등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를 37년 간 담임목회 하고 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16:33)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잠언18:18)
〈서론〉 왜 ?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제도인가 ?
〈본론〉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선거제도와 사역을 제정하신 목적 ?
〈결론〉 말틴루터에 의하여 재발견된 '이신득의'가 중세교회와 국가를 개혁했듯이 한국교회가 재 견한 성경의 거룩한 제비뽑기 사역과 선거제도가 한국교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 선교사역지의 교회와 국가를 거룩한 교회와 국가로 개혁할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제도이며 성경의 원안이다.

❷-18 선교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선교의식 고취

정아브라함 / C국 선교사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세대를 졸업한 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1995년에 파송된 선교사로 21년째 사역중이다. 글로벌 레코딩 네트워크(홍콩)에서 8년, C국 신학교에서 사역하였으며, 2003년 이후 중경한인교회사역중이다.

❷-19 이민교회에 적합한 선교방법 : 선택과 집중

최병걸 / 훼드럴웨이 교협회장

부산대학교 (B.S.), Houston Graduate School of Theology(M. Div.),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D.Min in Preaching), 훼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훼드럴웨이 목사회 및 교회연합회 회장, 태국 라후신학교 이사장, 평생교육문화대학 이사장, 미디어한국 칼럼리스트

1. 선교의 정의 ; 선교란 무엇인가? -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교의 색깔이 달라진다. 선교는 개인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다. 선교는 개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다.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것은 자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2. 이민교회와 선교 - 초대교회에서 선교는 예루살렘교회가 아닌 안디옥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는가? 안디옥교회가 가진 다양성 때문이다. 인종, 언어, 문화의 다양성 속에 성령으로 하나됨을 경험한 안디옥교회의 장점이 세계선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이민교회는 이 시대의 안디옥교회이다. 이민교회의 토양은 한국교회와는 전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이민교회도 하나의 선교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민교회는 선교의 일환으로 세워졌고, 또 다른 선교를 위해 세워져야 한다. 이민교회의 장점은 선교지에서 생존하는 법을 아는 점이다. 이민교회는 인종, 언어, 문화, 세대를 넘어 하나를 이루어가는 법을 아는 교회이다. 이런 장점은 오늘날 세계선교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3. 이민교회에 적합한 선교방법 - 선택과 집중

4. 선택과 집중으로 인한 실재적인 선교의 예- 훼드럴웨이 제일장로교회의 예

❷-20 이민 목회 현장 속에서의 복음과 문화

변인복 / 시애틀교협회장

서울 신학 대학교 신학과 졸업(Th.B),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졸업(M.div),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조직신학 전공, Th.M), 미국 컬럼비아 신학교 연수, 미국 홀러 신학교 박사원 졸업, 한국에서 목회 경력 국일교회, 휘경교회, 상도교회, 천성교회(19년 간 목회), 미국에 1990년 이민, 미국 브레머튼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미국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담임목사, 현재 미국 시애틀 큰사랑교회 담임목사, 미국 K.C.C 전국간사, 미국 해외한인 장로회 서북노회 노회장, 미국 시애틀 교회연합 협의회 회장(현재), 미국 서북미 신학 대학교 학장 (현재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 직영 신학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다. '디아코니아는' 케리그마의 외적 작용이다. 디아코니아는 케리그마 없이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며 그 나라를 소유케 하는 것이다. 마태 4:17에는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목적이다. '전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9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9번 기록되어 있다. 전파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케뤼소'라는 동사는 '...을 사세요' 라고 물건 파는 장사꾼의 소리이다. 자신이 파는 물건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확신에 찬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는 자신감을 필요로 한다. 확신이 있어야 한다. 선교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인 것이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소명인 것이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세계에서 가장 넓게 퍼져 사는 민족이다. 너무나 다른 각양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가 없다. 우리들을 세계에 퍼져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 하시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큰 것이다. 본 강의를 통해 이민자인 우리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깊이 생각하며 연구하여 앞으로의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구들로 더 사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

❷-21 건강한 후원교회의 역할

최은성 / 인도 선교 네트워크 대표

최은성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현재 서울은현교회 담임목사이며, Grace Hill Community Church 대표와 India Mission Network (인도선교 네트워크) 대표로 사역중이다.

1) 선교 전략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미복음화 된 10/40창 선교 집중해야 한다.
2)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 전체 일곱 나라를 가리켜 인도창(India Window)이라고 부른다. 인도창은 10/40창의 1/4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아프리카권, 중동권, 인도권(힌두권), 중국과 동남아권)
3) 인도권 지역에는 17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경제적으로 세계 최빈국들이다.

4) 현재 전 세계의 국가 수는 유엔 등 국제승인 받은 국가 총 195개국이며, 비승인 국가가 11개국으로 전체 206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인구는 74억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도권 7나라에 17억 6천 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인구 24%에 해당된다.
5)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집중된 곳이다.(약 5억 명)
6) 세계 최대 힌두교 지역(11억 명)이며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발상지이다.
7) 세계에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약 3천 종족)
8) 기독교 인구는 평균 1% 미만이다.
9) 인도권은 세계 최대, 최고의 선교지이며 황금어장이며 선교의 헌신에 대한 열매를 30, 60, 100배로 풍성하게 거두는 선교지이다.

❷-22 선교하는 교회 / Glocal선교

이준성 / ANC온누리 교회 선교목사

ANC온누리교회 이준성 선교목사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부동산 회사와 의류무역과 생산을 하다가 새로운 사명을 받아 International Baptist Seminary에서 목회학과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UNELA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PRODOLA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멕시코 선교사 겸 All Nations Seminary 신학교 총장, 중남미 가정사역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현재 풀러신학교 한국어학부 통역 및 강사로 있으며 교수로 여러 신학교와 선교원에서 중남미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으며 멕시코와 중남미 목회자훈련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동서 선교연구소 중남미 연구소장으로 지내고 있다.

현대의 선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성경 안에는 다양한 선교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음을 먼저 역설하고 역사적으로도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현대에 있어서의 변화하고 있는 선교의 패러다임 양상을 구체적인 주제별로 기술하면서 현대선교의 흐름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또한 그중 대표되는 단기선교를 살펴 보았다. 오늘날의 선교는 현대선교가 전통적인 개인 구원의 선교의 개념이나 현대의 급진적인 사회구원의 선교신학에서 벗어나 양자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성령님께서 21세기에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무엇일까? 선교에 대한 많은 혼동이 있다. 선교에 대한 혼동은 선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선교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이다. 보통 성도들이 '선교'라 하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선교가 무엇인지 결론 내는 건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은 말하길 : "선교는 전문적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다. 선교는 선교 위원회가 하는 것이다. 선교단체들이 하는 것이다. 선교는 이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사역이다. 특별히 선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교회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또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의 취미이다." 모든 것이 반은 진실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선교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진 않는다.

다음 3가지를 물어보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교회란 무엇인가?
선교란 무엇인가?
21세기에 선교란 무엇 인가?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현실적 방법을 살펴본다.

❷-23 카자흐스탄 사례를 통한 가정교회 사역 엿보기

주민호 / 카자흐스탄 선교사

최은성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현재 서울은현교회 담임목사이며, Grace Hill Community Church 대표와 India Mission Network (인도선교 네트워크) 대표로 사역중이다.

1. 서론 - 본고에서 발제자는 주님이 세우고 싶어하시는 성경적이면서 초문화적인 교회의 모습과 내용, 그리고 카자흐 문화와 역사에 합당한 교회는 가정교회라는 것을 논하려고 한다. 그것을 위해 카자흐는 어떤 민족이며, 그들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개척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할 것이고, 문화를 넘어서 확산되고 있는 가정교회의 현재도 소개할 것이다.

2. 주님이 세우기 원하는 교회의 초문화적 내용

3. 카자흐스탄의 카자흐 족
1) 유목민의 후예
2) 무슬림
3) 공산주의의 흔적

4. 성경적이면서 역사-문화적인 카자흐 교회 개척을 위한 고려 사항
1) 소극적 상황화
2) 적극적 상황화
3) 유목민 기질과 기독교적 리더십의 조화

5. 카자흐 교회 개척 및 정착, 성장 과정들
1) 카자흐 제자화를 꿈꾸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역 팀
2)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제자훈련 모임, 그리고 큰 예배 모임으로 성장
3) 가정교회와의 만남: 오래된,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개념 - 하나님의 가족
4) 러시아어권과 튀르크어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정교회 사역

6. 결론

❷-24 가정교회로 세워가는 세계선교

추기성 / 멕시코 선교사

멕시코, 국제가정교회사역원 남미선교간사

1. 들어가는 말 -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기까지는 많은 훈련의 시간을 보낸다. 본인 역시, 선교지에 가기까지 한국외항선교회 타문화훈련원(CCMTI 7기)과 한국해외선교훈련원(GMTC 12기)에서의 선교훈련을 마치고 파송교회에서 8년간의 청년대학사역을 담당하다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막상 선교지에 도착했을 때의 심정은, 안타까움과 답답함, 그러면서 절망스러운 현실로 인해 그 동안의 훈련과정속에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우리가 대하는 사역의 대상들은 가난했고, 학력이 낮아 무지했으며, 알코올과 마약으로 현실을 외면 내지 거부하며, 제대로 된 가정에서 생활하며 자라는 아이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단 말인가? 이것이 중남미에 속해 있는 멕시코에서 내 자신에게 묻는 첫 물음이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질문해가는 가운데 사역하고 있다.

2. 중남미 이해(멕시코를 중심으로), 3. 멕시코에서의 가정교회, 4. 결론

❷-25 나는 위대한 선교사다

김기동 / 소중한교회 담임

현재 소중한교회(www.sojunghan.org) 담임목사, 고구마글로벌미션 대표,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div,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D.min, 저서로 "고구마전도왕(규장)"과 "*Mr.고구마의 전도행전(두란노)"이 있으며, CTS-TV에서 "김기동목사의 고구마전도"를 총 69회 강의하였다

고구마전도를 도구로 2006년 7월 처음으로 57개국 이슬람권 선교사 및 자녀를 두바이로 초청하여 "이슬람권 선교사 재충전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때 참석한 이슬람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고구마전도가 선교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과 기대이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선교현지에 가서 처음 가졌던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의 메신저로 살지 못하고 선교의 메니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2015년까지 9회 걸쳐 매년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터키, 인도 등지의 선교현지를 돌면서 "선교사 부부 및 자녀 재충전수련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한 선교사 모두가 영적 재충전은 물론이요, 가정이 회복되고 선교사역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는 오직 복음이 비밀이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선교를 살리고 힘을 주는 원동력입니다.

❷-26 선교지에서의 효과적인 전도

김기동 / 소중한교회 담임

고구마전도는 전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게 하며, 복음의 능력과 선교의 열정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선택강의를 통하여 영육간 지쳐있는 선교사 개인의 영적회복은 물론이요 사역의 회복과 더불어 복음의 메신저로서 힘있게 일어날 것입니다.

❷-27 바이블 동서남북(Bible News)

정원섭 / 미드웨스턴대학교 박사과정

정원섭 선교사는 실리만 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M.Div., 동학교에서 성서고고학(M.A. in B.A.)를 수료하고 현재 D.Min. 수학중이다.

바이블 동서남북의 장점을 크게 아래와 같다. 첫째, 신구약 66 권 성경 각 권의 틀을 세워 둘째, 성경의 지명, 인명, 사건, 장을 한 눈에 보는 고공 서치라이트 학습법과 세째, 가장 효과적인 기업법인 연상법으로 성경 전 장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므로 넷째, 언제나 어디서나 66 권의 성경의 틀을 통해 눈을 감고도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시대에 바이블 동서남북의 성경공부를 해야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식만능주의 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이미 습득했고,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는 교회안에서도 동일하다. 지금까지 잘 훈련되어 온 많은 성경공부를 통해 부분적 성경의 암기와 더불어 삶의 적용을 위한 묵상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시대적 하나님의 마음을 한눈에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때로는 일부 성경의 내용만을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 마련이다. 바이블 동서남북은 성경을 각장의 제목을 통해서 사건적인 내용파악뿐 아니라, 전체를 한눈에 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것이 장점이다.

❷-28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겔 44:9-19)

손길성 / 극동교회 담임

1971년 순복음 신학교 졸업하고, 1977년 필리핀 F.E.A.S.T. (B.Th) 졸업한 후 1982년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1995년 임마누엘 신학대학원에서 D.Min 학위를 받고 현재 극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최고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님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❷-29 회복 탄력성 : 건강한 삶을 위한 내적 자원

김현경 / 월드미션신학교

Talbot 목회 상담학 석사학위와 Talbot 기독교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World Mission University에서 상담학 교수 & 학사 과정 director 로 일하고 있으며 온누리교회 내적치유 및 상담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선교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한 내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과 구성 요인들을 배우고 어떻게 그것을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는 내적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 정서적-관계적 자원들을 회복 탄력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봄으로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위기와 고난의 상황들에 대한 창조적 반응의 가능성을 발견해본다

• 회복 탄력성의 정의와 영향력
• 회복 탄력성의 구성 요소:
- 자기 조절 능력: 감정 조절력-충동 통제력-원인 분석력
- 대인관계 능력: 소통 능력-공감 능력-자아 확장력
• 회복 탄력성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와 적용

❷-30 기독교인의 상처 관리는 어떻게

박태동 / 필라가정상담 대표

박태동박사는 1940년 8월 15일 일본에서 출생, 1970년 인하공대 전자공학과 졸업, 1974년 미국으로 이민, 1980년 자영으로 세탁업 경영, 현재 은퇴, 2004년 필라 안디옥 교회서(호성기 담임목사) 장로 장립, 2007년 쎄크라멘도 신학대학원 바이블 칼리지 졸업, 동 대학에서 기독상담학 석사 학위(M.C.C) 취득, 2009년 홰이즈 크리스찬 칼리지 철학 박사 학위(Ph.D) 취득하여 2010년부터 에슈아 신학대학 상담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1. 상처란 - 상처는 외면의 상처와 내면의 상처로 구분하여 여기서 말하는 상처는 내면의 상처 즉 심령에 고통이 찾아와서 갈등과 분노를 이르키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심해지면 난폭해져서 폭력으로 표출 하거나 그와 반대로 우울하여져서 무기력 해지고 더 나가서는 우울증에 시달리게된다 이것을 조기 치유 받지못하면 삶의 질을 망각하거나 또한 만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하며 더나가서는 삶을 포기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은 다음에서 말하는 상처를 주는 진원지와 전달의 통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

2. 상처가 왜 생기나? - 1) 인정받지 못했을때 2) 무시당했을때 3) 거절당했을때
3. 상처가 전달 되는 통로 - 1) 언어를 통하여 2) 행동을 통하여 3) 관계를 통하여
4 ,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 1) 말씀과 기도로 항시 채우는 삶을 산다 2) 받은 상처를 딛 고일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5 기타 • 회복 탄력성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와 적용

❷-31 크리스천의 이중성

김희종 / 뉴질랜드 디르사선교회 대표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Kazakh National University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디르사 선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디르사 어린이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계간 아세아문예로 시인으로 등단하여 활동중이다. 저서로는 Preschool 교육 커리큘럼 〈사랑의 프로그램〉과 묵상집 〈나는 엄마입니다. 나같은 엄마가 없습니다〉, 〈남자의 아름다운 여인〉, 동시집 〈조그마한 나에게 작은 나에게〉 등이 있다.

1. 왜 빛이 있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하나 (전 7:20)
빛은 어둠이 없는 것이고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신 빛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을 때 빛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왜 항상 듣는 말씀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지 못할까 (요 3:19)
말씀은 생명체의 전기와 같은 열의 형태를 발생하며 듣는 이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되어 육체 안에서 생리 · 생화학 작용을 한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지 않고서는 생명의 반응을 할 수 없다.

3. 왜 말씀의 교육보다 세상 교육이 삶에 실제적 이득을 만든다고 생각할까 (딤전 6:10)
교육은 소비를 위한 노동으로, 생존 전략이라고 시대는 말한다. 빛을 먹은 식물 잎이 빛과 함께 진동하며 산소를 뿜어내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한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에 순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결국 서로를 살려 줄 수 있는 죽은 것이다.

4. 왜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아이들이 교회에 올 것으로 생각하나?
육체의 흥분을 자극하는 도파민보다 엔도르핀은 200배나 강력한 진동의 쾌감 호르몬으로, 아기낳는 산모와 아이가 탯줄을 끊고 나올 때 가장 많이 생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말씀의 교육은 인간 육체의 어떤 반응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진동이 된다.

❷-32 자연치유 건강세미나

김갑선 / 지구촌선교교회 담임

미국 새크라멘토에 소재한 지구촌선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갑선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South Baylo 한의대를 나와 현재 American Liberty University에서 박사 논문 심사중이다.

1. 각종 질병 감별 진단과 치료법
1) 오장 육부의 질병 감별 및 치료법
2) 근골병의 감별과 치료법
3) 신지병의 감별과 치료

2. 식물의 기능과 질병의 적용
1) 당뇨, 혈압, 콜레스톨에 좋은 식물
2) 속병에 좋은 식물
3) 관절염, 골다공증에 좋은 식물

3. 비타민 바르게 사용하기

❷-33 한방은 수월, 양방은 복잡, 한.양방 통합 보완이 최선

김광오 / 몬트리올외항선교회 의료선교사

캐나다 퀘벡주 의사회 침구과 및 자연의약사회 면허소유 현직 김광오 한의사는 전도목사 겸 의료선교사로서 KPCA 총회 파송 선교사이다. 1997년부터 몬트리올외항선원센터에서 8-9명의 선교사역자들과 함께 협력선교를 펼치고 있다. 그는 1967-69년 Colombo 장학금으로 캐나다 Guelph대학 축산과 연수후, Saskatchewan대학 재활의학 인턴, 서울 경희한의대 침구과, 국제중의약대 한의학박사, McGill대 신학사 및 신학석사 과정 등을 거쳐 캐나다 최초의 한의사(한인 1호)와 목사가 됐다. 원주민선교연합 북미주순회의료선교단장, GKYM대회 의료팀(장)이며, 퀘벡주 침술한약대 교수, 몬트리올 연합성서대학 초대 및 2대 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캐나다 연방정부 선원센터 표창을 수상했다.

캐나다 저의 직계 가족 성인 10명 중 9명은 의료인으로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한의사 2, 양의사 3, 치과의사 1, 간호사 1, 약사 1, 카운슬러 1, 재무분석사 1). 가족 모두는 기독교인이라 직.간접으로 의료선교에 연계되어 있다. 이미 해외 의료선교를 다녀온 사람들도 꽤 있다.

수년 전 가족들이 몬트리올 저의 집에서 함께 모인 적이 있다. 때마침 선원센터로부터 한국선원선박과 조선족선원선박이 항구에 도착됐고 환자도 몇 명 있다는 전화가 왔다. 나와 아내, 첫째와 두째 딸 내외, 첫째 두째 아들 내외, 총영사관 한성진 영사 부부 등 12명이 배구경도 할 겸 호기심에 두 선박을 방문했다. 우리는 선원을 위한 선교지 와 간단한 선물을 증정하고 기도를 드렸다.

그 다음은 선원들의 건강을 챙겼다. 환자 대부분은 근육통, 소화불량,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방법은 오직 침술과 한약 투여뿐 이였다. 한국, 캐나다, 미국 등의 의료법에는 양의사는 환자를 검진하고 치료약만 처방하고, 약은 약사가 지어 주기 때문이다. 반면 한의사는 침 치료와 한약을 병용 할 수 있다. 한의사인 나와 큰딸만이 환자를 치료 할 수 있었다.

한방은 도구로 침만 있어도 되고 약은 주변 식물과 나무뿌리 열매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한방의 한계는 응급 외과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양의사 혼자는 의료법도 까다롭고 치료시설, 도구, 약품 구입도 번거롭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동반하는 의료팀 사역이 절실하다.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선교는 양.한방이 함께 보완 활용하는 통합의학 시술이다.

의료선교는 자격을 갖춘 전문의료인과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 몬트리올외항선교회는 선교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의술에 담아 전파하고 있다.의 어떤 반응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진동이 된다.

❷-34 인생의 하프타임

박호근 / HALF TIME 인터내셔날 대표

박호근 목사는 1990년대 후반 IMF 위기를 통해 하프타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국 하프타임의 설립자 밥 버포드의 멘토링을 통해 한국형 하프타임을 창시하였다. 서울신학대학과 미드웨스트대학(Midwest University)의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뒤 YWMA과 미국, 캐나다에서 활동을 했으며 명지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를 거쳐 현재는 하프타임코리아 대표, 진새골가정문화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 지구촌교회, 높은뜻숭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동안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동양선교교회 등 다수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KBS, MBN, YTN 국민일보의 로뎀나무 연재, 동아일보의 하프타임 서평 연재, CBS의 직장인 특강, 석세스TV 명사특강, CTS, 극동방송 등 다수의 컬럼과 방송 활동 중이다. 저서로 「인생에도 리허설이 있다」「애프터 하프타임」「나의 하프타임」「나의 후반전」「굿바이 정신」「탁월한 왕따되기」「지식요리」「머리아픈 남편 가슴아픈 아내」등이 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하프타임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며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작전타임 입니다. 하프타임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요 하프타임은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열어줍니다.

인생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전을 위한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은 인생 후반기 삶의 질과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하프타임을 통과했습니다. 하프타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현재의 위치를 진단하여 자신을 객관화 시킬 수 있으며 이로부터 분명해진 자기 정체성을 통해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됩니다. 내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이후 활동에 필요한 자신의 역량이 무엇인지 알게 되며 여러 진단툴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게 됩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한 상호 지지 및 자기 개방으로 자아관을 재정립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후반전 설계를 위한 신속하고 스피드한 의사결정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인생비전서의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통하여 지속적 변화와 관리가 가능해 집니다.

하나님은 카터를 성공한 전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실패한 현직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불과 56세에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미 카터는 대통령 재직 시 인기도와 업적 평가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았으며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담하고 절망적일 수도 있는 그의 삶은 은퇴 후의 놀랍게도 인권운동가, 저술가, 국제 분쟁 조정자, 망치를 든 봉사자 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보로 바뀌었습니다. 해비 타트 운동, 사랑의 집짓기 지미카터 프로젝트 개최자 등 존경받는 은퇴인으로 새로운 삶의 모범을 보인 그는 하프타임의 진정한 증인입니다.

3. 한인 디아스포라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❸-1 한국교회와 선교의 미래 (빌2:5-11)

채수일 / 경동교회 담임

한신대와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신학박사(선교학)를 받고 함부르크대학 선교아카데미 연구실장을 역임, 귀국후 한국신학연구소장, 국제인권센터소장, 한신대학교총장 재임중이며 지구온난화 사막화와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인구폭발, 산성비, 핵겨울, 기아 질병등에 대한 지구재생프로젝트인 유엔지구환경회의의 한국대표로 활약하며 한국구약학회, 한국신약학회, 한국선교학회등 13개 학회와 전국 40여 신학대학 및 기독교대학의 학자들로 구성된 한국기독교학회의 회장이다.

1. 들어가는 말 - 역사상 최초로 인간은 지구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문명의 능력과 규모를 확보했습니다. 지구 자체를 여러 차례 파괴할 수 있는 가공할 핵무기는 물론, 수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되었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재난은 지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 가능성은 더 이상 광신적 종말론자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에볼라 바이러스 등은 인류종말의 가능성이 현실로 가까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화석연료의 고갈, 식량위기, 물 부족, 신자유주의적 빈부 양극화는 인류가 사고와 세계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도 변하고 있습니다. 19세기부터 북미와 서구 그리스도교의 영향이 크게 쇠락하면서, 그리스도교의 무게 중심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로 이동했습니다. 전 세계 종교인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 삼분의 일 정도가 그리스도인, 무슬림은 20%, 힌두교도는 13.7%, 불교도는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10년 이래 지난 100년 동안 그리스도인은 변화 없이 정체된 반면, 무슬림의 비율은 12.6%에서 22.4%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이슬람의 성장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갈등관계에 있었고, 지금도 충돌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사이의 대화와 화해가 정치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2. 오늘의 도전과 선교의 미래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 선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미래의 어떤 도전들이 교회에 부딪쳐 올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선교전략을 모색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도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 세계화와 양극화:
2) 종교들의 갈등:

3. 선교의 미래

1) '십자가의 선교'에서 '성육신의 선교'(빌 2,5-11)로
2) '가르치는 선교'에서 '서로 배우는 선교'(갈 3,26-28)로
3) '인간중심주의'(Anthropozentrismus)에서 '생태선교'(Ecologische Mission)(엡 4,4-6)로

생태계 위기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자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안도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천인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 '환경 친화적 먹거리 운동', '자동차 안타기 운동'에서부터 '환경운동', '생명선교', '생태마을', '녹색정치'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운동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도 신앙공동체로서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절약형 교회건축, 도시 농촌교회 자매결연, 도농 직거래를 통한 생태농업의 활성화, 재활용품 가게운영, 환경문제를 중심한 지역사회와의 연대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엡 4,6). 여기서 '만유'는 '모든 것'(panton)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또한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태선교는 범신론이 아닙니다. 생태선교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기시 때문에 교회는 모든 것에 자신을 열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딤전 2,4-6).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교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배타적이고 공격적으로 대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다'(딤전 2,6)는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것입니다.

❸-2 선교의 동향과 이민교회의 선교전략

김혜택 / 뉴욕충신장로교회 담임, GKYM 대표

타문화권경험, 탁월한 언어능력, 개방된 세계화의식등 가장 효율적인 선교자원으로 동원이 가능한 7백만 한민족디아스포라의 선교동력화를 목표로 GKYM운동을 주도하는 그는 미동부지역의 3천여 청년대학생이 동원된 GKYM Fest Rochster를 매년 년말에 개최하며 역사적인 SVM 대학생 해외선교자원운동의 부활을 열망하고 있다. 교회의 역량을 선교에 전력투구하는 총체적 선교목회의 불타는 열정으로 매년 5백명의 단기선교팀을 훈련시켜 중앙아시아등지에 파송, 수많은 교회개척활동도 펼치고 있다.

1. 왜 미전도종족선교를 해야 하는가?
2.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회(The Church)의 4가지 요소
3. 선교적 교회관의 회복
4. 전략적 협력선교

❸-3 Joseph's Vision 21 요셉운동을 통한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육

나광삼 / 큰무리교회 담임

이민목회 30여년의 광야길에서 큰무리교회의 위대한 성장을 일궈낸 나광삼 목사는 한국과 북미주를 점철하는 연중 25회 이상의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또한 「21세기 요셉운동」을 창설, 청소년 신앙부흥운동을 10여년 넘게 전개하며 애굽의 이질문명 속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세상과 자신을 극복했던 요셉을 본받아 주 안에서 강한 자아각성과 신앙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민사역을 펼치고 있다. 워싱톤개혁장로회 신학교 이사장으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❸-4 디아스포라 선교의 재발견

한도수 / KWMF 공동회장, 바울선교회

한도수 목사는 한신대학을 졸업하고 아세아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1984년에 기독교 장로회 영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으며, 1986년에 바울선교회 소속으로 필리핀으로 파송되었고, 브라질에서도 사역하였다. 한도수 선교사의 주요 사역은 목회자 훈련원, 선교사훈련원, 신학교설립, 교회개척사역 등이며 바울선교회 국제 본부장과 KWMF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KWMF 공동회장과 KODIA 국제대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바울선교회 이사 및 순회선교사로 사역 중이다.

1. 디아스포라는 하나님 선교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이 지구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며 명령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고 하시고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자녀를 낳아서 지구촌으로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텅 빈 지구촌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방지하자고 바벨탑을 세웠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세계로 흩으셨다. 그 후 아브라함을 떠나보내시고 그의 자손을 흩으셨다. 또한 앗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남 유다를 세계로 흩으시더니 마침내 로마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전 세계로 흩으셨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았다.

2.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디자인 대로 디아스포라를 생산해 내야 한다,

교회가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는 것이다. 선교사 파송은 곧 디아스포라를 파송하는 것이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도록 해야 한다. 잠시 사역하다가 돌아오는 식의 선교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이 되어 대대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이민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사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받은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 질수 있도록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함께 전략적으로 선교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자들을 이웃나라에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해야 한다.

3.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를 선교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지구촌에는 일자리를 찾아 나라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숫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는 일자리를 찾아온 수많은 다민족들이 살고 있고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에도 수많은 나라에서 온 다 민족들이 일자리를 찾아와 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국에 가서 살아가는 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다.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브라질에 온 한국 디아스포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국 사람이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브라질에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이미 파송하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 온 인도네시아 디아스포라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인도네시아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교회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한국에 온 인도 디아스포라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인도인들이 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도교회가 한국에 인도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선교사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받고 보내는 쌍방적인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이다.

❸-5 한국형 미니국제학교 설립 및 개발

한정국 / KWMA 사무총장

1985년 남서울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 인도네시아기독교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제발전론을 강의하면서 IVF, CCC와 동역하며 대학생 사역을 하였고 순다족속을 향한 선교를 펼치며 종족개념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다. 이후 싱가폴 타문화권선교훈련원장으로, 그리고 한국 1회 OMF대표로 미전도종족선교운동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조했다. 현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사무총장으로 한국선교단체와 교단, 교회의 연합과 선교활성화에 혼신의 열정으로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 선교사들이 대도시가 밀집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교육 때문이다. 그들은 국제학교 또는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는 곳을 선호한다. 어떻게 그들을 중소도시로 전진 배치시킬 수 있을까? KWMA는 고민 끝에 선교지 중소도시에의 한국형 국제학교 설립 운동에 나서게 됐다. 국제학교라 하면 으레 영국 또는 미국식 학교를 떠올린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인도식 국제학교가 있다. 그들은 그들만의 교육철학, 특히 서구 위주의 역사에서 탈피한 새로운 역사의식과 철학으로 교육한다. 영어를 사용하되 학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한국 교육은 세계인들의 관심의 대상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을 칭찬했고, 세계 많은 나라들도 한국의 경제성장 배후에 있는 한국 교육을 주목하고 있어 한국형 교육은 시장성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세계 모든 국제학교에서 한국 자녀, 특히 MK들이 '수학왕'이라는 별명을 얻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지 않은가? 그렇다. 한국형 교육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 정작 한국인만이 이를 무시하고 있으니 모순적일 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국형 국제기독학교를 위한 해법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홈스쿨링 또는 미니학교로 시작하되 모든 주요 중소도시에 세우는 게 적합하다. 이곳은 한국 선교사들이 수도와 대도시를 떠나 전방으로 이전 배치되는 전략적 장소가 된다. 한국으로 보면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춘천과 같은 곳이다.

둘째, 정체성 있는 교육, 영어를 매개로 하는 국제성, 그리고 현지 언어 학습을 추가해 3개 언어(Trilingual)를 사용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고, 4학년부터는 영어, 중학교 1학년부터는 현지 언어를 추가해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셋째, 영어 교재로는 미국 침례교단에서 만든, 성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교재인 〈SOT (School of Tomorrow)〉를 추천하고 싶다. 물론 도시 환경과 학생 구성에 따라 〈Alpha Omega〉 또는 미국 리버티 스쿨 교재 등을 채택할 수 있다.

❸-6 한인 디아스포라의 협력을 통한 일본 선교

김신호 / 일본 선교사

약력은 1985년 OMF 선교사로 일본인 사역을 시작하여 현재는 GMS 일본선교사로 섬기며 동명 국제 그리스도교회의 담임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OMF 카운슬 멤머로 섬겼으며 GMS일본 대표로 있으며 한인 선교사협의회 전국회장을 역임하였다. 미국의 R.T.S 에서 선교분야의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 포라들이 일본선교에 동참하여 기여할 수 있는 내용과 가능성들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에 먼저 와서 일본문화속에 침투해 들어간 한인 들과 최근 한국으로부터 일본에 건너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교회를 이루어 가며 선교해가는 분야들과 가능성을 살피며 특히 미국이나 영어 세계에서 배출 되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일본사역에 헌신하여 참여 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씨너지 효과를 거둘수 있을까를 하는 꿈들을 꾸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 도전을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❸-7 디아스포라한인교회와 글로벌 단기선교사역

김일권 / 주한인OM국제선교회 OM KAM 대표

김일권 선교사는 윌리암케리국제대학교 Ph.D 과정을 밟고 이집트 선교사로 사역하였으며, 한인선교사협의회장을 지냈으며현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주한인 OM 국제선교회 (OM KAM) 대표로 섬기고 있다.

OM은 전 세계에서 모인 6천 여명의 선교사들이100여 개국에 흩어져 국제팀으로 글로벌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다. OM은 지역교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단기선교 프로그램과 평신도 선교 사역자들의 사역을 중요한 선교적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단기선교와 평신도 선교사역에 중요한 사역적 가치를 두고 선교사역을 해오고 있다. 본 강의는 한인디아스포라교회들에게 있어서 이런 평신도 중심의 글로벌 단기 사역이 왜 중요한지 선교전략적 관점을 제시하고 지역교회들이 글로벌 사역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등을 제시한다.

❸-8 다음세대와 함께하는 전도와 선교

홍승영 / 장지교회담임, 극동방송 진행자

장지교회 담임 목사이지 Good-Branch 미니스트리 대표, 극동방송의 "우리는 주의 어린이"에 출연중이며 YFC ASK Academy, 유스컨퍼런스, 교회교육비전컨퍼런스 강사, 총회 교육개발원 집필, 강의, 연구원역임, 찬양작곡가로 활동중이며,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강사 국제전도폭발훈련 본부강사, Kids EE 전략위원, GP선교회 이사, 노아선교단 이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CTS 기독교 TV 어린이설교로 활종중이며, 각 교단 성경학교 강습회 강의 및 교사 전문대학 훈련과정 강의로 활동 중이다.

많은 교회가 다음세대 사역의 필요성을 느꼈고 오랫동안 외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은 편인데, 아마 건강하지 않은 사역 관점 때문일 것이다. 혹시 다음세대 사역을 성인 사역 부흥을 위한 디딤판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차세대 사역자들이 흔히 말하는 '아이들을 전도하면 어른들이 따라 온다'는 환상은, 오히려 다음세대 사역을 소외시키는 원인이 된다. 오랫동안 다음세대 사역을 해온 사역자로서 정직하게 말한다면, '부모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크게 기대할 만큼은 아니다. 다음세대 사역이 성숙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다음세대 사역 자체를 지향해야 한다.

1990년, 선교 전략가인 루이스 부시 목사(트랜스폼 월드 총재)는 '10/40창(window)'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북위 10~40도에 위치한 국가들 중에서, 서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10/40창'이라고 명명하며 집중적인 선교지역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루이스 부시 목사는 '4/14창'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 창은 '4세부터 14세 사이의 다음세대'를 의미한다. 그는 "4세부터 14세 까지의 다음세대를 전략적인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한다"고 제안한다. 그 연령대는 복음을 전했을 때 수용 가능성이 성인들 보다 월등히 높은데, 84% 이상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교회는 열매가 풍성한 선교지로서 다음 세대에 주목해야 하며, 또한 그 다음세대를 동역자로 삼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강의를 통해 다음 세대 전도와 그들을 전도(선교) 동역자로 삼는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❸-9 북한지하성도들의 증언과 디아스포라들의 역할

박상원 /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

기드온동족선교회 대표인 박상원 목사는 연세대 의예과를 졸업하고 장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여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원목과 C.P.E(임상목회교육) 수퍼바이저 역임하였다. 워싱톤주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총무와 워싱톤주선교단체협의회 총무로 사역중이다. 편저서로는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두란노2012)'과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렛츠북 2015)'가 있다.

북한안에서 주의 복음과 신앙을 위해 순교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와 협력하던 (고)김경철 형제의 사역을 통해서 알리고, 후방에서의 디아스포라들의 역할과 통일의 임박함과 준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1. 북한선교의 문제제기와 방향
2. 중국국경에서의 사역
3. 내부사역의 보고와 의미
4. 후방에서의 연합중보사역 활동과 중요성
5. 북한지하성도의 활동내용과 증언

❸-10 통일한국을 준비합시다

이반석 / 모퉁이돌선교회 대표

이반석 목사는 한국전쟁 중 월남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사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청소년 시절 어머니를 잃은 후 도미하여 대학을 졸업한 뒤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북한선교에 헌신하였다. 풀러신학대학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 석사(M.Div)와 선교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미국장로교단(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의 목사로 북한선교 전문 기관인 모퉁이돌선교회의 총무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북한지하교회순교사(핍박받는 북한교회에 관한 선교학적 이해)가 있다.

북한이 열리고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나누어지며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날이 오는 것이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슬기러운 처녀는 기름과 그릇을 준비하였던 것 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때를 기대라면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통일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철길 위에 못을 올려 놓고 멀리서 기차가 오는 소리를 듣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딸이 아이를 낳기전 초조히 기다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실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멋있고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 기도하시는 분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가장 큰 부흥이 있을 것이고 그 부흥으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가 함께 기뻐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통일만한 북한선교전략이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방방곡곡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들어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이라 외치며 평화를 선포할 것입니다.

❸-11 통일대박은 축복이다

신창민 / 한우리통일재단 대표

한우리통일재단 대표인 신창민 박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클레아몬트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으로 역임하였고 현재 동대학 명예교수로 일하면서 기드온동족선교회 경제전문 수석위원 겸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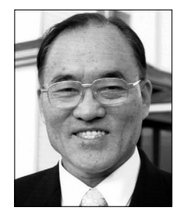
통일이 왜 우리민족의 가장 큰 축복이며,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통일비용에 대한 명확한 대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드러난 장점과 단점을 분석비교함과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30년간의 통일연구 결과의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신 박사님의 방안은 우리 겨레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리고, 현재 대통령께서 그의 저서를 통해 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발표한 그 취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일대박 선택강좌에 꼭 함께하셔서, 국내외 통일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데,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들께서 모두 최일선에 서서 함께 진력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❸-12 왜 북한 탈북자 인권운동 시작했나! - 북한정권을 폭로한다

윤요한 / 고향선교회



지금까지 200여 명의 탈북자를 망명시켜 국내외 정착시키고 1천여 명의 탈북자들을 후원하고 있는 윤요한 목사는 1992년 러시아 선교를 시작으로 1994년 중국 선교로 눈을 돌려 세계에서 난민으로 공식인정한 탈북자들의 인권 회복에 힘썼다. 이후 중국에서의 선교활동과 함께 탈북자들의 한국 행 지원으로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감시를 받아오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도와준 혐의로 2005년 5월 9일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중국 연길 감옥에 1년 3개월 동안 수감됐었다.윤 목사는 수감 전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에 성공해 중국당국의 추적을 받자 이름을 '필립 준 벅'으로 개명한 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지원해 인권단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았었다. 윤 목사는 앞서 2007년에는 탈북자 지원에 앞장서온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인권단체인 트레인재단이 수여하는 '용기 있는 시민상'을 받았었다. 윤 목사는 중국 감옥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지금까지 탈북자 망명과 정착 돕기를 이어가고 있다.

1. 왜 인권활동을 시작했나?
1) 무신론 공산주의 사악성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2) 예수 믿는다는 죄 아닌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3) 탈북하다 잡혔습니다. 그중에는 임신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4) 철사로 탈북자 코를 꿰어 끌어갑니다.
5) 북한과 중국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6)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에스더 8:6)

2. 우리 민족 1000만명 살해
북한에 김일성 독재 정권이 설립된 후 온갖 만행으로 우리 민족 1000 만명이 살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교조 선생들은 김일성 이를 참지도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❸-13 기도운동 영역에서 준비하는 통일

이관우 /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이관우 사무총장은 한국대학생선교회(CCC) 통일연구소장, 기독교통일포럼 운영위원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히11:1)다. 믿음의 기도는 그 증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이 시대의 통일과 구국의 나팔수로 외치고 있다. 복음통일의 선물은 우리 자녀와 손자 세대의 미래와 희망이다(렘29:11).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사역은 통일선교사역의 기초이며, 기도 자체가 중요한 사역이다. 한국교회가 실천 가능하고 한국교회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성령의 끈이다. '기도하는 한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간 가장 긴장 되고, 분단 역사의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둡지만 우리 민족에게 다가오는 통일의 새 날은 반드시 올 것을 여전히 믿음으로 꿈꾸는 것이 기도이다.

4. 세계는 부른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❹-1 선교지에서의 교회개척

안성원 / KWMF 사무총장, 인도네시아 선교사

GP선교회, 합신총회 협력선교사로 서울공대와 합동신학교를 나와1984년 인도네시아로 파송, 지금껏 자카르타 및 정글지역에서 사역해 오고 있는 안성원 선교사는 교회개척 사역을 비롯하여 현지인 선교단체인 WP(World Partners)를 시작, 인도네시아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또한 안디옥 기독교등학교를 설립하고 안중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GP 선교회 대표를 역임하였고 한인선교사들의 연합체인 KWMF(한인세계선교사회)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다. 아내 조은숙 선교사와 두 아들 의용, 선용이 있다.

교회개척 사역은 복음을 전하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없다. 전도되어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개척은 반드시 교회 건축하고 연결할 필요는 없다. 초대 교회처럼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개척 된 것이다.

교회 개척 사역은 나라에 따라 종교 권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회교권, 카톨릭권, 힌두권, 불교권, 미신을 믿는 권역에서의 교회 개척은 접근법과 방법과 전략 등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교회 개척은 선교에 있어서 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선교사역이라는 말이다. 나는 지난 32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가지 선교사역을 해오고 있다. 선교 전반기 13년은 서부 깔리만딴섬에서 정글과 도시에 교회 개척을 했고, 안디옥 기독 고등학교와 기숙사를 설립을 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안중안 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로 사역을 하며 많은 청년들을 장학금을 주어 목회자로 양성을 했다. 후반기 19년은 자카르타 주변의 보고르지역에서 교회개척을 하며 빈민 어린이들과 정글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해주는 기도 입양운동을 했다. 최근에는 현지인 목회자들을 선교훈련을 시켜서 아시아 여러 지역에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선교사역을 해왔지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교회개척 사역인 것 같다. 나는 교회개척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근거와 선교역사에 나타난 교회 개척을 소개하고 나의 인도네시아에서의 교회 개척 사역을 소개하고 끝으로 교회 개척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략을 소개 하고 싶다.

❹-2 아프리카 선교사의 영적 싸움

김일석 / 우간다 선교사

김일석선교사는 서울장신대 신학과와 동대학 신대원 졸업후 성공회대에서 Th.M학위를 받은후 예장 통합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선교훈련원(PMTI) 간사와 빛진자들 선교회(DSM)소속으로 필리핀 단기선교사를 지냈으며 2010년 3월에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되었다. 우간다에서 58개 교회를 건축하였으며 Reformed World Mission Church 개척했다. 그리고 우간다 개혁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College에서 교수로 사역중이다.

아프리카에는 토속 샤머니즘과 정령숭배사상이 팽만하여 주술사들이 마을마다 많이 있고 그 영향력이 정치계에까지 미칠 정도이다. 아프리카에 대해 떠도는 식인풍습이야기는 주술의식과 연관되어 있다. 또한 주술사가 성경과 로사리 십자가를 놓고 주술을 하는 식의 혼합주의가 팽배하다.

만일 자신의 정적이 있다면 동네 주술사로 하여금 저주의 주술로 정적, 싫어하는 사람, 일부다처이므로 부인들끼리의 시기질투로 인해 상대를 죽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찬탈하려는 마음들이 팽만하다. 영아 살해를 통한 희생제사와 백색증 살해를 통해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받고 운수대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귀신/정령들을 만나고 액운이 끼어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간다.

특히 우간다의 독재자이자 이슬람교도인 '이디 아민(1971~79대통령)'은 우간다 국민 30~50만명을 죽이고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도 불리 우는데, 자신이 우간다에서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계속유지하고 싶어서 어느 날 주술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우간다의 종신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라며 능력을 받고 싶어 한다. 그때 주술사는 "아들의 심장을 꺼내 먹으라"고 지시한다. 이디아민 대통령은 주술에 미쳐 자신의 열살배기 아들의 가슴을 가르고 살아있는 심장을 꺼내 먹었다고 한다. 또한 우간다 북부에서 반군으로 유명한 조세프 코니는 20년 동안 40만명을 죽이고 6만명의 어린이를 소년병으로 잡아갔다고 하는데 그는 신접한 주술사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전통신앙과 영적세계에 관하여 사례를 통해서 '독특성'을 알아보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한다.

❹-3 Changing History, Changing Geography, and how to respond? Michel Awad / Egyptian Mission

I was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and I came to know the Lord Jesus as my personal Savior and Lord at a very early age. My eyes were opened on the mission work while being in the medical school. Soon after qualifying I had my first visit to two Arabic countries, Tunisia and Algeria in1989. Since then I had many short term mission trips to most of the Arabic countries. Also I participated in teams reaching out for Arabs in UK. In 2003 while being in Sudan for a medical outreach I realized tbe importance of the medical work as an effective avenue for sharing the love and good news of Jesus. Since then I started with other brothers DWAV "Doctors With A Vision", which aims at equipping and training medical students and junior doctors how to live out and share God's love in the medical contex. My dream is to mobilize healthcare professionals to bring the Good News of holistic healing to the peoples of our region.

As we live through these unique events in the Middle East, we cannot be blind to the fact that history is dramatically and unpredictably changing. One may say that this is life ! True, but what is even more striking is to realize how much geographic features are changing nowa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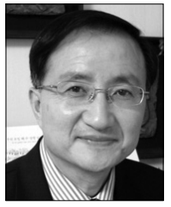
So the crucial question we have to face is, "What is our response?'

Do we realize that history is in fact "His Story", and that we have the privilege to share in writing it? Do we realize that "The earth is the Lord's, and the fulness thereof; the world, and they that dwell therein"Pss 24:1, and that as God's Ambassadors we are given a mission? Jer 1:10 See, I have this day set thee over the nations and over the kingdoms, to root out, and to pull down, and to destroy, and to throw down, to build, and to plant.

❹-4 동북아 선교의 전략 이귀범 / 글로벌외교전략연구소장

이귀범 선교사는 왕성교회선교사로 GMS교단에서 파송되었으며, 민족복음화운동본부장과 글로벌외교전략연구소장으로 사역중이다. 현재는 KAPC선교사로 사역중이다.

❹-5 한국내 태국인 다문화 사역 이용웅 / GP 연구개발원장



이용웅 선교사 소개 태국 선교사로 10년간 사역하였고 2005년부터 GP 한국대표 사역 후 2012년부터 GP 연구개발원장으로 선교지를 연구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주말에는 의정부에 있는 태국인 교회를 섬기고 있다. 청년기의 주향, 신향 두 딸이 있다.

한국에는 현재 186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30%는 단순 노동자(비전문취업, 방문취업)들이고 나머지는 재외동포, 결혼, 유학생, 전문 인력 등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 가운데 중국인(중국동포 포함)이 51%이고 미국(8%), 베트남(7%)이고 태국(5%)에 이어 필리핀(3%), 일본(2%)의 순이다. 출입국관리소-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6.2월호 외국인이 5%가 넘으면 다문화국가로 분류하는데 현재 한국은 3.7%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일국가가 아니라 다인종 국가가 되고 있다.

초창기 외국인 노동자들 가운데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 등 정식으로 들어온 이들은 소수였고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000년도에 화성, 인천 등에 몇 개의 태국인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인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하였다. 2003년 태국 출신 선교사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ACTS) 출신 제자들을 중심으로 TMN(Thai Mission Network)란 연합체를 만들어서 영락교회 여전도회의 도움으로 설날과 추석 일 년에 두 번씩 연합집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15개 교회가 일 년에 두 번에 걸쳐 꾸준하게 연합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태국인 교회는 안산, 화성, 안양, 의정부, 동두천 등 주로 서울 외곽에 있고 천안과 광주에도 있다. 서울은 명성교회가 태국인 사역을 하고 있다. 연합집회 사역이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교회들마다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교인들 대부분이 합법, 불법 노동자로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신분이기에 지도자 양성이 시급한 일이었다. 태국은 아직 불교의 나라이고 교회가 없는 곳이 많기에 이들을 훈련시켜 교회가 필요한 태국에 교회를 세우는 비전에 뜻을 모으게 되었다. 7년 전 태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방콕의 BBS(Bangkok Bible Seminary) 신학교에서 사역한 우리 GP 선교회 소속 김중식 선교사가 한국 성서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방콕의 BBS 신학교가 대만 등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던 BBS 연장교육 과정을 허락하여 현재까지 BBS KOREA 신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❹-6 소수민족의 주 민족 선교동원 ; 대륙동남아 소승불교권을 중심으로

오영철 / 태국선교사

오영철 선교사는 1995년 GMS에서 태국으로 파송되어 카렌침례총회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며 현제 소승불교권선교 연구로 플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 중이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조교수(연구전담)로 사역중이다.

새로운 세계 교회시대는 새로운 선교적 상황을 제공하였다. 중요한 특징은 교회와 선교의 주세력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이동한 것이다. 비서구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서 서구 비해 약자이다. 강자에서 약자로 가던 선교환경이 약자에서 강자로 가는 상황이 요구되고 있다.

대륙동남아의 소승불교권은 새로운 세계교회 환경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약자인 소수민족가운데 부흥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지역의 소수민족교회의 주민족 선교는 새로운 세계선교환경의 선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수민족교회도 선교의 부름에 예외가 아니다. 특히 새로운 세계교회와 선교의 환경에서 이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대륙동남아 소승불교권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소수민족을 통한 주민족 선교가 요청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교방향에서 유익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이들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 성경의 선교원리와 방향은 약자인 소수민족교회를 위하여 더욱 적합하다. 왜냐하면 약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약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가 대륙동남아 소승불교권 가운데 구체적으로 되기를 기대한다.

❹-7 일본선교 어디까지?

정순엽 / 일본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정순엽 선교사는 1995년에 J.T.J 선교신학교 졸업(J.T.J 선교신학교졸업), 1999년 법정대학교 통신교육부 일본문학과 졸업하고, 2002년 Louisiana Baptist에서 목회상담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다마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면서 바나바복음선교회 회장과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동일본지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본복음교회연합 부이사장과 동경한국YMCA 대표이사, 동경CBMC지도위원, 동경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 재일본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 전국회장으로 사역중이다.

일본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는 15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본의 현실은 인구 약 1억2천4백50만명 중에서 크리스챤은 1%이하이고 교회 수는 약 7천7백개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일본선교의 현황을 보면 한국에서 파견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일본에서 자생한 교포 중심의 교회, 유학생과 주재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교회, 일본교단에 속한 교회 등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는 11년전 초교파적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모여 일본선교를 위한 전략과 정보 제공 등 선교활동을 함께하는 단체로 출발하였습니다. 근래에 중요한 재일한국기독교선교협의회의 활동을 보면, 2011년3월11일 동북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일본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솔선하여 재해현장에 뛰어가 일본교회와 협력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영적 힘을 재충전하는 일한동북 기독교인 신앙회복성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일본목회자와 한국선교사님들의 일본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일한선교포럼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이 일본에 건너와 포교 활동하는 것에 대비하여 일본이단상담소를 개설하여 일본복음주의이단대책위원과 상호 정보교환 및 이단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회와 교인을 지키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한국교회연합회와 선교협약을 맺었고, 금년에는 KWMA와 KWMCF의 협력단체로 선교활동과 의료관계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것은, 2017년 1월에는 일본에서 각각 따로 사역을 하던 두 협의회가 하나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신년성회와 통합총회를 열어 일본선교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래의 일본선교는, 이와 같이 우리 한국인 목회자와 선교자가 먼저 하나되어, 일본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선교하는 길을 모색해 나간다면 멋지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응원을 부탁 드립니다.

❹-8 터키 현대이슬람운동의 상황화 연구

조용성 / 파키스탄 선교사

조용성 선교사님은 격동의 1970년대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꿈꾸던 선교사님은 총신대학교 대학원(M.Div, Th.M)을 졸업한 후, 잊혀진 땅 소아시아에 1세대 선교사로 들어가 26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선교는 얼마나 빨리 하느냐 보다 얼마만큼 바른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은 터키 국립 마르마다(Marmara)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사를 공부하셨고(MA, Ph.D), 현재는 GMS(총회선교훈련원) 훈련원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1. 패툴라 귤렌의 생애와 사상 2. 패툴라 귤렌 운동의 역사적 접근 3. 패툴라 귤렌의 기업을 통한 이슬람 운동 방향 4. 사이드 눌시의 영향 5. 향후 유럽에서 현대 이슬람 확장 6. 문명 간 연대 운동과 무슬림의 거룩한 이동 7. 언론과 지성과 기업을 앞세운 활동 8. 세속주의와 이슬람 종교 9. 이슬람과 십자가 복음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❹-9 중동 사역자가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자질은?

이영한 / 바울선교회T국 선교사

이영한 선교사는 1983-1993년 오엠 선교회 소속으로 사역했으며, 1991-현재까지는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사역하고 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회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선교는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예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희생양으로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사실상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핵심적인 메세지는 천국복음이었다. "천국이 가까왔다"고 하신 말씀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리스도 를 주로 고백하며 각각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함으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있었다. 천국 시민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에 걸맞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되신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는 길외에 다른 것은 없다.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교지의 문화에 따른 선교 전략을 익히는 것 보다 먼저 그의 삶을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권아래 내려 놓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소유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지난 33년을 선교지에서 생활해온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선교 사역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 보다 더욱 중요하고 최우선되는 이러한 과제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중동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❹-10 무슬림 지역에서 어떻게 제자훈련과 신학교 사역을 하여야 하는가? 이준재 / 파키스탄 선교사

장신대(M.Div)를 졸업하고 서울의 명성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였으며 Fuller 선교 대학원에서 선교학석사 (Th.M)과 선교학 박사(D. Miss)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 부터 예장 통합 선교사로 파키스탄의 화이살라바드에서 신학교, 교회, 전도, 미션스쿨 등의 사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파키스탄 복음주의 신학대학 (EBC)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세계 복음화의 엄청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슬림권에서 복음 증거는 이 세대의 선교사들에게 특히 한인 교회와 각 나라에 흩어진 한인 이민교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큰 사명입니다. 이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무슬림 지역에서 지역사회 개발, 병원, 학교, 방송, 번역 등의 다양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이 있지만 제자 훈련과 신학교 사역은 무슬림 지역 복음화에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사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지식을 위주한 서구 신학교의 모델은 여러면에서 한계가 많습니다. 구약시대 능력 사역을 한 엘리사의 선지학교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의 두란도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선교지에서 어떻게 제자훈련과 신학교 사역을 하여야 하는지 좋은 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적합하며 타종교를 압도 할 수 있는 탁월한 말씀의 가르침과 능력 사역과 복음때문에 사회에서 축출될 수 있는 상황에 적절 한 이론과 방법이 무슬림지역에서 제자훈련과 신학교 사역에 필요합니다.

이교도의 틀린 구원의 가르침과 마술(Black Magic)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선교지에서 복음이 말씀과 함께 능력으로 함께 전하여져야 하며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현지 사역자들과 제자를 훈련하고 가르쳐야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신속히 이룰수 있습니다.

❹-11 IS출현과 이스라엘 회복 이슈 정형남 / 요르단 선교사

성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Reformed Theology Seminary 개혁 신학 연구원 M. Div. 졸업, Liberty Theology Seminary, Lynchburg, VA. MAR, Th. M. 졸업, 현 Liberty Theology Seminary, Lynchburg, VA. D. Min 과정, 현 Columbia Presbyterian Mission Church (콜럼비아 선교장로교회) 담임목사

IS(이슬람 국가), 즉 "이라크 ·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의 "레반트"는 레바논과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을 아우르는 지명이다.이라크와 레반트에 속한 시리아와 요르단과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총 6개국)는 기독교역사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속되는 국가들로, 기독교인구가 2,000만 정도가 된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라크와 레반트의 기독교 공동체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있다. 튜니지아에서 시작된 이른바 아랍의 봄이 시리아와 이라크에 도착하였는데, 그 결과가 수니파 IS의 출현이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봄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아직까지 건재 하다면, IS는 결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 풀러신학교의 전 총장 리차드 마우어 박사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2003년)이 초대교회부터 계속되어 온 이라크 기독교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도록 한 사건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후세인은 같은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는 가운데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과의 전선에서 첨병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국이 그 첨병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자신을 결코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를 제거하였을까? 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될 수가 있겠지만, 필자는 미국교회의 이른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큰 몫을 차지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릇된 이해는 미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와 아랍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❹-12 IS 극단주의 이슬람과 시리아 난민 상황 및 사역 김교회 / 터키쿠르드선교

김교회 선교사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인터콥소속 터키(쿠르드족) 선교사로 사역중이다.

2010년 말 튀니지를 시작으로 한 중동 국가들 사이의 중동민주화 운동은 2011년에 시리아 내전으로 이어졌고, 지금까지 내전은 6년이나 지속되면서 시리아 내 사망자는 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벌어졌던 내전은 2013년 시리아 내에서 세력이 커진 IS로 인해 양상이 달라지고, 국제법에 위배되는 IS의 무차별 학살과 테러로 전 세계 60개국 국제 연합국을 출범시키기에 이른다. 강력한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로 출범한 IS를 떠난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 국내에는 약500만 명의 난민이, 국외에는 600만 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국외 난민은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 등지로 이주한 상태이며, 유럽까지 난민행렬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난민의 유입을 막고자 최근 터키와 난민 협정을 체결, 난민들은 유럽에서 터키로 다시 재송환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동 각 국의 난민 상황을 알아보고 터키 내 도시 별 난민 캠프 상황을 확인해보고 캠프 외 지역의 난민들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 및 세계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무엇이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❹-13 갈등의 핵 예루살렘과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김인식 / 샬롬예루샬라임 미주대표

김인식 목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A.), 장로회신학대학교 (M.Div),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M/D. Miss.)에서 공부했으며, 웨스트힐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31년째 사역중이며, 해외한인장로회(KPCA) 33대 총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이스라엘성경세미나강사로 사역중이며 샬롬 예루샬라임 미주대표로 섬기고 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였지만 팔레스타인들은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교황은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의 성지로 예루살렘을 국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연합은 1967년 6일 전쟁 후 예루살렘을 유대인의 독립국가인 이스라엘의 나누지 않은 수도로 정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6일 전쟁 이전 국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예루살렘은 국제 정치 가운데 최고의 갈등과 논쟁 장소 중 하나다. 이슬람 국가들과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슬람 지하드는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서구사회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지도상에 없애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리가 없이는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이 판단의 기준이요 정의의 근거가 된다. 예언의 유일한 완전한 설명인 역사를 고찰해 보며 과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란 뜻이다. 성경에 성산, 시온, 시온산성, 하나님의 성, 살렘, 외인의 성읍 등 여러 모습으로 나온다.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약 800번 정도 나온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려고 택하신 장소이다(신12:5, 11, 21; 신14:23, 24; 신16:2, 6, 11; 대하6:6, 왕상 11:36, 시 132:13-14).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요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실 곳이다. 성령이 강림하신 곳이요 교회와 선교가 시작된 곳이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이다(겔38:12). 인류 역사는 예루살렘 쟁탈전이었다. 예루살렘은 사방 민족을 취하게 하는 갈등의 핵이다(슥 12:2-3). 마지막 때 다시 한 번 메시아 왕국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겔 38장).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왕국을 이루시고 진정한 평화 속에 친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사 24:23, 사 2:1-4).

❹-14 이스라엘, 그 구속사의 시계 (지금은 예루살렘 시대)

송만석 / KIBI 대표

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 한*이 성경 연구소) 대표, 고려 신학대학교 (M. Div),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20년, 전,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저서 〈지금은 예루살렘 시대〉, 이스라엘 성경 세미나 강사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관심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시간의 축에 따라 살펴야 하며, 지금, 인류 역사의 시각이 몇 시쯤 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해야한다.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의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이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주권을 다시 찾은 지 내년이면 50년을 맞이한다. 1900년간 잊혀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일이다.

과연 인간이 한 일일까? 단연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셨다고 말 할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찾고 "예루살렘 시대"가 열린 것을 보는 것이다. (누가 21:24)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유다 왕국의 수도였다. 도시의 명칭이 변하지 않은 가장 오랜 도시 중의 하나이다. 이 도시는 다윗이 세웠지만 사실상 이 도시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왕상 11:36)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왕하 21:4)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셨던 곳,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첫 발을 내딛는 동편 감람산이 있는 곳 (슥 14:4)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❹-15 세계 선교와 함께 가는 유대인 선교

송하경 / 이스라엘 선교사

1986년International Bible College(B.A.), 2003년 Kings Seminary(M.DIV.), 2006년 해외 장로회(장로회 통합) LA 노회에서 목사안수, 1985년 웨스트 힐 장로교회에서 유치부, 대학 청년부 지도담당, 2005년 이스라엘 선교사로 파송, 2016 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서 사역 중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도 세웠지만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앗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며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만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살았지만 이들은 식민지 나라로서 바벨론에 이어 페르샤, 헬라,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AD70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성전은 로마 티투스장군에 의해 돌하나 돌위에 남지 않고 완전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열방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없어지고 사라진 것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때가 되어 1948년 5월 14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2362년 만에 독립하였고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인구는 800만명(2013년 인구조사)이 넘고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쥬)는 약 3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 1,324만명:Jewish Agency) 이들은 유대교로서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오신 메시야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않고 있으며 유대인의 완전한 왕으로 오실 메시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하였습니다.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옴으로 우둔한 유대인들의 눈들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메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는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며 다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길이 예비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❹-16 세계 선교와 함께 가는 유대인 선교

김황신 / 은혜한인교회EM

Lead Pastor of English Ministry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M. Div. from Talbot Theological Seminary, Travelled over 22 nations including Israel training the short term mission teams to evangelize, to make disciples and to plant the churches focusing on Israel, UUPG's, and Muslim nations.

1. INTRODUCTION
1) Israel holds the key.
2) Israel is the foundation of blessings.
3) Israel is the main flow of bible stories.

2. Israel holds the key.
1) God's story unfolded through the history of Israel.
2) The Beginning and The Ending
3) Israel and the Last Days

3. Today in Israel:
1) Population of Israel
2) Approximate number of believing Jews or Messianic Jews
3) Approximately 1.5 million Russian Jews who have returned to Israel.
4) Each year more Jewish diasporas are returning to Israel

4. Our Attitude towards Israel:
1) Pray for Israel
2) Give for Israel
3) Mission Trips to Israel
4) Study Israel

❹-17 디아스포라 타민족 선교를 통해 건강하게

이돈하 / 오레곤벧엘장로교회 담임

서강대학교, 총신대학원 졸업, Trinity International University 교육학 석,박사졸업, 2011년부터 현재까지 오레곤벧엘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또한 서북미 장신대학원 겸임교수로 사역중이다.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1세와 2세 파너트쉽의 씨너지를 통해 지역교회가 미국내 및 해외 선교를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며 이를 교회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워가고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1) 1세 한어권과 2세 영어권이 함께 선교를 통해 성숙, 성장 할 수 있는 모델제시
2) 포틀랜드 다운타운 홈리스 사역을 통한 도시 빈민선교
3) 미국내 미전도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지역교회의 사명과 역할
4) 한인교회의 북미 네이티브 어메리칸 선교에 대한 전략
5) 지역교회의 선교부서 조직 및 교육, 단기선교 및 선교대회 준비방법

❹-18 다민족 대학인 선교를 통한 세계선교

송종록 / 기독대학인회

선교사 경력 26년 차, D. Min, Ph. D, 미국CITS 선교학 교수, 시인, 수필가, QT 일용할 양식 집필위원, 미주 크리스천 신문 칼럼리스트, KWMC 2016 대회 실행총무, 미주한인선교단체협의회 (Korean American Mission Association) 회장

21세기 세계선교! 이 엄청난 과업에 누구를 주력 부대로 일으켜 세워야 하는가? 새벽이슬 같은 대학청년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고 기동성이 있으며 진리에 대한 수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차 나라와 민족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석학 말릭(C.H. Malik)은 "대학은 서구 문명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산물 중의 하나라고"했다. 확실히 대학 캠퍼스는 사회 모든 곳을 적시는 일종의 물 근원과 같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청류인지 탁류인지에 따라 한 공동체의 미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지성인 그룹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나타나도록 탄원하며 선교적 부담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오늘의 대학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사상의 혼돈, 다원주의, 맘몬니즘, 에고이즘, 동성애, 쾌락주의, 영상문화가 숭고한 상아탑에 범람하고 있다. 신에게서 인간으로 사조의 틀이 변혁하는 이 때에 우리는 대학인 선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단 말인가? 본 강의는 지난 2,000년 대학선교의 맥을 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5. 선교사 그 삶과 사역

❺-1 Notes for Pioneering new Ministries

론 스미스 / YWMA

현재 전세계 50여개의 학교를 통해 지난 30여년간 1만여명의 선교현지 성경교사들을 배출해낸 YWAM의 성경연구학교(SBS)를 로렌 커닝햄 목사의 초청을 받아 하와이 코나에서 1981년 처음 열었던 론 스미스 박사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한 바울 사도의 말을 좇아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여 선교지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써 왔다. 현재 몬타나주에서 SBS를 담당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다.

• Fellowship 13:1 • Fasting and Prayer 13:2 • Confirmation of the Holy Spirit 13:2
• Opposition 13:8ff • Quitters 13:13 • Preaching the basic gospel 13:17ff
• Focusing on people open to the message 13:46, 48 • Signs and wonders 14:3
• Mixed Feedback 14:19-27 • Reporting back to Senders 14:24-27

❺-2 선교와 성경 이야기 사역

김연수 / KWMA 총무

김연수 목사는 합동신학대학원(M. Div),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M.A.),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M.),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Ph.D)를 졸업하였다. 남서울교회(홍정길목사시무) 대학부 지도 사역, 인도네시아, 이리안 자야, 끄웨르바 부족 성경번역사역, 아태아대학원(ATEA Institute for Intercultural Studies) 부총장(학사)을 역임하였고 현재 스토리텔링사역연구소(SMI) 대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국제총무로 사역중이다.

1. 성경 이야기 사역의 정의
1)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묵상하고 함께 나눔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
2) 성경 이야기들을 들을 사람들의 절박한 필요(felt-need)에 맞추어 세트로 만들어 복음에 접근하게 하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제자양육을 해나가는 방법

2. 성경 이야기 방법의 전제
1) 본질적인 성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야기를 선별하고 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2) 그것은 수용하는 사회의 세계관에 민감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선별된 이야기들은 성경의 문맥에 충실하고 동시에 관심/목표 언어(target language)로 자연스럽고 설득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4) 그 사회가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그들의 문화와 관련되고 그들을 편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3. 다양한 성경 이야기 사역
1) 성경 이야기로 전도하기
2) 성경 이야기로 성경 공부 및 제자양육하기
3) 성경 이야기로 주일학교 성경공부하기
4) 성경 이야기로 신학 교육하기
5) 성경 이야기로 설교하기

❺-3 4/14 선교전략 - 화살선교론

허연행 / 프라미스교회, 수석부목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 졸업(B.A), 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M.div.), Drew Theological Seminary 졸업(S.T.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수료(D. Min cand.) 하였으며 뉴욕신학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아틀란타 프라미스교회를 목회하였습니다. 현재 프라미스교회 수석부목사로 사역중이다.

1. 가정의 설계자와 설립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허물려고 한다(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한국에서의 3포 현상 등). 인간은 그 사이에 끼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위기의 본질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성경적 전략의 하나인 화살선교론을 소개한다.

2. 화살을 보라!
- 각 세대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
- 구별은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한 몸(One Body)을 이루어 같이 움직여야 한다.
- 도전 : 오늘날 우리의 선교 화살은 방향이 거꾸로 되어 있지는 않은가?

3.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God of all generations)

❺-4 4/14 선교전략 - What

허연행 / 프라미스교회, 수석부목사

1. Ages at which Americans say they accepted Christ and became a Christian
   (The data in the pie graph or chart comes from Nazarene Church Growth Research.)
   "당신은 몇 살 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2. 10/40W에서 4/14W으로
3. 어린이가 솔루션이다(Jesus is the answer. Children is a solution)

❺-5 4/14 선교전략 - Why

허연행 / 프라미스교회, 수석부목사

1.어린이 선교가 중요한 5가지 이유

1) 아이들은 복음의 수용성이 강하다.
2) 아이들은 복음의 전달력도 뛰어나다.
3) 어린이들은 복음의 일꾼으로 오래 쓰임받을 수 있다.
4) 어린이 선교는 접근성이 용이하다(심지어 공산권, 사회주의 국가도 환영)
5)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2.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음 세대를 놓치고 있다.

3. 이제는 선교도 어린이 싸움이다.

❺-6 4/14 선교전략 - How

허연행 / 프라미스교회, 수석부목사

1.한 이민교회의 글로컬(glocal) 선교 사역 소개(뉴욕 프라미스교회를 중심으로)

1) 학교 설립 (뉴욕, 중남미 10개 학교 설립)
2) 국내외 글로벌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3) 문화 선교 : 뮤지컬 His Life (서울, 수원, 부산, 뉴욕, 아틀란타, 중미, 중국)
4) 스포츠 선교 : 프로 축구팀 초청 주요 도시 순회(중남미 23개 구장, 한국 3개 구장
5) Powerhouse 사역(토요 무료 어린이 선교 프로그램)
6) 솔라등(Solar Lamp) 프로젝트

2. 결론 :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❺-7 세계 선교환경과 창의적 선교전략

조용중 / 글로벌호프

전 지피선교회 대표, 전 세계한인선교사회 사무총장, 대표회장, 현 글로벌호프 대표, GNMS 국제대표 (트리니티대학교 Ph.D.)

1. 외부환경의 변화 - 세계화와 지역화, 도시화, 디아스포라, 재난 급증, 포스트모던주의
2. 내부환경의 변화 - 세속화의 도전, 다원주의의 도전, 비서구권선교세력 확장, 현지인 대체, 변화된 선교지 이해
3. 창의적 선교전략 - 융합선교, 변화된 선교사의 역할

❺-8 건강한 사역의 이양

김종국 / 고신총회세계선교회본부장

1983년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로 사역중이며, 인도네시아 복음장로교단(GPII)과 인도네시아 장로교신학대학 설립하였고, 2003년 설립된 복음장로교단(STTP)의 학장직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Biloa대학교 초문화권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를 취득하여 현재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공동회장과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주력해 왔다. 선교사들도 현장에서 열심히 개척하고 확장하는데에 주력해 왔다. 그동안의 헌신으로 선교사의 수가 늘고 현지 사역, 동역자들, 자산들이 늘면서 선교의 출구전략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건강한 이양의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의 제자양성, 바울의 지도자양육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과 바울은 공히 Pioneering에 초점을 두었고, 팀사역의 기반을 만드심으로 제대로 된 이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강사는 피터 와그너의 '선교사역 전환의 4단계'와 헤롤드 풀러의 소위 '4P모델' , 톰 스테판의 다섯단계 모델을 등을 통해 건강한 사역이양의 이론적인 근거들을 제시한다. 실제적인 사례연구로 KPM첫 선교사인 김영진 선교사로 부터 시작되어 55년동안 이루어진 대만사역에서 이루어진 건강한 이양의 사례를 살펴보고, 동시에 강사인 김종국 선교사의 사역이양의 경험들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이양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과 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므로 성경적, 이론적, 사례적, 실천적 논의를 마무리한다.

❺-9 삶을 통한 선교 (사망에서 생명으로)

박수영 / 태국선교사, 글로비전대안학교교장

3세때 뇌성마비로 온몸을 가누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다가 초등학교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은 후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어, 백석신학대학원 대학을 졸업(M.Diiv)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 러시아에서 3년을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구백석) 교단 총회선교부에서 태국으로 재파송되어 15년째 교회개척사역과 컴퓨터와 음악교육을 통한 문화선교사역을 감당하며, 한국과 미국 등에서 간증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동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3살때 맞은 예방접종후 오르는 고열을 관리하지 못하여 뇌성마비 3급 장애인이 되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얼굴 표정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나 늘 시험만 보면 1등을 하는 재수없는 아이로 모든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며, 삶의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는, 늘 왜 나는 살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때 만난 친구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인해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삶의 기쁨과 목적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철저한 불교신자인 어머님의 불같은 책망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다니면서 기적적으로 점차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면상 생략)

❺-10 전도와 교육을 위한 생동감 넘치는 Object Lessons

여병현 / 미국 어린이전도협회한인지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195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198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36동안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사이다. 1990년 한국 어린이전도협회에서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So. CA 한인 지회 대표로 2016년 현재까지 사역을 계속해오고 있다. 매년 미국과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자 훈련과, 교회학교 교사 교육, 교사대학, 학부모 세미나, 선교사 교육, Leadership Seminar, 가정세미나, 장년집회, 어린이, 청소년 부흥회 및 캠프를 인도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전문사역자이다.

전도와 기독교 교육을 위해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과 메직자료들을 활용한 효과적인 전도와 교육 자료들을 시범 중심으로 강의를 듣고 사역 현장에 돌아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실제적인 강의 입니다.

❺-11 선교지의 미래를 바꾸는 빵육(0-6세)세 유아교육

신소피아 / Mission Globalization

자녀-부모교육 세미나 강사로 매 10년 이상 단기 선교를 다녀오며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였고 현 오렌지한인교회에서 영유아 담당목사로, AEU, CTCS, GGBTS CLD 교수로 활동하며 GBC 미주복음 방송에서 "방글방글 빵육세 자녀교육" 방송사역 강의, 모퉁이 돌 선교회 방송에서 기독교 자녀교육 강의, Woman's Mission Globalization 구국 기도운동 운영하고 있는 신소피아 박사는 윌리엄캐리대학교에서 유아발달 철학박사학위, 풀러신학교에서 글로벌 사역으로 박사학위를, 그리고 골든게이트침례학교에서 M.Div와 기독교 교육으로 M.A.를, 쉘튼대학에서 성서문학으로 B.A., 노스오렌지커뮤니티대학에서 영 유아 교사 및 원장자격증을 획득하고 플럼필드학교에서 프리스쿨 교살 5년간 근무하고 아동 교회사역을 25년간 해오고 있다.

0세에서 6세까지 아이는 두뇌개발, 집중력, 창의력과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의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적교육, 재능교육으로 아이들을 똑똑하고 훌륭하게 키울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도 영적 민감성을 가진 존재임을 인식하여 예배 훈련과 성경을 통한 자녀교육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신앙이 되물림 된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살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미나를 통해 왜 6세 미만의 자녀교육이 중요한지, 또한 선교지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왜 부모가 유아교육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 소중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❺-12 교회학교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

이옥희 /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간사

이옥희 전도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미국어린이전도협회 간사로 그리고 주마음교회의 교육부를 담당하며 오직 한길 어린이들만을 위해 30여년동안 사역해온 어린이 전문 사역자이다. 주일학교 교재 및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고 미국과 해외를 순회하며 전도자 훈련, 교사교육, 어린이 부흥회 & VBS와 캠프를 인도해온 어린이 전문사역자이다.

이옥희 전도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고 미국어린이전도협회 간사로 그리고 주마음교회의 교육부를 담당하며 오직 한길 어린이들만을 위해 30여년동안 사역해온 어린이 전문 사역자이다. 주일학교 교재 및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고 미국과 해외를 순회하며 전도자 훈련, 교사교육, 어린이 부흥회 & VBS와 캠프를 인도해온 어린이 전문사역자이다.

❺-13 교육선교와 동남의 선교 교두보 제주

좌영진 / 시카모어유니버스 제주캠퍼스 학장

좌영진 목사는 일본그리스도교단기대학신학과 졸업, 아리조나 휘닉스일본감리교회와 크리스천헤럴드 사장, 미주일본선교훈련원장 및 미드웨스트대학 국제교류 디렉터, 미주일본인교회100주년기념대회 준비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대한기독병원협회리더십 경영최고위 과정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 주님의영광교회 서울캠퍼스 선교동원 목사로 사역하면서 미니채플세우기운동재단 사무총장과 시카모어유니버스티 제주캠퍼스 학장으로 섬기고 있다.

작금에 제주의 선교의 전진기로 지리적 위치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카모어유니버스티 제주캠퍼스는 중국,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선교 지에서 보내오는 훈련생들을 선교훈련을 하는 귀한 일들을 하고 있다. 특히 자타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제주에서의 신학교육과 각종 컨퍼런스가 피크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학과 각종 선교훈련프로그램의 넘쳐나고 있어서 필터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는 보내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선교훈련은 대리고 와서 질적인 교육을 책임지질 또 하나의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파송 할 의무가 있다. 제주시카모어유니버스티 제주캠퍼스는 선교대학으로 교육선교와 동남의 제자화 사역에 지향하며 각 지역의 선교사님들의 제자들에 대한 위탁교육과 그리고 안식년 선교사들의 학위코스를 열어 자녀들과 함께 안식하며 공부할 수 있는 일들이 될 것이다. 현재 매년 200명 이상 훈련과 교육으로 배출되는 학생과 지도자들의 넘어가고 있다. 이 일들의 마지막 세대에 지상명령 중 하나인 교육을 통해 완수 하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 현장 보고입니다.

❺-14 과테말라 공립학교의 기적 : 도덕 과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다

한재홍 / 과태말라 선교사

한재홍 목사는 뉴욕신광교회를 개척하고 28년 시무하다 은퇴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이외에도 뉴욕 교협회장, 목사회 회장, 청소년 센터 대표, 기독교 방송국 국장, 뉴부런스윅 신학교 이사역임, 한국일보 칼럼니스트 등의 사역을 하였다. 뉴욕 신광교회를 개척하고 28년간 시무하고 은퇴했다. 은퇴후에 과테말라 공립학교 도덕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본인은 뉴욕신광교회를 은퇴후에 과테말라 공립학교 도덕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유요한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르침에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교육청장의 결단이 단추가 되어 전국적으로 문교부의 결정에 의하여 300만명의 학생들에게 도덕이란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10만명의 국립학교 교사들을 도덕교사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인의 모든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기에 이번 선교대회때 많은 교인들과 목사와 선교사님들이 모이기에 기도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세미나에 참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교사를 5천명 훈련을 시키어 31개 학교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국립학교 교사를 훈련 시키는 일에는 한 교사에게 성경한권 ($4), 교제한권 ($4), 간식 ($2) 해서 $10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재는 1불에 두권을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0만불을 목표로 약 5년을 두고 진행하려 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중남미에서 범죄가 제일 많은 국가인데 이 나라가 변화되면 중남미는 자연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❺-15 언어학습혁명, 선교전략혁명

김종성 · 장춘화 / 한GLO

김종성목사 : 장신대신대원, 고려대대학원. 영남대심리학박사-웨스트민스터신학교상담학박사수료, 경주에서 20년간 담임목사. 가톨릭의대통합의학외래교수 역임.

장춘화사모 : 동국대역사교육과 졸업. 관관공사일본어강사역임. 한GLO 방법으로 4개국어능통 14년간 수많은 제자양성. 국제청소년교류협회 회장역임. 한GLO 개발자.

1. 전세계 선교사 언어훈련원

- 언어학습혁명, 선교전략혁명!
- 이보다 더 쉽고, 빠르고, 완벽한 방법 없다!
- 원주민과 언어장벽, 3개월에 뚫을 수 있다!
- 언어교육(한,영,중,일,러,스)으로 원주민에게 접근
- 더 이상 후원금 없이, 자립선교 할 수 있다!
- 성공한 선교사님들 아는 비밀? 언어학습법 과학화!
- 세계 모든언어 교재(소리나는 책), 만들어 드림!

2. 각국언어로 6종언어(한,영,중,일,러,스) 학습

- 언어교육(한,영,중,일,러,스)으로 선교지 아이들 교육!
- 6개국어 지도로 경제적 자립선교 할 수 있다
- 저교회아이들 외국어 잘한다'소문이 전도에 탁월!
- 소리나는 책과 사운드펜이 완벽한 외국어선생
- 나는 학생관리만 하면서 함께 언어 배우게 됨
- 학습교재는 다양하게 완벽히 개발되어 있음
- 학생 말하기대회 개최- 우수학생 장학생 선발

*선교위해 사용할 한글교재(소리나는책) 무료로 무한공급해 드립니다.

❺-16 Introducing Come Summer Mission School

이요엘 / 컴미션 선교사

Joel Lee is the husband to Elisa Lee and is the father to Eloise Lee. He was born in Torrance, CA on December 7th, 1984. When he was 3 months old, he went to the Gambia, West Africa, following his missionary parents. He graduated from USC, majoring in Psychology. Due to a dramatic conversion experience, he went to King's Seminary in Van Nuys, CA and graduated with a Master's in Divinity. In 2013, Joel and Elisa left for China as overseas missionaries. They have been in China for more than 2 years, learning the language and equipping the church in China and in the surrounding nations.

The vision of Summer Mission School is to finish the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targeting unreached areas of the world. SMS is a holistic leadership program that targets and trains the whole person (heart, mind and body) to produce powerful leaders who can transform our world.

SMS is a 3 week training intensive that will cover three major areas of our Christian faith: Power, Character and Understanding. Specific topics will include: Renewal of the whole person through the True Gospel, Reformation of Society, Obedience to the Holy Spirit, Building Worship-centered communities and Our Missionary Mandate. Our core conviction is that the gospel must be preached in every nation (Matt 24:14), not simply as a duty, but as a heart-felt response to the worthiness of Christ. Our desire is that SMS will be a launching point for many young people who long to see Jesus exalted in every nation to prepare for His glorious return.

❺-17 평신도 전문인 선교동원의 구조(인프라)의 개혁을 시도하라

김정한 / SON Ministry

김정한선교사는 SON Ministry 와 GMAN 전문사역그룹네트웍 대표이며 86년도에 케냐선교사로 파송받아 선교를 했고 현재는 미주에서 단기선교전문가로 사역을 하고 있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 회장, KWMF 북미주지회장, KWMC 부회장 및 단기선교분과위원장, 전 KIMNET 총무를 역임했으며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World Mission. (M.A)를 졸업했고 현재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선교학 과정(D.Miss)을 밟고 있다.

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 전문사역을 하면서 현실적인 비전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 미주지역 선교동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안이고 작은교회들의 선교동원에 대한 해답이 될것이라고 기대하며 제안한다. 교회들과 선교계는 첫째, 선교동원구조(인프라)을 온라인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조로 개혁, 둘째, 작은교회들의 선교동원 연대운동을 확대, 셋째, 평신도전문인들의 선교동원을 중점으로 해야 한다. 재정이 아니라 교회들은 사람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화 된 시대에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한 평신도전문인 동원구조를 만들어 새로운 선교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 소고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해결방안이다.

❺-18 BAM 바른 이해와 적용

이근식 / SEED 선교회 부대표

이근식 선교사는 경희대학교(기계공학과) 졸업,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대학원(기계공학과) 졸업, 1994년도에 나성영락교회 파송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2005년에 미주 장신 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2006년에 미주 예장 통합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2006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재파송되어 교회개척과 지도자 양육사역을 2012년까지 감당하다가 2012년 미국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SEED Internal USA 에서 부대표로 본부 사역(교회선교교육, 동원, 선교사훈련, 멤버케어)중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지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사업을 운영하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불러왔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자신의 생활비를 감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에 의존하지 않는 선교사들을 그런 이름으로 불러온 것이다. 최근에는 사업을 통해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를 일컬어 'Business As Mission 약자로 BAM'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개념을 적용하는데 많은 혼동이 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BAM 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선교사가 사업을 전면에 세운다면, 그것은 'Business As Mission' 이 아니고 'Business For Mission'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BAM 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가진 직장/사업 속에서 주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전파를 실천하는 것이며, 선교지에서의 BAM 의 실천은 일반적인 BAM 의 개념을 특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❺-19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전문인 선교와 BAM

최규남 / 그레이스미션신학교

최규남목사는 Grace Mission University의 부총장으로 2006년부터 시무하고 있으며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최목사는 레이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웨스트민스터(CA) 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고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Th.M.과정을 수학했으며 GMU에서 선교전략 분야로 선교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세계 10여개국에서 30여회에 걸쳐 신학강의를 하고 있으며 GMU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창의적 접근 지역 국가들의 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 선교와 BAM이 시급히 요청된다. 필자는 1.5KW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제작.운영하면서 CA주 면허국으로부터 C-46 태양광 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선교지에서의 태양광 발전과 조명사업을 돕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기초부터 수KW급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설계.제작.운영의 전 과정과 300불로 만들 수 있는 400Whr급 태양광 조명시스템의 설계. 제작. 운영을 상세히 전달하려고 한다. 또한 선교지에서 전문인 선교와 BAM에 태양광 발전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한다.

❺-20 아프리카 선교사와 함께하는 MK의 비즈니스 선교

최승업 / 서부아프리카, MK비지니스선교사

최규남목사는 Grace Mission University의 부총장으로 2006년부터 시무하고 있으며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최목사는 레이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웨스트민스터(CA) 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고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Th.M.과정을 수학했으며 GMU에서 선교전략 분야로 선교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세계 10여개국에서 30여회에 걸쳐 신학강의를 하고 있으며 GMU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다.

1. 아버지선교사의 선교활동
2. 아버지선교사를 돕게된 MK
3. 선교비즈니스의 필요성
4. MK의 비즈니스 선교 소개
5. MK의 현지 장점과 극복할점
6. 서아프리카 비즈니스 선교 기회 및 미래전망
7. 아버지와 MK 에게 드리고 싶은말
8. 결론

❺-21 Mission & NGO

김다니엘 / 한반도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교수

김다니엘 선교사는 한국외대 졸업, 침례신학대학 대학원(M.Div., Th.M.) 졸업, 1994년부터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선교사로 사역하였고, IACD 중앙아시아 디렉터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반도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교수로 사역중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통한 국제협력의 시대입니다. 미전도 지역의 선교현장은 교육, 문화교류,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직업훈련, 지역개발, 의료사업 등의 다양한 사역적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사회리더십으로 양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NGO사역을 통해 선교지의 필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교회개척의 전략적 기지를 제공하며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역과 국가를 변화시키며 국제협력에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줍니다.

❺-22 선교적 NGO (빈곤과 기아문제를 중심으로)

정승호 /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사무총장

정승호 선교사는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사무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MDGS를 아십니까?
- 절대빈곤과 기아에 신음하는 지역의 80%는 10/40 WINDOW와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 빈곤지역과 난민촌에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문적인 준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 특히 이 지역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취약한 지역입니다.
- 빈곤과 기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배우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선교적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❺-23 물 복음? 싸고 좋은 정수기르레 이용한 복음전하기

권종승 / 물한그릇 선교회 대표

권종승 선교사는 학부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한 후에 Biblical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전공을 살려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있다.

'물 한 그릇 선교회 (A Cup of Water International, Inc.)'는 세계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선교 단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며, 저렴한 수자원 개발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에서는 보통 플래스틱 물병을 이용한 세라믹 필터 정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정수 필터는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입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여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 일수록, 더러운 물을 식수로 사용하거나 아예 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한 그릇 선교회는 미전도 종족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할 때에, 영생하는 생수인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선교회가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빈곤과 기아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를 배우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선교적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❺-24 WEC의 선교동력과 미전도종족내에서의 교회개척

한명구 / WEC세계국제복음화선교회

한명구 선교사는 대한신학대학과 대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개혁장로회신학교(미국 RPS)를 졸업했으며, 중국사천성선교사로 사역하다가 현재는 WEC 미국본부 부대표로 사역중이다.

WEC(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국제선교회는 1913년 C.T. Studd에 의해 창립되었다. 영국의 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크리켓 선수로 명성을 날리던 대학 시절, 선교의 소명을 받고 캠브리지 7인의 한 사람으로 중국으로 건너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일했다. WEC 의 목표는 마태복음 28:18~20과 사도행전 1:6~11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능한 빨리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 하도록 구체적으로 노력한다. "복음화"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사람들이 그 분에 대하여 예수님과 구세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며, 그들을 제자화하며, 그분의 교회의 교제 안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우리의 최대 긴급과제인 복음이 거의 전파되지 않았거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❺-25 선교지 기도학교 성경 기도 교육의 필요성

김정복 / WEC 기도학교

김다니엘 선교사는 한국외대 졸업, 침례신학대학 대학원(M.Div., Th.M.) 졸업, 1994년부터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선교사로 사역하였고, IACD 중앙아시아 디렉터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반도국제대학원 국제지역학과교수로 사역중이다.

1. 선교지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기독교 복음을 저버린 지역이다. 따라서 참으로 기도가 필요한 곳이다. 선교지에서 "성경적 기도"를 가르치고 배우려면 "기도학교"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에, 제자중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므로 "주기도"를 가르치셨다. (눅11:1-4)
2.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듯이, "성경 기도교육"을 인도한다.
1) 현지인 목회자 와 교회 지도자 및 평신도를 위한 기도교육 세미나
2) 현지인 목회자 와 교회지도자 및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
3) 선교지 신학교에서 기도학(Prayerology)을 강의한다.

❺-26 21세기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방안

주헌국 / 환태평양기독영화제총괄디렉터

주헌국 전도사는 9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과 미디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초고속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인 1995년 웹사이트와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한 복음 전파를 실행에 옮겼고 Computer Academy라는 기독동아리를 결성하고 "아삽과 헤만"이라는 온라인 성경/찬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리눅스 개발 벤처업체인 (주)러브브라더스와 미디어 스트리밍 전문업체인 리얼네트웍스 한국 지부, 미디어 편집 장비 전문업체인 태남디비아이를 거치며 미디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교회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면서 미디어와 선교의 접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기독영화축제를 제안하여 현재 매년 전세계 기독영화인들이 참여하는 환태평양 기독영화제의 실무를 담당해오고 있다.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고등학생 딸과 함께 라 크레센타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웹프로그래밍과 웹사이트 개발, 미디어 제작 등으로 틈틈이 선교단체와 교회의 사역을 돕고 있다

21세기의 미디어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교회와 선교지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열린 환태평양 기독영화제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헐리우드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등 최근의 미디어 동향을 짚어보고 교회와 선교단체, 목회자와 평신도의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교회와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미디어 활용법과 도구들을 소개하고 Q&A 세션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❺-27 사이버미디어 캠페인

강요엘 / 인터콥IT 사역총무

미국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석사를 수료한 후, 캘리포니아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와 컨설턴트로 일하였습니다. 2012년 IT 기술을 통해 선교를 하고자 국제 YWAM에 속한 4K Mapping Ministry 팀에서 전임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인터콥의 IT 사역총무를 겸하여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장단기 사역자들이 선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해 여러 단체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 및 의사결정 시스템의 개발이 주요 관심 사역분야이고,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선교단체들의 협력을 이루는 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을 통한 "IT & Media 선교"가 새로운 사이버 선교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제는 모바일을 통한 "IT & Media 선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에 공급된 핸드폰 타블렛 등의 모바일 기기는 70억 대를 넘어서고 있고, 모바일 사용자는 42억을 넘고 있다. 세계에는 문자를 통하지 않고 구전으로(Oral learners) 정보를 받는 사람이 57억에 달한다. 세계 70-80%의 사람들이 문자를 의지하지 않고 구전에 의지하고 살고 있다. 1,436년 구텐베르그(Gutenberg)에 의해 인쇄술이 발달되어 성경책이 출판된 이후, 1955년 컴퓨터가 발명되었고, 1995년 WWW(World Wide Web)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2007년 드디어 스마트폰 Smart Phone이 등장하였다. 예수 영화는 1,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모바일로 보급되고 있다.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문맹자들도 이제는 오디오 성경 Audio Bible과 예수 영화를 통하여 복음을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Kolo World App, Jesus Film Media, Bible.is 등 다양한 모바일 앱의 개발로 스마트 폰과 폰 안의 메모리 카드인 Micro-SD card로 성경 보급과 예수 영화와 많은 복음 영상을 모바일 사용자들에게 전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아마존 밀림에서 농사에 관한 간단한 만화를 한 핸드폰 사용자에게 전해 준 후 한 달 후에 방문해 보았더니, 50개 이상 마을 수천 명의 핸드폰에 농사 만화가 블루투스 Bluetooth를 통하여 전달되어 있었다. "greatcommision2020"는 소수의 모바일 앱 전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복음 사이트인데, 하루 24시간마다 특별히 10/40창에서 50만 명 이상의 관심자들이 방문하여 , 각 언어로 복음 동영상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메일로 답신을 보내어 현지 교회 연결, 제자 양육의 안내 등을 받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세계선교가 21세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전처럼 성경과 책의 출판보다는 모바일을 통한 성경과 각종 복음 서적 및 영상 보급이 더욱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이슬람권에서도 성경을 책으로 소지하는 것은 위험하나 스마트 폰 안의 모바일 성경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인터넷 어디에서나 다운받을 수 있기에, 경찰의 제지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 모바일 선교가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교 전략이 되고 있다.

❺-28 Distance Education 기술을 활용한 신학교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제임스구 / CMM 대표/ Grace Mission Univ.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고려대학교 학사와 동국대 MBA, PSU 경영학박사과정 및 Fuller 선교대학원 수학 중이며 현재 비영리 선교법인 ICMM(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대표와 Grace Mission University의 행정처장과 교회행정, IT, NPO 담당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ICMM을 통한 선교 사역은 새로운 선교 접근 방식인 BAM (Business As Mission)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영 및 IT분야의 저술 및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선교 자원의 동원과 협력, 전문인 사역자 양성 등의 교육 사역에 힘쓰고 있다. 교회 행정과 IT, 비영리단체 운영의 실제, 선교와 IT, 컴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주제의 신문 컬럼과 함께 13권의 저서가 있다. 발표 주제인 "Distance Education 기술을 활용한 신학교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미디어 서버 기술과 GPL 기반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서 교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구축과 사례를 발표한다. 본 주제는 미국 대학 인가 규정에 온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적합하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포함된다.

❺-29 선교사 자녀 학교인 여수룬 기독학교

지용주 / 시라큐스한인교회 담임, 여수룬기독학교

지용주 목사는 University of Utah 기계공학 박사,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전공,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동남부 코디네이터, InterVarsity Staff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KWMC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부의장 및 선교사자녀학교설립협력기구 기구장, GMIT (Global Mission & IT) Co-Founder 및 상임이사, Advisor member of Northeastern Seminary's Advisory Council, New York Bible Conference (NYBC) Founder 및 강사로 사역중이며 현재 시라큐스 한인교회 (미 장로교: PCUSA) 담임목사로 사역중이다.

"여수룬 (Jeshurun)"이란 "올바른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로써 하나님께서 의롭게 한 자,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이사야 44:1-5). 이 학교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며 정체성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복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섬기며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갈급한 심령에게 물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수룬 기독학교의 3P와 3S를 통해 이 목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P는 성경적 관점(Biblical Perspective), 하나님 나라의 목적 (Kingdom Purpose), 하나님 중심의 사람(God-centered People)을 뜻하며, 3S란 순전한 복음(Sound Doctrine), 순전한 삶(Sound Life), 순전한 지식(Sound Teaching)을 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은 우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지역학교에도, 학비가 너무도 비싼 국제학교에도 자녀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선교지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정체성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기독학교를 준비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수룬 기독학교를 통해 차세대 선교사역의 재원들을 양육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선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줌으로써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❺-30 선교사의 연장 교육과 올바른 선택: 선교학 Formal Education을 중심으로

김에녹/풀러선교대학원 교수

김에녹 선교사는 창의적 접근지역 대상 선교단치인 HOPE 선교회와 무슬렘 대상 사역 국제단체인 Frontiers Mission 의 전임선교사(1995년 이후), Fuller선교 대학원 선교학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교수, DMiss(Doctor of Missiology)책임 교수, ANC 온누리 교회 협동목사, Evangelical Church Alliance교단 목사로 사역중이다.

선교사들의 연장교육을 위해 선교학 석, 박사 과정을 선택 할 경우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과 졸업이후를 위해 어떠한생각을 해야 할지등을 선교학 교수와 선교사 동료로서 나누는 과정이 될 것이다.

❺-31 선교사 멤버케어와 실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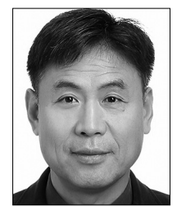
장인관 / Friends of Missionaries 대표

선교학 박사. 1988년에 선교사로 헌신하여 교단 선교국장(예성, 4년) / 북 코카서스 선교사(예성/C&MA 파송, 15년) / 선교담당 목사(나성영락교회, 4년)로 봉사하였고, 2010년에 Friends of Missionaries를 설립하여 섬기고 있다.

선교사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 적당한 돌봄이 없으면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선교를 제대로 할수 없게 된다. 선교사를 보내놓고 돌보지 않으면서 선교적인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선교사 멤버케어는 "선교인력의 양육과 발전을 위한 선교기관과 교회, 선교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자원의 투자로서, 선교와 관련된 모든 인력의 선발에서 은퇴까지의 삶의 전체 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사역보다는 사역을 수행하는 선교인력에 관심을 두고, 선교사의 모집과 선발, 훈련과 파송, 선교현장의 삶과 사역, 안식년과 자녀와 은퇴이후 등을 돌보며 선교사의 자기개발과 양육성장에까지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다. 멤버케어의 목적은 타문화권의 어려운 선교환경을 극복하며 주님안에서 건강하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에 집중하도록 지지해주고 삶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문제와 갈등에서 쉽게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은사와 자기개발과 성장하도록 돌보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멤버케어의 결과는 선교사를 강건하게 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며 제자화 하는 일에 집중하므로 복음의 진보를 이룬다. WEA의 선교위원회는 성경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최상의 실천모델로 주님의 케어, 자기/상호 케어, 파송자 케어, 전문가 케어, 그리고 네트웍 케어를 제시하였다. 선교사와 파송자와 전문단체들이 네트웍을 통해 주님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여 자원을 공유하므로 선교사에게 최상의 케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멤버케어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과 함께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이 요청된다. 선교사와 파송교회/파송기관이 멤버케어 전문단체들과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선교사 멤버케어는 선교사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선교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❺-32 선교사 위기 관리

김진대 / 한국위기관리재단사무총장



연세대 법과대학 졸업, 수도침례신학교 신대원(M. Div) 졸업, 국제옥수수재단 국제개발팀장, 한국위기관리재단 사무총장으로 사역중이다.

1. 위기관리와 성경

2. 선교단체의 위기관리시스템 -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기에 냉정하게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위기상황을 통제하고 대처할 모든 영역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미리 준비하고, 관련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는 위기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

3. 위기관리 표준정책과 지침서 - 정책은 위기발생 시 단체가 위기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행동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은 단체의 핵심가치를 반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구성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 위기관리절차

5. 사례 소개 - 발표 주제인 "Distance Education 기술을 활용한 신학교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미디어 서버 기술과 GPL 기반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PC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벗어나서 교육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구축과 사례를 발표한다. 본 주제는 미국 대학 인가 규정에 온라인 시스템이 어떻게 적합하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도 포함된다.

❺-33 100세시대 - 미리 준비하는 은퇴플랜이 행복해지는 첫걸음 입니다

천경태 / Metlife

Metlife Financial Services Representative, Special Needs Planner, Registered Representative, 현재 아틀란타 어린이 축구 선교회와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

"인생 100세 시대, 축복인가 재앙인가?" 은퇴관련 특집 기사가 메스컴에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증가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메디칼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되면서 100세 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고 전반적인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경험치 못했던 긴 은퇴 기간이 놓여 있습니다. 사역을 하고있는 현역 시절부터 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개인의 고통은 물론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 의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은퇴후에도 좋아하거나 의미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싶은 전통이나 남기고 싶은 유산을 후대들이 이어갈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은퇴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제8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가선교사

아시아

대만

김수경		GMS
박만선	1991	KMC
한경우		GMS

동티모르

이대훈		
이한성	2010	KPCA

말레이시아

김인순	2011	DMA
김해경	1998	FMB
박광범	2001	PMS
박수현		GP
방다윗	1998	FMB
송미향	2000	PCK
송애경	2004	GMS
이금주	1989	FMB
이신득	2000	PCK
이영희		GMS
이은혜	2009	GP
임레베카	1998	컴미션
장명석	2004	GMS
정재우	2001	WEC
정희찬		GMS
조재일	2009	GP
최욥	2008	PMS
최청인	2011	DMA
황기드온	1998	컴미션

몽골

김종진	2002	KMC
박정희	2005	기성
배문한		세계로선교회
신숙정	2009	KMC
이상수	2009	KMC
장희수	2002	KMC
정홍재	2002	PCK
팽청자	1995	KMC
한연희		세계로선교회
김영옥/김의원		

스리랑카

손인웅	2011	GMS
최재영	1991	GMS

인도네시아

고명례	1991	PMS
경의영	2001	JOY
김강인	1989	바울선교회
김귀영	1996	GMS
김O민	2003	PMS
김미영	1992	PCK
김외현	1999	GMS
김종국	1983	KPM
김종련	1992	PCK
김철용	1989	바울선교회
박기석	2001	GMS
박정숙	1999	PCK
송광옥	1990	PCK
송영환		위클리프
안성원	1984	GP
어성호	1990	KMC
윤명희	1990	KMC
이춘모	1999	PCK
이희열	1995	HOPE
이항명	2001	GMC
임명규		바울선교회
조수현		위클리프
조은숙	1984	PMS
채수산나	2001	컴미션
채O현	2001	컴미션
최춘영	1983	KPM
한옥희	1990	GP

일본

강태영	2005	요한선교회
권요셉	2002	GMS
김광현	2001	GMS
김미영		KPM
김봉귀		
김신호	1984	GMS
김앨리스	1993	GMS
김양근		GMS
김정숙		
문옥남	1984	GMS
박사욱		일본침례교연맹
박영기		KPM
박정숙	2000	일본독립교단
신복규		GMS
유그레이스	2002	대한예수교우리총회
유기남	1987	PMS
이루디아	2000	일본독립교단
이병구	1972	PCK
이예일	1972	PCK
이정화		
이정희		GMS
전지석	2012	바울선교회
정규화	1998	GMS
정순엽		바나바복음선교회
조남수	1988	GMS
채연배	2000	요한선교회
최남도	1997	예하성
한제국	2000	일본동맹기독교단
황영국		

캄보디아

고진호		
김성섭	1997	가나안선교회
김주환		NIBCM
김현범	2001	KMC
노진태	2002	예장(고려)
변옥선	1993	GMS
서병도	1991	PCK
유황연	2006	GMS
이근희	1987	OM
이시은	2001	대신
이정혁	2006	GMS
이증재	2006	GMS
임형철		
장완익	1993	GMS
정재훈	2005	대신
정진영		
천준상	2005	GMS
최도연	2006	GMS
최원찬		KMC
황규숙		
황성연	2004	인터서브

태국

강대홍		GMS
강석종	2001	KMC
김경수	2009	PCK
김보순		GMS
김봉순	1993	WMP
김정림	1995	OM
노희정	2004	PMS
문성철	2009	UMC
문춘기	2010	KMC
박수영	1996	백석
박숙희	2002	백석
박영성		GMS
박재천		GMS
배종원	1992	GMS
서경란	2009	PCK
송영임		GMS
신병연	1988	기아대책
신봉순		
신영선	1993	WMP
신홍식	1971	KIM
오세관	1990	KMC
오영철		GMS
우선정		NIBCM
우형철		NIBCM
윤혜신		KPM

이국찬	2009	PCK
이미라	2002	PCK
이소민	1999	PCK
이순영	1971	KIM
이영기	1998	백석
이옥희	1982	GP
이용웅	1996	GP
이은순	1992	GMS
이재순	2001	KMC
이창운	2004	PMS
임의택	2004	GMS
장정옥		
정규호		KPM
정미영	2004	PCK
정석천	1988	기아대책
정세미		GMS
최승근	1999	PCK
최인봉	2004	PCK
탁진선	2004	GMS
하민혜		PMS
하철환	2004	PMS
한준수	1982	GP
홍경환	2002	PCK
홍영숙		GMS
황정신		
황진호		GMS

필리핀

강진석	1989	백석
고수영	1999	합동중앙
곽명숙	2006	바울선교회
권혁선	2004	장로교평양노회
김경자	1989	PCK
김광산		
김기운	2006	기하성
김말손		KPM
김미수	1999	기하성
김상엽	1999	기하성
김상태	2007	PCK
김숙향	1991	예성
김숭봉	1996	GP
김신자		국제복음선교회
김양금	2005	기아대책
김영일	1985	미주하나님의성회
김영희		
김용기	2005	기아대책
김인숙		
김재성	1995	GMS
김재용		KPM
김현이	1996	글로벌선교회
김형갑	2002	PCK
남후수	1987	KPM
노화진	1990	한국맹인교회
문주연		
박남수	1997	PCK
박노석		
박미화	1989	백석
박에스더		GP
박희영	2004	KMC
방창원	2003	GMS
백영모	2001	기성
백현순	1991	KMC
상영규	1996	GMS
송옥희	1997	
신기대		GMS
신동혁		기성
신선희	2002	PCK
양정용		국제복음선교회
오성홍		GMS
우숙희		
윤영숙		KPM
윤은순	2004	장로교평양노회
윤정수		
윤정연		
이강구		
이경숙	2007	재송제일교회
이경희	2002	PCK
이광섭	2005	GMI
이교성	1989	PCK
이동백		GMS
이상익		

이성일		
이성회	1987	KPM
이수삼	2007	재송제일교회
이옥남	2006	기하성
이용진	1997	
이재민		
이찬수	1992	GMS
이호균	2005	기하성
임미경	1992	GMS
장성환		GMS
장순현	2002	PCK
조강암	1993	대신
주일중		
주하늘		
최광석		KPM
최숙영	2008	KMC
하정애		고신
홍영란	2005	기하성
황정숙	1997	PCK

한국

김경자		본월드미션
김병일	1995	인터콥
김연수	1990	위클리프
김영산	1996	KPM
김진대	2010	한국위기관리재단
박국배		
박호용	2007	PCK
원영대	1992	PMS
윤정희	1992	PMS
이은영		
임경심		
정보간	1996	KPM
정유정	2011	홀리즌미션
정인순	2006	홀리즌미션
정임성		
조경련	1987	GP
조용성	1987	GMS
조용중	1987	GP
좌영진		
최규		바울선교회
최데보라		KPCA
최복이		본월드미션
한정국		
홍흥표	2008	KMC

아프리카

가나

최승업	1991	WAM
최용순	1981	GMS
조미란		

감비아

김현희		GMS
이재환	1982	GMS
한병희		GMS

남아공

김현태	2002	PCK
류현숙	2003	DMA
맹연수	2002	PCK
이화남	1992	DMA
정운교		기하성
정인영	1992	DMA

모리타니아

신유수		PCK
권경숙		

세네갈

김형원		KMC

시에라레온

박근전	2006	예장(개혁)

우간다

김일석	2010	PCK
이호영		한국외향선교회

이집트

김미애	1987	성서선교회
김신숙	1977	GMS
김영희	2004	중동선교회
김종원	2004	중동선교회
정병훈		바울선교회
탁수연	1987	성서선교회
황효민	2011 GMS	

짐바브웨

강동원		A.F.F
전진경		A.F.F

케냐

강인중	1987	GMS
김미영	1995	GMS
박찬섭		
송충석	1990	KMC
이동관	2006	PCK
이상석	1995	GMS
이순자		
이은용	1991	PCK
이형란	1990	KMC
임종표	1981	PCK
전선환	1987	GMS
천종후		
홍영신	1991	PCK
홍화옥		PCK

코트디브아르

서예린		
서준원		
황세희		

탄자니아

김정림	1988	KMC
나정희		
서계행		
유진숙	1993	GMS
이미라		T.E.M
이성구		T.E.M
이진동		GMS

튀니지

최철	1992	바울선교회

유럽

그리스

김수길	1997	GMS

독일

김동분	1992	FMB
이성춘	1993	PCK
임재훈		KMC
장세균	1992	FMB

러시아

강영애	1990	GMS
강태원		나성한인교회
김성식	1990	GMS
김용우		PCK

김정옥		PCK
김정희	1993	PCK
박신옥	1991	캐나다성결선교회
박용석	1993	GMS
박형서		미주성결교단
설원화	1993	GMS
송상천	1991	백석
유창현	1992	GMS
이필정		나성한인교회
이활우	2006	GMS
이희재	1994	PCK
장경희	1996	미주성결교단
장석천	1996	미주성결교단
장영호	1993	GP
장인관	1990	예성
장현미		GMS
전영수		GMS
전희천	1993	PCK
정강환	1993	GP

룩셈부르크

윤혜숙		E.M.P

벨기에

최규환	2012	GMS

불가리아

김호동	1992	GMS
배점선	1992	GMS
변성붕		

영국

구자미	2006	GMS
김승진	2002	GMS
지성구	2006	GMS
최일호		BIC

우크라이나

강정애	1990	KMC
김병모	1992	백석
장종일	1990	KMC
이순정		

유라시아

류기철		CRWM

프랑스

성원용	1996	PCK
이극범		PCK
채희석	1984	U.B.F
허영희	1991	KMC

아메리카

과테말라

신영철		PGM

도미니카

김성자	1998	KMC
주선자	1988	GMP
최광규	1988	DMA
호세 보바디쟈	1998	KMC

멕시코

권인선		
김규식		
김용린	1996	동양선교교회
김용인		
김재순	1996	동양선교교회
김진실		PCA
문영자	1999	미주성결교단

민우석	1999	미주성결교단
박영완	1993	GP
안재관	2006	PCK
이사라		GP
이성수		GMS
이세련		PCK
이숙명	1993	PCK
이영순	2012	GMS
이은정	1997	PCK
이은주	2008	미주한인예장
이현종	1993	PCK
임원식	1993	KPCA
장덕수		
장덕인	1993	PCK
정기영	1993	GP
정득수		PCK
정아매	2006	PCK
조은영		PCA
주현숙	2010	KMC
최남영	1997	PCK
추기성	2002	한국성서침례회

미국

강충원		KaPM
곽현숙	1995	GMS
권종승	2006	물한그릇선교회
김경일	1991	GMS
김명자		GMS
김에녹		
김영	2002	미디아선교
김영란	2005	Christian Church
김은혜		
김정복		
김정한	1985	상동교회
김진실	1985	상동교회
김충직	2002	미디아선교
김해진	1996 KPM	
백점숙		PCK
변선미		CRESCEAT
송성자	1991	순복음사랑의교회
송하은		시라큐스한인교회
신선주		
양영준	2005	Christian Church
유기철		
이계한	1993	GMS
이성주	1993	GMS
이성희	1987	KPM
이영현		WCNF
이옥희	1991	GMS
임순임	1987	YWAM
임시몬		SEED
임찬혁		SEED
전성호	2016	GMS
정광수		GMI
정봉수		위클리프
정종숙		위클리프
정정옥	1995	GMS
정화미		GMI
차태광		
한희숙	1996	KPM
허대영		PCK

볼리비아

김성재	1994	GMS
이건화	1994	GMS
황희수	1998	KPCA

브라질

강복진	2004	예장
강성일	1983	PCK
강성철	1982	GMF
김선웅	1994	GP
김양순	1989	바울선교회
김혜란	1994	GP
김혜숙		ICC
박영호		CMA
석인숙	1984	바울선교회
윤한나		미주성결교단

이성전	1990	KMC
이신숙	1990	KMC
이애림	2005	GP
이영대	2005	GP
정은자	1982	GMF
정지현		미주성결교단
정헌명	1989	바울선교회
최춘근		
한도수	1984	바울선교회
현봉희	1983	PCK
홍성진		ICC

아마존

신재춘		재미한인예장
신정님		재미한인예장

온두라스

박명하	1991	PCK

캐나다

박은희		백석
조용완		백석
이규헌		

쿠바

이재순	1993	KMC
임순심	1998	기장
전재덕	1993	KMC

파라과이

곽성건	2002	DMA
곽주영		DMA
박은주	1989	KPM
배안호		GMS
이복래	1992	GMS
이정건	1989	KPM
정금태	1992	GMS
채도진	1984	KMC

페루

김구영	1997	PCK
김병균		GMS
김복향		GMS
김정자		기성
박경숙	2010	KMC
박창근	2015	대신
방도호	1996	KPM
신영조	2010	KMC
오주엽		PCK
이승훈	1997	PCK
장재필		기성
탁영준	2015	CMF
탁정원	2015	CMF
허성월	1996	KPM

오세아니아

괌

노경희		PCK
변성유		PCK

뉴질랜드

신종혁

팔라우

정상진	2000	PCK
홍성림	2000	PCK

호주

정훈채	2001	KPM

전략지역

네팔

김O옥	2000	바울선교회
김O영	2008	KMC
김O순	2009	여의도순복음교단
방O인	2003	기성
이O택	2009	여의도순복음교단
이O현	2008	KMC
이O원	2010	예성
이O희	2003	기성
최O욱	2011	GP
최O임	2010	예성
최O숙	2011	GP
황O영	2000	바울선교회

방글라데시

이O수	1994	GMS
조O숙	1994	GMS

Y국

김O은	2004	대신
김O호	1996	위클리프

J국

강O수		GMS
강O희		GMS
김O섭	1991	DMA
설O호	2002	백석
설O호	1991	백석
송O근		바울선교회
윤O상	2004	FMB
이O용		FMB
정O남	1989	GMS

이스라엘

김O영	2011	예장세원교회
송O경	2005	웨스트힐장로교회
윤O현		OF
최O숙		KIBI
최O나	2011	예장세원교회
황O경		OF

I국

강O휘	2003	GMS
고O숙	2010	GMS
곽O범		FMB
김O홍	1991	복음음반선교회
김O희	1997	기하성
김O정		GMS
김O은		기아대책
김O울	1999	FMB
김O임	1995	예수전도단
김O민		실크로드 미션
김O숙	1993	GMS
나O숙		
문O진	1999	기성
박O수	1988	예성
박O숙	1999	YWAM
배O임	1991	YWAM
벤O유		KMC
서O희		
손O애	1993	GP
송O호	2009	GMS
수남O 비로	2007	GMS
유O무		
유O수	1999	YWAM
이O식	1991	GMS
이O복	2004	GMS
이O기		
이O구	1995	GMS
이O천	2004	FMB
이O철	1993	GP
이O경	1991	GMS

임O선	2009	GMS
정O숙	1993	GP
정O선	2007	GMS
정O희	1999	YWAM
정O섭	1995	예수전도단
조O상	1994	GMS
조O솔		
조O준		
최O성		
최O식	2004	GMS
최O애	2007	포항중앙교회
최O자		예성
추O호	1997	기하성

N국

계O숙	1996	KMC
신아브라함	2008	KMC
이O영	1999	PCK
이O재	1999	PCK
이O우	1996	KMC
한나송	2008	KMC

C국

강O석	1998	PMS
고O라	1990	KMC
고O몽	1990	KMC
권O운	1995	기하성
김O애		
김O희	2007	KMC
김O환		PGM
김O내		PMS
김O순	1998	HOPE
김O수		PMS
김O환	2003	PMS
나O숙	1997	지구촌선교문학선교회
노O천	1999	KMC
박O실	1993	KMC
박O영		
박O영		
박O원		
박O호		
백O현	1997	알타이선교회
백O아	1997	알타이선교회
백O언	1997	알타이선교회
손O숙		
신O영		
신O정	1997	알타이선교회
오O문		KAPC
오O성		
유O환		
유O희		GMS
윤O숙	1995	기하성
이O덕	1994	중국어문선교회
이O혁		GMS
이O명		PMS
이O성		FMB
이O영		
임O환	1998	HOPE
임O진	1993	KMC
장O학	2001	KAPC
장O방	2010	KMC
정O진		
정O함	1995	기하성
정O길		GMS
정O진	2001	KAPC
정O혜		
주O영		KMC
주O영		
최O라	1998	PMS
최O경		GEDA
최O종		통합
최O홍		GEDA
홍O실	2005	KMC
홍O희		PMS
홍영표	2006	IMB
홍은진	2006	IMB

KZ국

김O종	1994	FMB
이O라	1993	GP

이O교	1993	GP
이O금		GP
이O한		GP
전O걸	2000	해외한인장로회
주O호	1991	FMB
윤O원		

KG국

강O민	1992	GMI
김O복	2006	
김O찬	2003	인터서브
김O숙		PCK
김O진	1992	GMI
박O희	2003	인터서브
박O성	2008	GMS
윤O수		PCK
임O실	2006	SEED
장O빗	1999	KMC
전O현	2003	GMS
정O석	2010	GMS
최O봉	1993	GMS
최O희	2010	PCK
홍O자	2006	

TK국

유O철	2004	KMC
이O자	2004	KMC

T국

강O혜	2002	GP
김O희		새생명비전교회
김O셉	1993	GP
김O석	2008	인터콥
김교회		INTERCP
박O미	2001	
송O애	1990	PMS
엄O용	2010	GP
윤O권	1990	PMS
이O숙	1992	KMC
이O윤		GMS
이O한A	1983	OM
이O미	2009	홍익교회
김O화		GMS
박O권		GMS
조O영	2002	한성교회

R국

곽O아	1998	PCK
김O주	1993	GMS
김O기		SEED
김O숙		SEED
오O문	2003	백석
이O희	1998	PCK
이O선	2003	백석
최욥		HOPE

M국

김O명	2012	KMC
이O희	2003	GMS
정O울	2009	컴미션
정O	2009	컴미션
정O채	2003	GMS

B국

강O석	1994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강O민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곽O미	1999	세계로선교회
김O관	1990	KMC
김O성	2002	KPM
김O영	2003	GMS
김O미		세계로선교회
김O양		세계로선교회
김O경	1999	세계로선교회
우O정	2001	KPM
은O란	2007	PCK
이O훈	2008	FMB
이O진	2007	GMP
이O정	2001	KPM

임O선	2004	GMS
최O실	2002	KPM
이O출		

기타

권인순	2005	홀리즌미션
김영주		기감
이병문	2000	FMB
앤드류김	1984	GMP
이귀범	1999	GMS
정인순B	1999	리즈
김정희B	1991	KMC
정남이	1991	KMC
박O호	2006	PMS
이O영	2006	PMS
김완철		Sea Mission
김하늘		Sea Mission
김홍근	1991	W.P.
이경희	1991	W.P.
정유정		홀리즌미션
정임성		홀리즌미션
원유희		홀리즌미션
이송희		WCNF
한명구		WEC
황데이빗		INTERCP
김다니엘		INTERCP
강요엘		INTERCP
이은하		신우세계선교회
장성민		신우세계선교회
장성은		신우세계선교회
장철호		신우세계선교회
김민섭	2001	예성
양주린		예수인교회
김성훈		위클리프
황성훈	2010	인터콥
추영수		주님의영광교회
추화자		주님의영광교회
최금호		하나님의은혜교회
박민자	1991	

가스미스 밤부카 김에스더 임존 리차드 시에 린다 하위
고수영 구선경 김경환 김남순 김무범 김성숙 김신은
김영자 김용대 김윤아 김종엽 김주형 김준회 나순숙
나정희 남수미 박영희 백주하 서계향 손창희 송은분
송정훈 순배론 신윤서 신윤호 신의호 신창민 신춘식
안상희 오충성 원수연 유요한 유창무 유하나 윤석형
윤순호 윤영숙 윤요한 윤혜신 이근식 이반석 이사야
이상수 이상익 이숙자 이순옥 이영미 이영선 이영재
이재구 이정화 이진수 이태환 이헌숙 이현영 임희영
장인수 장태희 정선교 정윤선 정주림 정해린 좌영진
주수은 차보경 차용하 천종후 최문종 최미영 최영란
최춘근 하정애 한기형 한드레 한영배 한태진 한홍열
허성술 홍성임 홍영표 홍은진 황원진 박사무엘 안지연
전영일 유미향 김진실 이재훈 김효진 임봉호 권영란
여병현 김란이 김주찬 양현정 양창모 최일식 이시화
김광오 방승신 임철현 임윤실